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용자를 위하여

1. 통계표와 도표·그래프 내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 조사기준 및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해당 본문 및 본문 내 주석으로 삽입하였습니다.
 - 정보격차지수 및 스마트격차지수의 개념, 산출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보고서의 「제2편 정보격차지수」 및 「제3편 스마트격차지수」에 상세히 표기하였습니다.
 - 조사용어에 대한 상세 정의는 「부록 용어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통계표 중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조사 결과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4.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통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7. 수록된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원데이터 등 자료요청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격차해소팀(02-6191-2024, cja@n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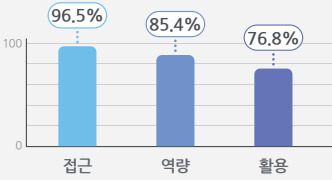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주요 지표



계층별 정보화수준 및 스마트정보화수준(2015년)

PC기반 정보화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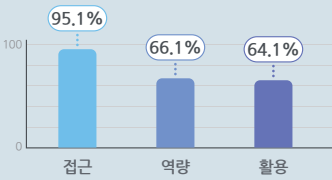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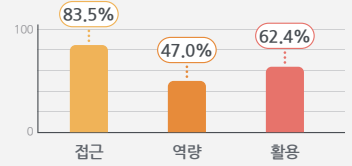
스마트정보화수준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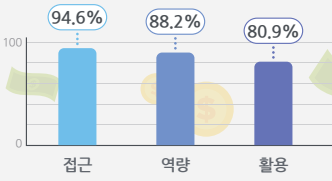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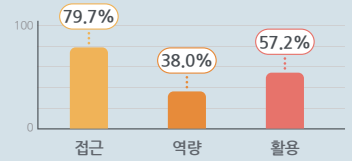
62.5%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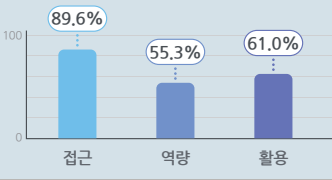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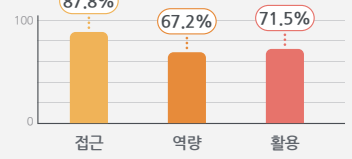
56.3%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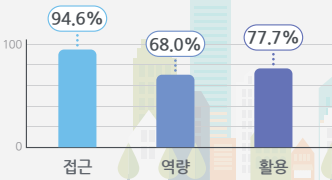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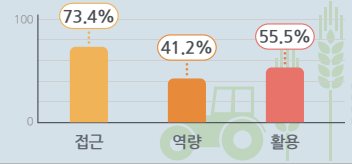
74.5%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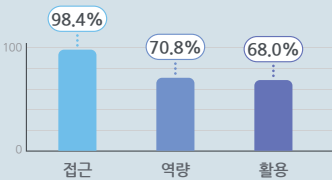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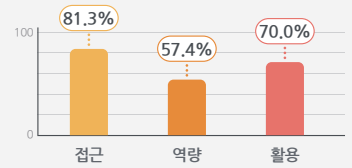
55.2%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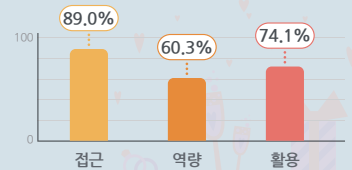
68.5%



87.8%



73.1%



* 각 수치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비교 수준



'접근'이란?

'역량'이란?

'활용'이란?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문서작성, 정보검색 등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시간, 이용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

정보격차해소 추진 성과 (2004~2015)



01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향상

사랑의 그린 PC 보급



보급 26만 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개발 39건
보급 4.4만 대

정보접근성 표준 마련



국가표준 3건
단체표준 12건

웹(Web), 앱(App) 접근성 컨설팅 및 진단



웹 9,273건
앱 350건

02 정보통신기기 이용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장 기초교육

- 장애인 73만 명
- 결혼이민자 3만 명
- 고령층 40만 명
- 저소득층 48만 명

온라인 정보화 교육(배움나라)



41만 명 수강

정보화 기초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재 20 종
온라인 40 종

03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향상

정보화 활용교육

- 장애인 4만 명
- 결혼이민자 2.5천 명
- 고령층 2.5만 명
- 농어민 1.8만 명

정보화 활용교육(온라인 배움나라) 강화



110만 명
매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개최

정보화 활용교육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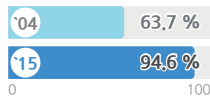


교재 45 종
온라인 70 종

{ PC 기반 정보격차해소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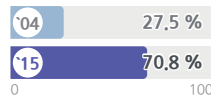
※ 각 수치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비교 수준

2004종합 45.0 %
2015종합 79.5 %
34.5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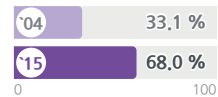
접근

30.9 %p↑



역량

43.3 %p↑



활용

34.9 %p↑

2016년도 정보격차 해소 주요 업무

01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향상 사업

<p>사랑의 그린 PC 및 정보화교육 기관 대상 태블릿 PC 보급</p> <p>사람의 그린 PC 13,000대 보급 태블릿 PC 600대 보급</p>	<p>스마트기거용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보급</p> <p>개발 4건 보급 4,000대 이상</p>	<p>웹(Web), 앱(App) 접근성</p> <p>고시개정 3건 국가표준 1건 제정</p>	<p>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진단</p> <p>웹(Web) 100건 앱(App) 100건 컨설팅 및 진단 1,000건</p>
<p>웹 개발자 전문교육</p> <p>500명 이상</p>	<p>웹(Web)·모바일 접근성 지킴이 멘토 운영</p> <p>60명</p>	<p>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시행</p> <p>17,500명 대상</p>	<p>정보 접근성 홍보 강화</p> <p>대국민 인식 강화 홍보 추진 UN 본부 접근성센터 개선</p>

02 정보통신기기 이용 역량 강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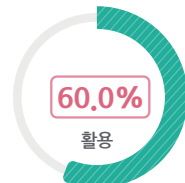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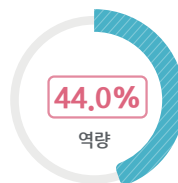
<p>정보화교육 기초과정 중 모바일 활용 비율 강화</p> <p>20%→25%</p>	<p>스마트기기 이용방법 콘텐츠 개발</p> <p>개발 1종</p>	<p>농어민 대상 정보화교육 강화</p> <p>10,000명 대상</p>	<p>다문화가정 맞춤형 방문 정보화교육</p> <p>300가구 대상</p>
--	--	---	--

03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향상 사업

<p>정보화 활용교육 중 모바일 활용 비율 강화</p> <p>20%→25%</p>	<p>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콘텐츠 개발</p> <p>개발 3종</p>	<p>장애인·고령자 등 대상 정보화교육</p> <p>취업연계형 교육 중증 장애인 1:1 방문교육</p>	<p>온라인 정보화교육 (배움나라) 운영</p> <p>90개 교육과정 신규강좌 개설</p>
--	--	--	---

2015년 스마트정보화 지수

※ 각 수치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비교 수준



CONTENTS

제1편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8
2. 법적 근거	18
3. 조사 연혁	18
4. 조사 설계	19
5. 조사 항목	22
6. 표본 오차	23
7. 표본 특성	25

제2편

정보격차지수

1. 정보격차지수 개요	34
가. 지수 개념 및 구성체계	34
나. 부문별 측정항목 및 산출방식	35
2. 정보격차지수 산출결과	36
가. 정보격차지수	36

제3편

스마트격차지수

1. 스마트격차지수 개요	50
가. 지수 개념 및 구성체계	50
나. 부문별 측정항목 및 산출방식	51
2. 스마트격차지수 산출결과	52
가. 스마트격차지수	52
나. 정보격차지수와 스마트격차지수 비교	60

제4편

계층별 분석

1. 장애인	65
2. 저소득	81
3. 장노년	95
4. 농어민	109
5. 북한이탈주민	123
6. 결혼이민자	135

부록

I 용어정의	147
II 설문지	159
III 통계표	173

표 차례

표 1	정보화수준(종합)	36
표 2	접근지수	38
표 3	역량지수	40
표 4	활용지수	42
표 5	양적활용지수	44
표 6	질적활용지수	46
표 7	스마트정보화수준(종합)	52
표 8	스마트정보화역량지수	54
표 9	스마트역량지수	56
표 10	스마트정보화활용지수	58

그림 차례

그림 1	● 정보화수준(종합)	36
그림 2	● 성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4	● 직업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6	● 월가구소득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3	● 연령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5	● 학력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7	● 거주지규모별 정보화 종합수준	37
그림 8	● 접근지수	38
그림 9	● 성별 접근 수준	39
그림 11	● 직업별 접근 수준	39
그림 13	● 월가구소득별 접근 수준	39
그림 10	● 연령별 접근 수준	39
그림 12	● 학력별 접근 수준	39
그림 14	● 거주지규모별 접근 수준	39
그림 15	● 역량지수	40
그림 16	● 성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18	● 직업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20	● 월가구소득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17	● 연령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19	● 학력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21	● 거주지규모별 정보역량 수준	41
그림 22	● 활용지수	42
그림 23	● 성별 활용 수준	43
그림 25	● 직업별 활용 수준	43
그림 27	● 월가구소득별 활용 수준	43



그림 24	• 연령별 활용 수준	43
그림 26	• 학력별 활용 수준	43
그림 28	• 거주지규모별 활용 수준	43
그림 29	• 양적활용지수	44
그림 30	• 성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2	• 직업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4	• 월가구소득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1	• 연령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3	• 학력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5	• 거주지규모별 양적활용 수준	45
그림 36	• 질적활용지수	46
그림 37	• 성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39	• 직업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41	• 월가구소득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38	• 연령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40	• 학력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42	• 거주지규모별 질적활용 수준	47
그림 43	• 성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5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7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4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6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8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53
그림 49	• 성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1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3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0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2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4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55
그림 55	• 성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57	• 직업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59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56	• 연령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58	• 학력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60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역량 수준	57
그림 61	• 성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3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5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2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4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6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59
그림 67	• PC 기반 정보화수준과 스마트정보화수준	60
그림 68	• 접근 부문	60

그림 69	• 역량 부문	61
그림 70	• 활용 부문	61
그림 71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66
그림 72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67
그림 73	• 인터넷 이용 현황	67
그림 74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68
그림 75	• 정보생산 활동률	68
그림 76	• 정보공유 활동률	69
그림 77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69
그림 78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70
그림 79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70
그림 80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71
그림 81	• 온라인 경제활동률	71
그림 82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72
그림 83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72
그림 84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73
그림 85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73
그림 86	• 인터넷 이용 의향	74
그림 87	• 인터넷 이용 동기	74
그림 88	• 스마트폰 보유율	75
그림 89	• 스마트폰 이용 효과	75
그림 90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76
그림 91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77
그림 92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78
그림 93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79
그림 94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79
그림 95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82
그림 96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82
그림 97	• 인터넷 이용 현황	83
그림 98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83
그림 99	• 정보생산 활동률	84
그림 100	• 정보공유 활동률	84
그림 101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85
그림 102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85
그림 103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86
그림 104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86
그림 105	• 온라인 경제활동률	87
그림 106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87
그림 107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88
그림 108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88
그림 109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89
그림 110	• 인터넷 이용 의향	89
그림 111	• 인터넷 이용 동기	90
그림 112	• 스마트폰 보유율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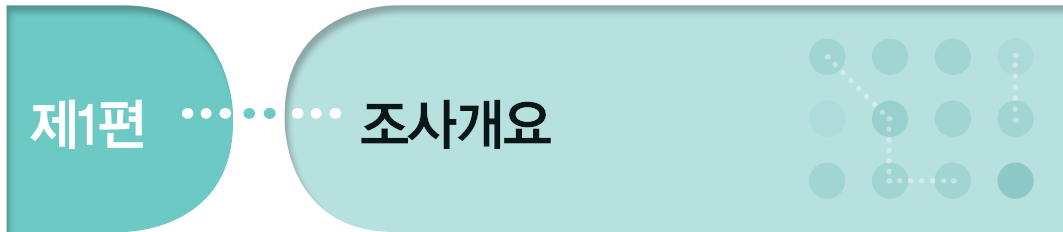
그림 113	• 스마트폰 이용 효과	91
그림 114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91
그림 115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92
그림 116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93
그림 117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94
그림 118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94
그림 119	• 인터넷 이용 현황	96
그림 120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96
그림 121	• 정보생산 활동률	97
그림 122	• 정보공유 활동률	97
그림 123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98
그림 124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98
그림 125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99
그림 126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99
그림 127	• 온라인 경제활동률	100
그림 128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100
그림 129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101
그림 130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01
그림 131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02
그림 132	• 인터넷 이용 의향	102
그림 133	• 인터넷 이용 동기	103
그림 134	• 스마트폰 보유율	103
그림 135	• 스마트폰 이용 효과	104
그림 136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104
그림 137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5
그림 138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06
그림 139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07
그림 140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107
그림 141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110
그림 142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110
그림 143	• 인터넷 이용 현황	111
그림 144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111
그림 145	• 정보생산 활동률	112
그림 146	• 정보공유 활동률	112
그림 147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113
그림 148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113
그림 149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114
그림 150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114
그림 151	• 온라인 경제활동률	115
그림 152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115
그림 153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116
그림 154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16
그림 155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17

그림 156	• 인터넷 이용 의향	117
그림 157	• 인터넷 이용 동기	118
그림 158	• 스마트폰 보유율	118
그림 159	• 스마트폰 이용 효과	119
그림 160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161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20
그림 162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1
그림 163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22
그림 164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122
그림 165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124
그림 166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124
그림 167	• 인터넷 이용 현황	125
그림 168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125
그림 169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126
그림 170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126
그림 171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27
그림 172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27
그림 173	• 인터넷 이용 의향	128
그림 174	• 인터넷 이용 동기	128
그림 175	• 스마트폰 보유율	129
그림 176	• 스마트폰 이용 효과	129
그림 177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130
그림 178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31
그림 179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32
그림 180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33
그림 181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133
그림 182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136
그림 183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136
그림 184	• 인터넷 이용 현황	137
그림 185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137
그림 186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138
그림 187	• 자발적·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138
그림 188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39
그림 189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139
그림 190	• 인터넷 이용 의향	140
그림 191	• 인터넷 이용 동기	140
그림 192	• 스마트폰 보유율	141
그림 193	• 스마트폰 이용 효과	141
그림 194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142
그림 195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43
그림 196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44
그림 197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45
그림 198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145

제1편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법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8조(연차보고 등), 제49조(지표조사)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5조(실태조사), 제46조(지표의 개발·보급) 등에 의거 추진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3 조사 연혁

- 2002년 : 정보격차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 ※ 2006년까지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단위로 조사 추진

- 2003년 : 정보격차지수 개발
- 2004년 : 연도별 정보격차지수 산출
 - ※ 정보격차지수 산출을 위해 2004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
- 2006년 :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제12017호)
- 2007년 : 일반국민 및 4개 계층 대상의 정보격차실태조사를 매년 추진
- 2012년 : 4개 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대상을 추가
- 2013년 : 스마트격차지수 개발
- 2014년 : 스마트격차지수 1차 산출
- 2015년 : 스마트격차지수 2차 산출

4 조사 설계

1. 목표 모집단 (Target Population)

- 일반국민 : 전국의 만 7세 이상 인구
- 장애인 : 전국의 만 7~69세 등록 장애인 (지체 · 뇌병변 · 청각/언어 · 시각 장애유형 기준)
- 저소득층 :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노년층 : 전국의 만 50세 이상 인구
- 농 어 민 : 전국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경제활동인구 연령층 기준)
- 북한이탈주민 :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하나원 퇴소자 기준)
- 결혼이민자 :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혼인적령 연령층 기준)

2. 조사 모집단 (Survey Population)

- 일반국민 : 2015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가구내 상주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
- 장애인 : 2015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 뇌병변 · 청각/언어 · 시각 장애유형 기준)

- 저소득층 : 2015년 8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노년층 : 2015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가구내 상주하는 만 50세 이상 가구원
- 농어민 : 2015년 8월 1일 현재 경제활동인구 기준에 부합하며, 전국의 농어가(전업·겸업)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
- 북한이탈주민 : 2015년 8월 1일 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
- 결혼이민자 : 2015년 8월 1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외국인

3. 표본크기

총 17,500명 (유효 표본 기준)

- 일반국민 5,500명
-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각 2,700명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각 600명

4. 표본추출방법

- 일반국민 및 장노년층 : 성·연령·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 가구 선정시 다단계 층화표집 활용
- 장애인 : 성·연령·장애유형·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 저소득층 : 성·연령·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 농어민 : 성·연령·직업(농어업)·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 북한이탈주민 : 성·연령·입국시기·권역별 비례할당표집
- 결혼이민자 : 성·연령·출신국적·권역별 비례할당표집

5.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6. 조사 기간

- 조사 기준 시점 : 2015년 8월 1일
- 조사 실시 기간 : 2015년 9월 ~ 12월
- 조사 주기 : 연 1회

7. 조사 기관

- 조사 주관 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조사 수행 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자료 수집(실사) 대행 기관 :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5 조사 항목

구분	영역	세부항목	분석단위
정보격차 지수 (종합)	접근 지수	● 가구 및 가구 이외 장소의 PC 보유 여부	가구/개인
		● 무선 인터넷 접속가능 기기 보유 여부	개인
		● 가구내 인터넷 이용 여부	가구
		● PC 및 인터넷 이용 필요시 사용가능 여부	개인
		● PC 및 인터넷 사용 가능시, 이용까지 소요 시간	개인
		● 주로 사용하는 PC 기종	개인
		●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접속방식	개인
	역량 지수	● 컴퓨터 활용능력 (8개 항목)	개인
		● 인터넷 활용능력 (7개 항목)	개인
	양적활용 지수	● PC 이용 여부 (PC 이용률)	개인
●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이용률)		개인	
● PC 및 인터넷 사용시간 (일일 평균) ● PC ·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 - 업무(학업) 활동, 가사 및 개인용무 활동, 여가 활동, 사회 활동, 의사소통 및 교제 활동		개인	
질적활용 지수	● PC · 인터넷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 - 업무(학업) 관련 정보검색, 업무(학업) 관련 문서 · 자료의 작성 및 관리, 가사 및 개인용무 관련 정보검색, 가사 및 개인용무 관련 문서 ·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거래처리, 인터넷 강의수강 및 학습,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개인	
스마트격차 지수 (종합)	스마트접근 지수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가구/개인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가구/개인
	스마트역량 지수	● PC 이용능력 (7개 항목)	개인
		●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 (7개 항목)	개인
	스마트활용 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개인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 정보(뉴스) 검색, 전자우편, 메신저, 교육, 영화/음악/전자책 등의 콘텐츠(뉴스 제외) 이용, 일반 블로그 운영, 마이 크로 블로그 이용, 커뮤니티 서비스,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서비스(뱅킹 · 주식), 행정서비스(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개인	

6 표본 오차

- 지역·성·연령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층별 모수(모평균,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와 표본오차를 계산함

1. 용어 정의

- Y_{hij}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즉, 지역/성/연령별 구분에 의한 번호 ($h = 1, 2, \dots, H$)
 - i : 각 층내에서의 군집의 번호, 즉, 층내 읍·면·동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군집내의 가구(가구원)의 번호 ($j = 1, 2, \dots, m_{hi}$)
- W_{hij} : 표본 가중치 (표본 추출확률의 역수)
 - h 번째 층, i 번째 군집, j 번째 가구(가구원)에 대한 표본 가중치
 - $W_{hij} = (\pi_{hi} \pi_{j|hi})^{-1}$
 - π_{hi} = h 번째 층에서 i 번째 군집의 추출확률
 - $\pi_{j|hi}$ = h 번째 층의 i 번째 군집에서 j 번째 가구(가구원)의 추출확률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전체 및 층별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h = 1, 2,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전체 및 층별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hat{V}_h(\bar{Y}) = \frac{n_h = (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cdot})^2$
 - f_h : h 번째 층의 표본 추출율, n_h/N_h
 - N_h : 층 h의 총 군집의 수
 -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dots$
 - $\bar{e}_{h\cdot}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5. 표준오차의 추정

- $S.E.(\bar{Y}) = \sqrt{\hat{V}(\bar{Y})}$

6. 표본오차의 추정

- Sampling Error = $z_{\alpha/2} \times S.E.(\bar{Y})$

7. 조사대상별 주요변수의 표본오차

- 주요 변수인 종합지수(100점 기준의 종합 정보화수준 측정 원점수)의 조사대상별 표본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산출

• 일반국민 : ±0.67점	• 농어민 : ±1.03점
• 장애인 : ±1.05점	• 북한이탈주민 : ±1.96점
• 저소득층 : ±1.01점	• 결혼이민자 : ±1.71점
• 장노년층 : ±0.94점	

7 표본 특성

1. 일반국민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2,748	50.0
	여성	2,752	50.0
연령별	19세 이하	843	15.3
	20대	758	13.8
	30대	897	16.3
	40대	1,022	18.6
	50대	939	17.1
	60대 이상	1,041	18.9
학력별	초등졸 이하	716	13.0
	중졸	977	17.8
	고졸	2,300	41.8
	대졸 이상	1,501	27.3
	무응답	6	0.1
직업별	농/임/어업	209	3.8
	서비스/판매직	1,545	28.4
	생산관련직	531	9.8
	전문관리/사무직	912	16.8
	주부	1,012	18.6
	학생	996	18.3
	무직/기타	235	4.3
거주지 규모별	대도시	2,497	45.4
	중소도시	2,478	45.1
	군지역	525	9.5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210	3.8
	100~199만원	683	12.4
	200~299만원	990	18.0
	300~399만원	1,568	28.5
	400만원 이상	1,951	35.5
	무응답	98	1.8
합계		5,500	100.0

2. 장애인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788	66.2
	여성	912	33.8
연령별	19세 이하	38	1.4
	20대	65	2.4
	30대	246	9.1
	40대	501	18.6
	50대	914	33.9
	60대 이상	936	34.7
학력별	초등졸 이하	639	23.7
	중졸	664	24.6
	고졸	1,161	43.0
	대졸 이상	235	8.7
	무응답	1	0.0
장애유형별	지체 장애	1,806	66.9
	뇌병변 장애	290	10.7
	시각 장애	342	12.7
	청각/언어 장애	262	9.7
장애등급별	1~2급	674	25.0
	3~4급	865	32.0
	5~6급	1,161	43.0
직업별	농/임/어업	86	3.2
	서비스/판매직	332	12.3
	생산관련직	473	17.5
	전문관리/사무직	149	5.5
	주부	564	20.9
	학생	41	1.5
	무직/기타	1,055	39.1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768	28.4
	100~199만원	843	31.2
	200~299만원	534	19.8
	300~399만원	310	11.5
	400만원 이상	235	8.7
	무응답	10	0.4
합 계		2,700	100.0

3.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283	47.5
	여성	1,417	52.5
연령별	19세 이하	598	22.1
	20대	216	8.0
	30대	154	5.7
	40대	473	17.5
	50대	576	21.3
	60대 이상	683	25.3
학력별	초등졸 이하	865	32.0
	중졸	834	30.9
	고졸	927	34.3
	대졸 이상	69	2.6
	무응답	5	0.2
직업별	농/임/어업	39	1.4
	서비스/판매직	235	8.7
	생산관련직	486	18.0
	전문관리/사무직	26	1.0
	주부	356	13.2
	학생	617	22.9
	무직/기타	941	34.9
거주지 규모별	대도시	1,182	43.8
	중소도시	1,402	51.9
	군지역	116	4.3
월가구 소득별	50만원 미만	1,009	37.4
	50~99만원	950	35.2
	100만원 이상	734	27.2
	무응답	7	0.3
합계		2,700	100.0

4. 장노년층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266	46.9
	여성	1,434	53.1
연령별	50대	1,266	46.9
	60대	724	26.8
	70대 이상	710	26.3
학력별	초등졸 이하	583	21.6
	중졸	595	22.0
	고졸	1,181	43.7
	대졸 이상	336	12.4
	무응답	5	0.2
직업별	농/임/어업	267	9.9
	서비스/판매직	777	28.8
	생산관련직	463	17.1
	전문관리/사무직	223	8.3
	주부	711	26.3
	무직/기타	259	9.6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48	12.9
	100~199만원	686	25.4
	200~299만원	564	20.9
	300~399만원	529	19.6
	400만원 이상	539	20.0
	무응답	34	1.3
거주지 규모별	대도시	1,145	42.4
	중소도시	1,148	42.5
	군지역	407	15.1
합계		2,700	100.0

5. 농어민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308	48.4
	여성	1,392	51.6
연령별	20대 이하	278	10.3
	30대	153	5.7
	40대	266	9.9
	50대	567	21.0
	60대 이상	1,436	53.2
학력별	초등졸 이하	843	31.2
	중졸	683	25.3
	고졸	850	31.5
	대졸 이상	306	11.3
	무응답	18	0.7
직업구분별	농업 종사층	2,569	95.1
	어업 종사층	131	4.9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415	15.4
	100~199만원	867	32.1
	200~299만원	782	29.0
	300만원 이상	628	23.3
	무응답	8	0.3
지역구분별	도시지역	916	33.9
	군지역	1,784	66.1
세대구성별	40대 이하 1세대	67	2.4
	50대 이상 1세대	1,442	53.4
	2세대 이상	1,161	43.0
	무응답	30	1.1
합계		2,700	100.0

6. 북한이탈주민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77	29.5
	여성	423	70.5
연령별	20대 이하	257	42.8
	30대	183	30.5
	40대	102	17.0
	50대 이상	58	9.7
북한학력별	중졸 이하	326	54.3
	전문학교 이상	180	30.0
	무응답	94	15.7
직업별	농/임/어업	2	0.3
	서비스/판매직	106	17.7
	생산관련직	141	23.5
	전문관리/사무직	31	5.2
	주부	69	11.5
	학생	98	16.3
	무직/기타	153	25.7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185	30.8
	100~199만원	194	32.3
	200만원 이상	109	18.2
	무응답	112	18.7
거주지 규모별	대도시	285	47.5
	중소도시	266	44.3
	군지역	29	4.8
	무응답	20	3.3
한국입국 시기별	2005년 이전	108	18.0
	2006년~2009년	130	21.7
	2010년 이후	362	60.3
합계		600	100.0

7. 결혼이민자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5	0.8
	여성	595	99.2
연령별	20대 이하	188	31.3
	30대	196	32.7
	40대 이상	216	36.0
학력별	중졸 이하	145	24.2
	고졸	301	50.2
	대졸 이상	148	24.7
	무응답	6	1.0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26	4.3
	100~199만원	177	29.5
	200~299만원	243	40.5
	300만원 이상	90	15.0
	무응답	64	10.7
거주지 규모별	대도시	190	31.7
	중소도시	336	56.0
	군지역	47	7.8
	무응답	27	4.5
출신 국적별	중국(한족)	144	24.0
	중국(조선족)	165	27.5
	베트남/필리핀	180	30.0
	기타	111	18.5
합계		600	100.0

제2편 정보격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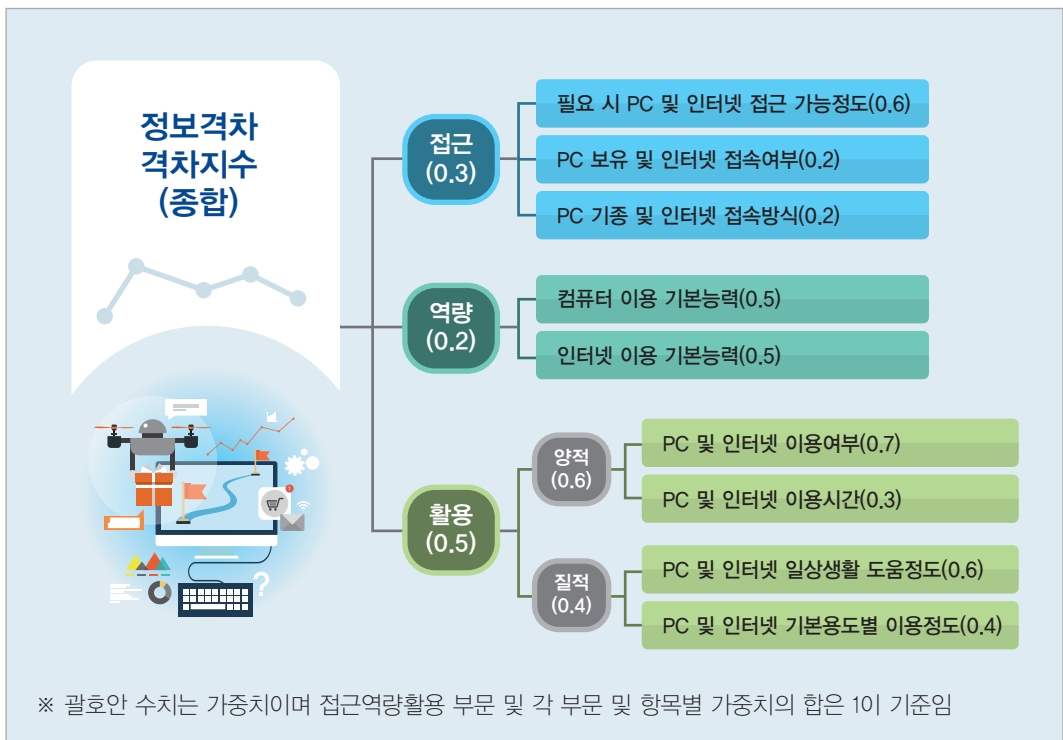


제2편 정보격차지수

1 정보격차지수 개요

가. 지수 개념 및 구성체계

-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낙오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수준의 개인간 격차를 측정



◎ 정보격차지수(종합) = 접근지수(0.3) + 역량지수(0.2) + 활용지수(0.5)

- 접근지수 = 필요시 PC 및 인터넷 접근가능성(0.6) +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0.2) + PC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0.2)
- 역량지수 = 컴퓨터 이용 기본능력(0.5) + 인터넷 이용 기본능력(0.5)
- 활용지수 = 양적활용지수(0.6) + 질적활용지수(0.4)
 - 양적활용 = PC 및 인터넷 이용여부(0.7) + PC 및 인터넷 이용시간(0.3)
 - 질적활용 = 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0.6) + PC 및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정도(0.4)

나. 부문별 측정항목 및 산출방식

■ 접근지수

- (측정 내용) 접근지수는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이 무엇인지' 및 '현재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는 어떠한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함
- (산출 방식) 3개 항목의 가중치는 6 : 2 : 2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 역량지수

- (측정 내용) 역량지수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인터넷 사용능력으로 구분됨
- (산출 방식) 컴퓨터 사용능력과 인터넷 사용능력의 가중치는 5 : 5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 활용지수

- (측정 내용) 활용지수는 양적활용지수와 질적활용지수로 구성되며, 전자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컴퓨터·인터넷 사용여부 및 사용시간을, 후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사용의 질과 연관된 생산적 정보활용 정도를 측정함
 - (양적활용지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여부'와 '하루 평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구성·측정됨
 - (질적활용지수) '컴퓨터·인터넷의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와 '컴퓨터·인터넷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로 구성·측정됨
- (산출 방식) 양적활용과 질적활용의 가중치는 6:4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2 정보격차지수 산출결과

가. 정보격차지수

1) 종합 결과

- 4대계층(장애인 · 저소득층 · 농어민 · 장노년층)의 PC 기반 종합 정보화수준은 '14년 76.6%에서 '15년 79.5%로 전년 대비 2.9%p 상승
 - ※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계층별 전년 대비 정보화수준 상승폭은 장노년층(3.1%p ↑), 농어민(2.8%p ↑), 저소득층(2.4%p ↑), 장애인(0.9%p ↑)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화수준이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상승
- 계층별로는 농어민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의 72.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노년층 77.4%, 장애인 86.2%, 저소득층 87.7%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57.5	65.2	73.9	76.0	78.8	80.3	81.3	82.2	83.4	83.8	85.3	86.2
저소득층	55.6	64.2	73.0	75.5	78.1	79.5	80.5	81.4	82.2	83.2	85.3	87.7
농어민	33.8	41.7	49.8	54.6	57.9	60.3	61.8	63.6	64.8	67.8	69.4	72.2
장노년층	40.9	49.3	58.4	62.6	64.2	65.9	67.5	69.2	71.2	72.6	74.3	77.4
평균	45.0	53.3	62.0	65.9	68.0	69.7	71.1	72.4	74.0	75.2	76.6	79.5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1 • 정보화수준(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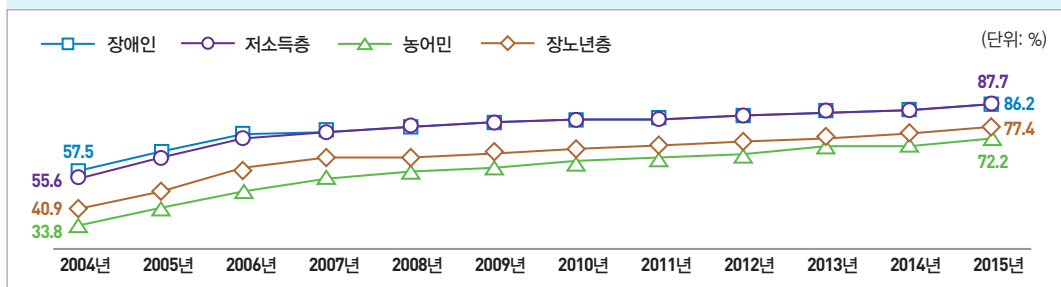


그림 2 • 성별 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3 • 연령별 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4 • 직업별 정보화 종합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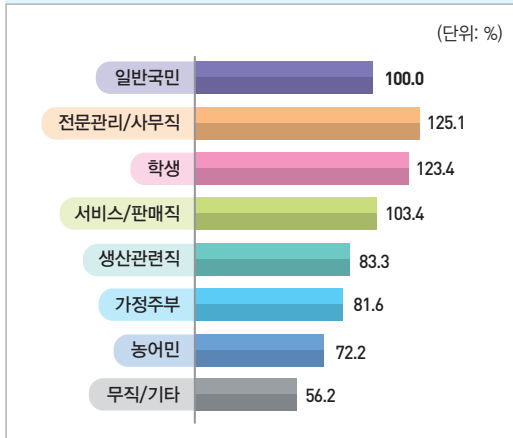


그림 5 • 학력별 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6 • 월가구소득별 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7 • 거주지규모별 정보화 종합수준



2) 부문별 결과

① 접근지수

- 일반국민의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과 비교한 4대계층의 평균 접근 수준은 94.6%로 전년 대비 0.3%p 상승
- '15년 기준, 일반국민의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접근 수준이 일반국민의 89.4%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층(94.6%), 장노년층(95.1%), 장애인(96.5%)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73.0	77.6	85.4	88.8	92.6	92.7	93.4	93.5	93.9	94.7	96.4	96.5
저소득층	61.1	69.8	79.6	84.2	87.9	88.4	89.5	90.9	92.3	93.7	94.4	94.6
농어민	51.3	57.9	69.5	76.7	80.9	84.1	86.2	87.5	87.5	88.6	89.3	89.4
장노년층	66.3	73.5	82.9	90.1	92.5	93.6	93.8	94.3	94.9	94.3	94.9	95.1
평균	63.7	71.0	80.2	86.5	89.7	91.0	91.8	92.7	93.4	93.6	94.3	94.6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접근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8 • 접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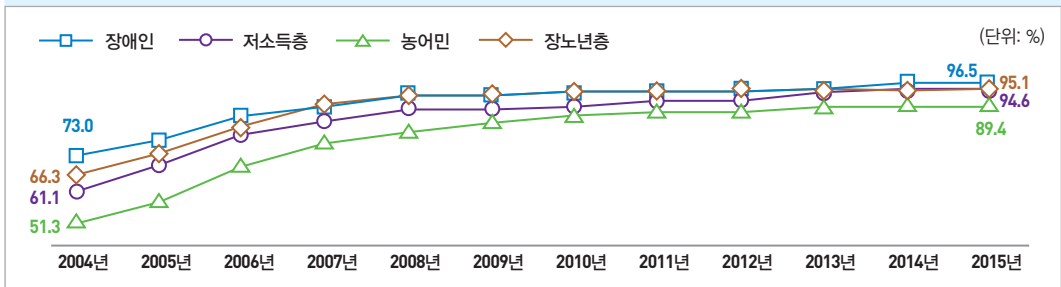


그림 9 • 성별 접근 수준



그림 10 • 연령별 접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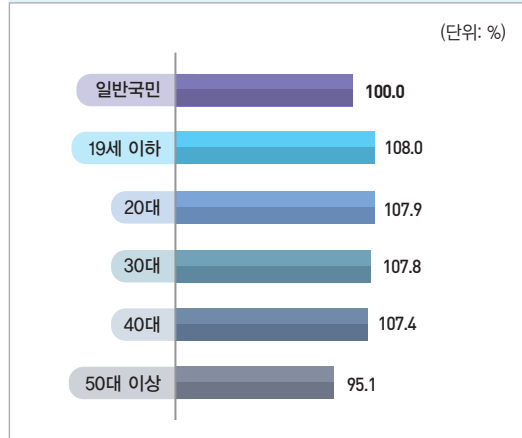


그림 11 • 직업별 접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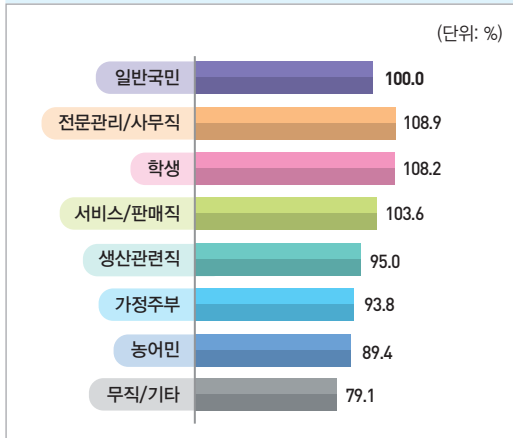


그림 12 • 학력별 접근 수준



그림 13 • 월가구소득별 접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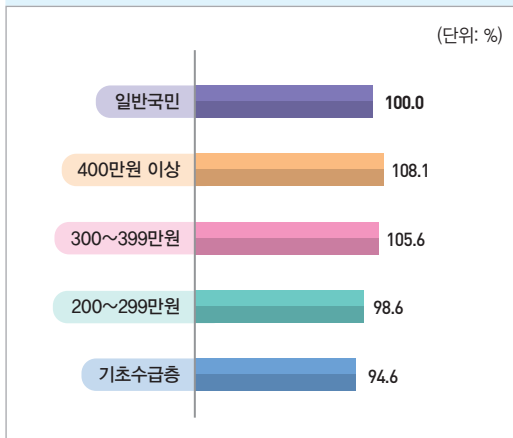


그림 14 • 거주지규모별 접근 수준



② 역량지수

- 일반국민의 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평균 역량 수준은 70.8%로 전년 대비 6.7%p 상승
- '15년 일반국민의 역량(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역량 수준이 일반국민의 55.3%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66.1%), 장애인(85.4%), 저소득층(88.2%)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41.1	50.0	61.0	63.4	66.0	72.2	72.8	75.1	79.0	79.8	82.1	85.4
저소득층	49.9	58.3	67.1	67.6	69.1	74.7	75.8	76.6	76.8	78.0	84.2	88.2
농어민	18.3	25.0	29.1	30.5	33.2	35.2	37.2	38.0	39.0	43.1	47.9	55.3
장노년층	17.7	23.3	32.4	33.7	34.5	37.0	39.4	42.8	48.0	53.9	59.0	66.1
평균	27.5	34.2	42.9	44.5	45.7	48.9	50.8	52.8	56.1	60.0	64.1	70.8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역량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15 • 역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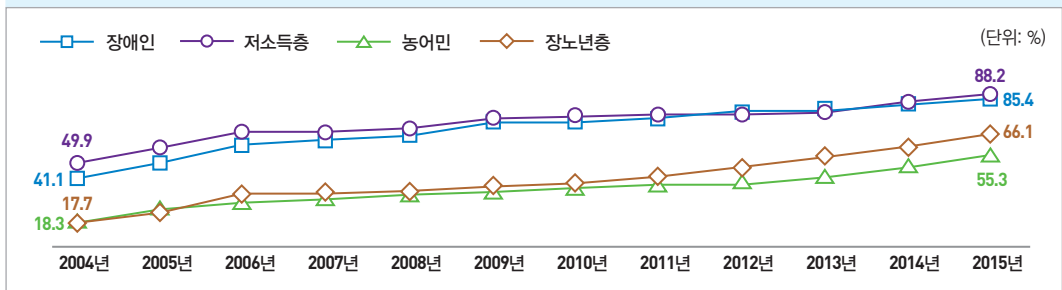


그림 16 • 성별 정보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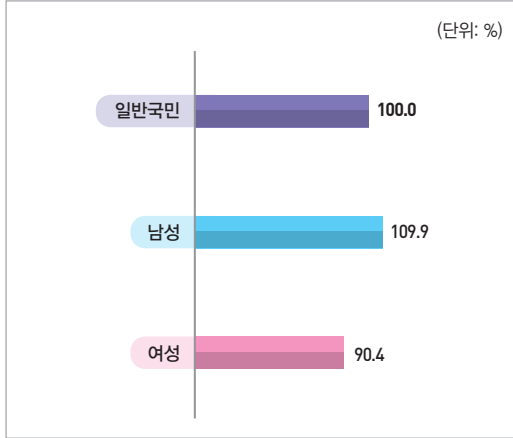


그림 17 • 연령별 정보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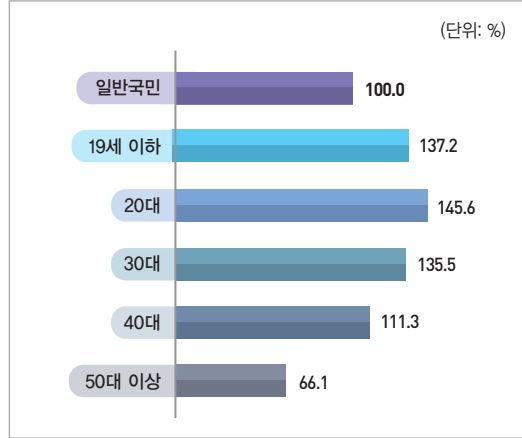


그림 18 • 직업별 정보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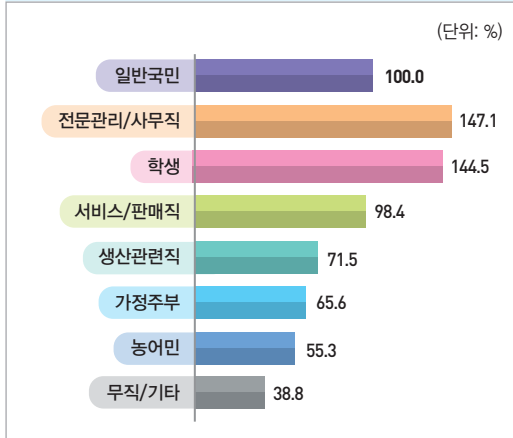


그림 19 • 학력별 정보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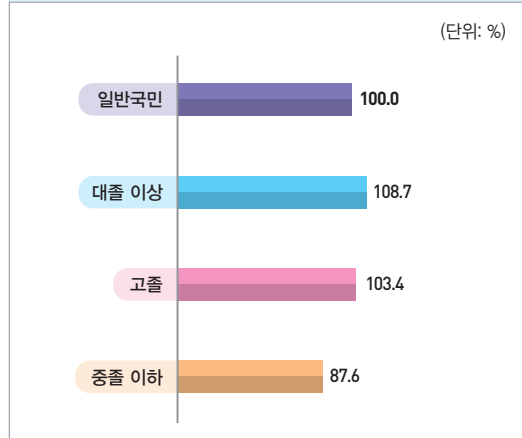


그림 20 • 월가구소득별 정보역량 수준



그림 21 • 거주지규모별 정보역량 수준



③ 활용지수

- 일반국민의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4대계층의 활용 수준은 68.0%로 전년보다 4.5%p 상승
- '15년 일반국민의 활용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활용 수준이 61.0%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64.1%), 장애인(76.8%), 저소득층(80.9%)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48.1	57.1	66.1	66.7	68.8	70.6	71.7	72.9	74.1	74.6	75.7	76.8
저소득층	52.5	59.9	68.1	69.1	71.0	72.1	73.0	73.3	73.9	74.7	76.8	80.9
농어민	22.4	30.0	36.2	39.4	42.5	43.9	45.0	47.2	49.8	55.4	56.7	61.0
장노년층	24.4	32.4	41.1	43.3	44.9	47.2	49.5	51.9	54.4	57.5	59.3	64.1
평균	33.1	41.0	49.2	51.4	53.1	54.8	56.5	58.2	59.9	62.3	63.5	68.0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활용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22 • 활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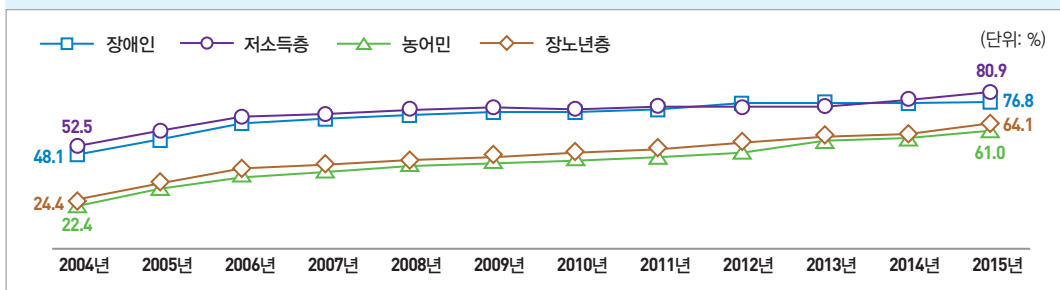


그림 23 • 성별 활용 수준



그림 24 • 연령별 활용 수준



그림 25 • 직업별 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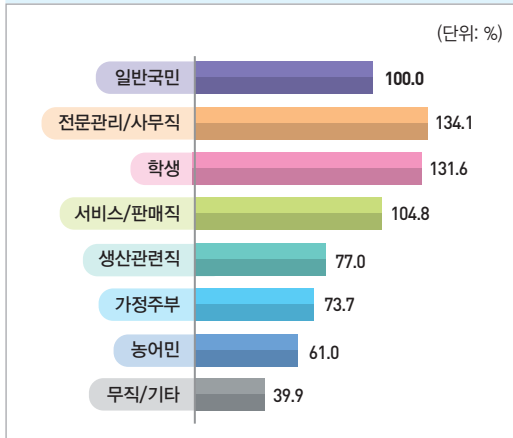


그림 26 • 학력별 활용 수준



그림 27 • 월가구소득별 활용 수준



그림 28 • 거주지규모별 활용 수준



양적활용지수

- 일반국민의 양적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4대계층의 양적활용 수준은 68.8%로 전년보다 5.3%p 상승
- '15년 일반국민의 양적활용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양적활용 수준이 62.1%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64.8%), 장애인(75.9%), 저소득층(83.4%)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48.9	58.6	67.8	68.1	70.5	72.4	74.0	74.4	74.9	75.2	75.4	75.9
저소득층	53.7	61.4	69.3	70.0	72.6	72.9	74.1	74.4	75.0	75.9	77.7	83.4
농어민	23.5	32.0	38.1	42.4	44.4	45.8	46.6	48.4	51.3	56.1	56.8	62.1
장노년층	25.9	33.6	41.7	44.4	45.7	47.7	50.0	51.9	53.2	57.4	59.1	64.8
평균	34.2	42.2	50.3	52.8	54.4	55.7	57.5	58.6	59.7	62.6	63.5	68.8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양적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양적활용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29 • 양적활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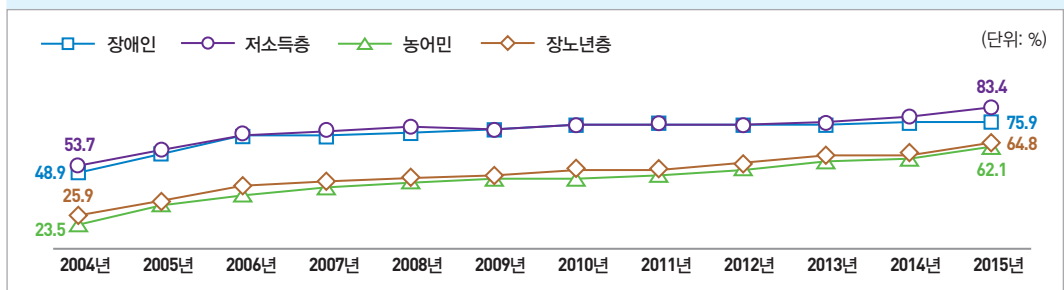


그림 30 • 성별 양적활용 수준



그림 31 • 연령별 양적활용 수준



그림 32 • 직업별 양적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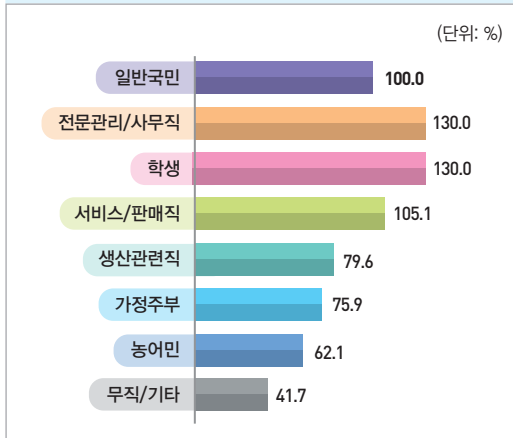


그림 33 • 학력별 양적활용 수준



그림 34 • 월가구소득별 양적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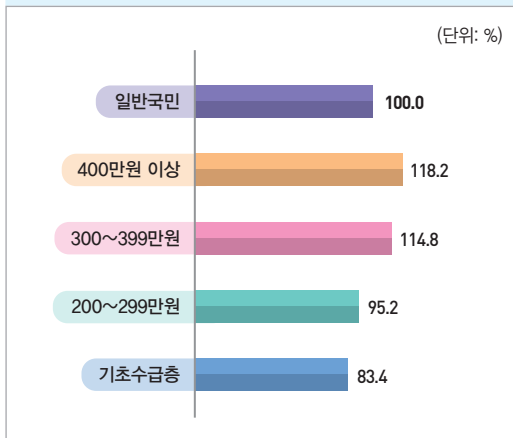


그림 35 • 거주지규모별 양적활용 수준



질적활용지수

- 일반국민의 질적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 평균 질적활용 수준이 66.0%로 전년 대비 2.6%p 상승
- '15년 기준, 일반국민의 질적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질적활용 수준이 일반국민의 58.5%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62.4%), 저소득층(75.1%), 장애인(78.8%)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45.5	53.1	62.0	63.3	64.5	65.8	66.2	69.3	72.5	73.2	76.5	78.8
저소득층	49.3	57.0	64.9	67.2	67.6	69.6	70.5	70.8	71.2	71.8	74.4	75.1
농어민	19.5	25.5	31.3	32.0	37.5	39.5	41.2	44.4	46.2	53.8	56.7	58.5
장노년층	20.7	29.7	39.5	40.6	42.9	45.9	48.3	52.0	57.3	57.7	59.5	62.4
평균	29.6	37.7	46.4	48.0	50.1	52.3	54.1	56.8	60.4	61.6	63.4	66.0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질적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질적활용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36 • 질적활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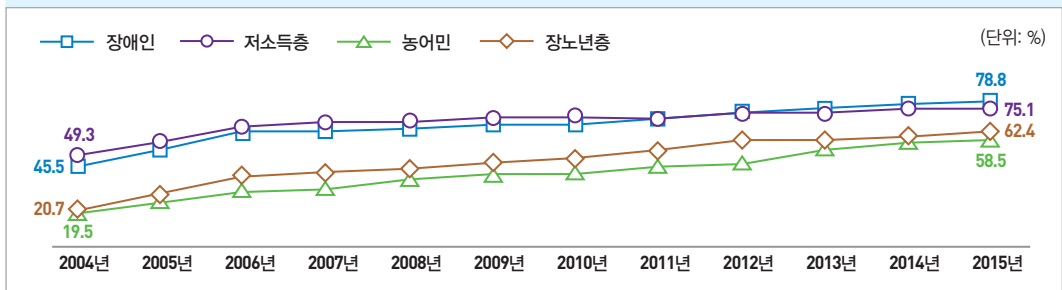


그림 37 • 성별 질적활용 수준



그림 38 • 연령별 질적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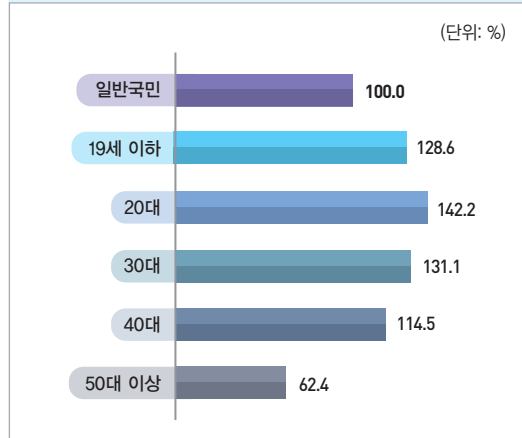


그림 39 • 직업별 질적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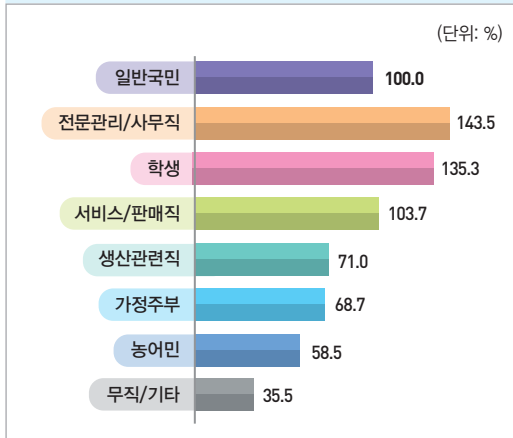


그림 40 • 학력별 질적활용 수준



그림 41 • 월가구소득별 질적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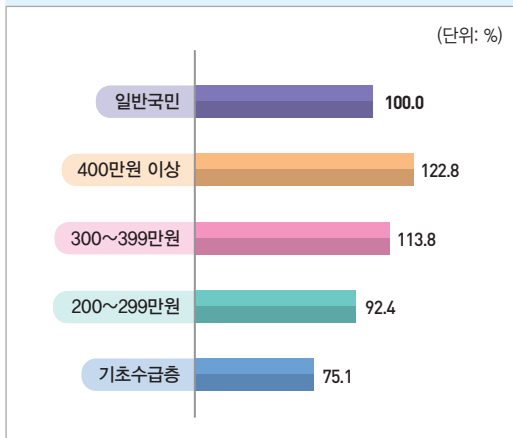


그림 42 • 거주지규모별 질적활용 수준



제3편 스마트격차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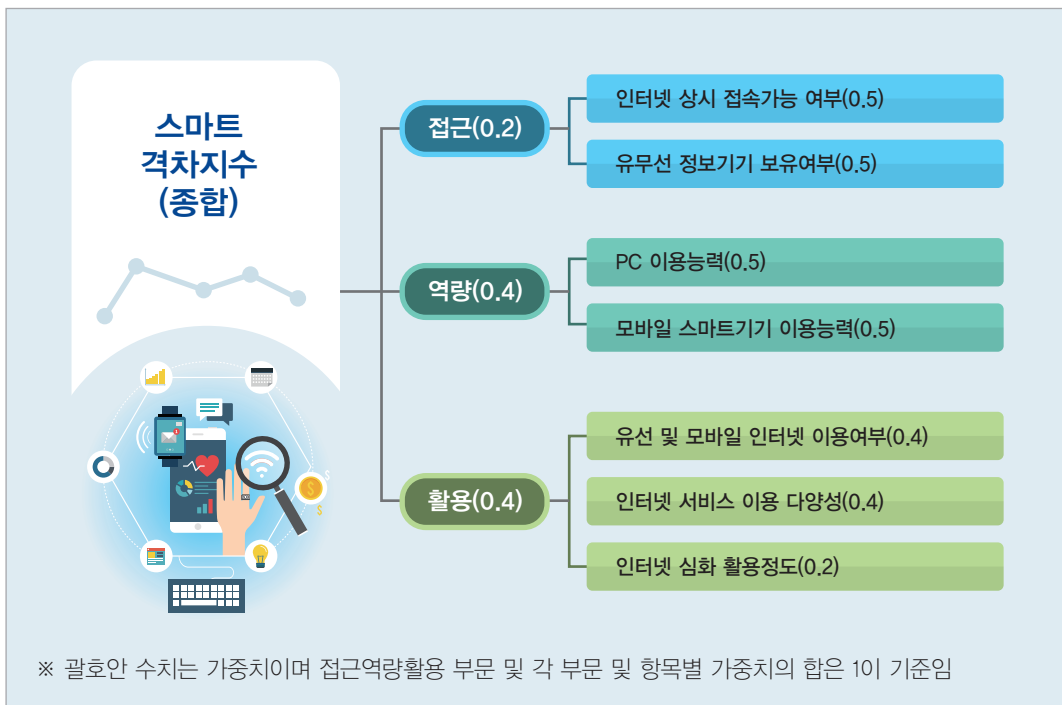
제3편

스마트격차지수

1 스마트격차지수 개요

가. 지수 개념 및 구성체계

-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 스마트격차지수(종합) = 스마트접근지수(0.2) + 스마트역량지수(0.4) + 스마트활용지수(0.4)

- 접근지수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0.5)
- 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나. 부문별 측정항목 및 산출방식

■ 스마트접근지수

- (측정 내용) 스마트접근지수는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 및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로 측정됨
- (산출 내용) 2개 항목간의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 스마트역량지수

- (측정 내용) 스마트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됨
- (산출 내용)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스마트기기 이용능력'의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 스마트활용지수

- (측정 내용) 스마트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됨
- (산출 내용) 3개 항목간 가중치는 4:4:2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됨

2 스마트격차지수 산출결과

가. 스마트격차지수

1) 종합 결과

- 4대계층(장애인 · 저소득층 · 농어민 · 장노년층)의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은 '14년 57.4%에서 '15년 59.7%로 전년 대비 2.3%p 상승
 ※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을 의미
- 계층별 전년 대비 스마트정보화수준 상승폭은 농어민(3.8%p ↑), 장애인(2.3%p ↑), 저소득층(2.0%p ↑), 장노년층(2.0%p ↑)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이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상승
- 계층별로는 농어민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의 55.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노년층 56.3%, 장애인 62.5%, 저소득층 74.5%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14년	2015년
장애인	60.2	62.5
저소득층	72.5	74.5
농어민	51.4	55.2
장노년층	54.3	56.3
평균	57.4	59.7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그림 43 • 성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44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45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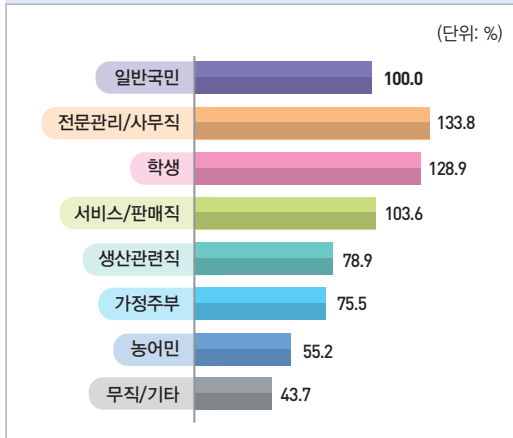


그림 46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47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그림 48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 종합수준



2) 부문별 결과

① 스마트정보화접근지수

-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평균 스마트 정보화접근 수준은 80.8%로 전년 대비 2.4%p 상승
- '15년 기준,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스마트접근 수준이 일반국민의 73.4%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79.7%), 장애인(83.5%), 저소득층(87.8%)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스마트정보화접근지수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장애인	79.9	83.5		
저소득층	82.2	87.8		
농어민	68.1	73.4		
장노년층	79.2	79.7		
평균	78.4	80.8		

※ 일반국민의 스마트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스마트접근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49 • 성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그림 50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그림 51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그림 52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그림 53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그림 54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



② 스마트정보화역량지수

-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평균 스마트정보화역량 수준은 44.0%로 전년 대비 2.0%p 상승
- '15년 기준,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노년층의 스마트역량 수준이 일반국민의 38.0%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민(41.2%), 장애인(47.0%), 저소득층(67.2%)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14년	2015년
장애인	45.0	47.0
저소득층	66.8	67.2
농어민	40.7	41.2
장노년층	35.5	38.0
평균	42.0	44.0

※ 일반국민의 스마트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스마트역량 수준을 의미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55 • 성별 스마트역량 수준



그림 56 • 연령별 스마트역량 수준



그림 57 • 직업별 스마트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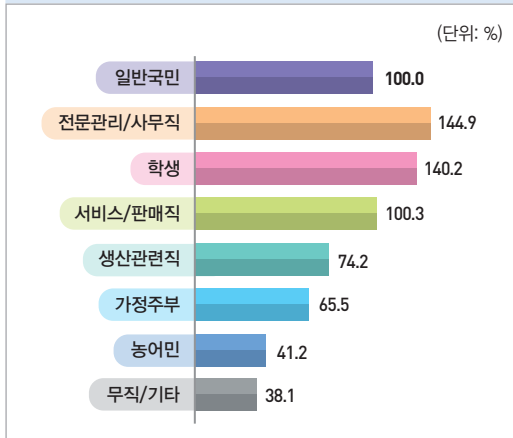


그림 58 • 학력별 스마트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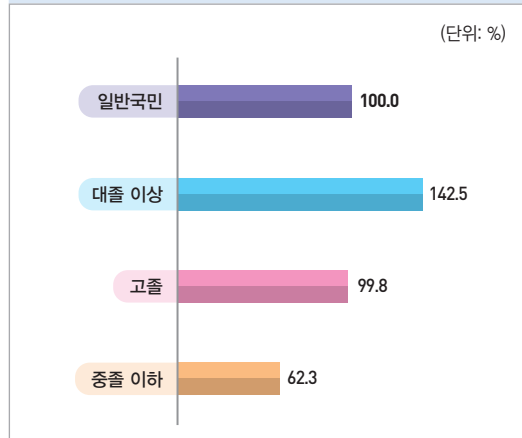


그림 59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역량 수준



그림 60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역량 수준



③ 스마트정보화활용지수

-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평균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은 60.0%로 전년 대비 4.1%p 상승
- '15년 기준, 일반국민의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이 일반국민의 55.5%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57.2%), 장애인(62.4%), 저소득층(71.5%)의 순으로 나타남

표 10		스마트정보화활용지수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장애인	59.7	62.4		
저소득층	70.3	71.5		
농어민	48.6	55.5		
장노년층	53.0	57.2		
평균	55.9	60.0		

- ※ 일반국민의 스마트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스마트활용 수준을 의미
- ※ 평균은 4대계층별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임

그림 61 • 성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그림 62 • 연령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그림 63 • 직업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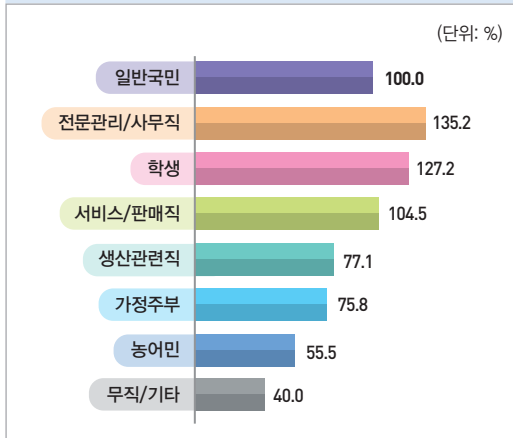


그림 64 • 학력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그림 65 • 월가구소득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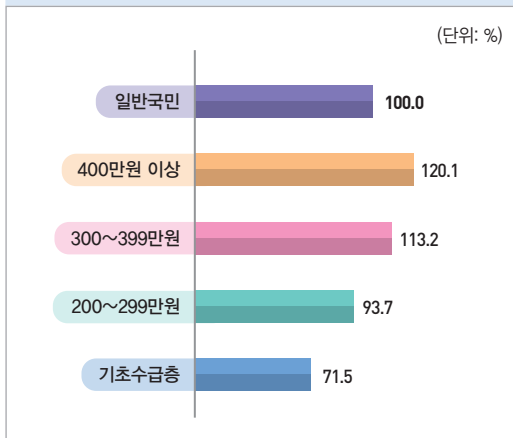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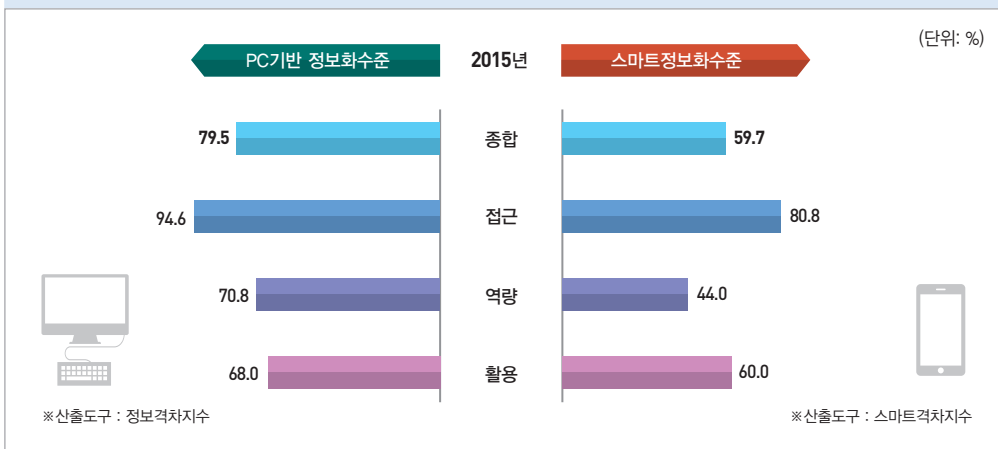
그림 66 • 거주지규모별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



나. 정보격차지수와 스마트격차지수 비교

-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통합적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4대계층의 스마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59.7% 수준으로, PC 기반 유선 인터넷의 기본적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수준(79.5%)에 비해 크게 저조
- 일반국민 대비 스마트정보화수준은 접근 부문 80.8%, 역량 부문 44.0%, 활용 부문 60.0%로 모든 부문에서 PC 기반 정보화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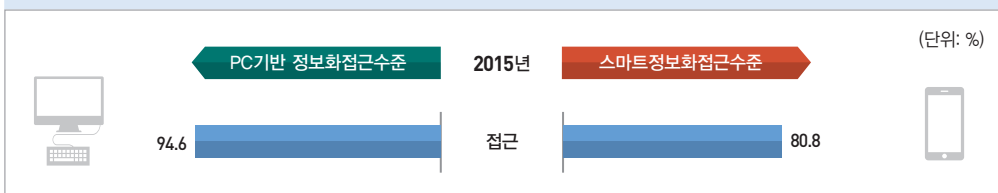
그림 67 • PC 기반 정보화수준과 스마트정보화수준



※ 수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국민 대비 4대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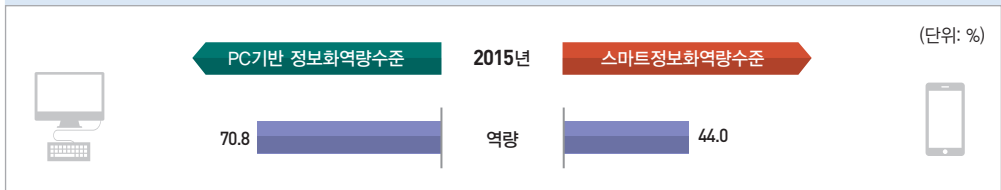
- (접근 부문) '정보이용시설 접근 용이성 등 PC(유선 인터넷) 접근가능 정도' 중심의 유선 PC 기반 정보접근 수준은 일반국민의 94.6%로 높으나,
- '가구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 가능정도' 및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정도' 중심의 스마트정보화접근 수준은 일반국민의 80.8%로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68 • 접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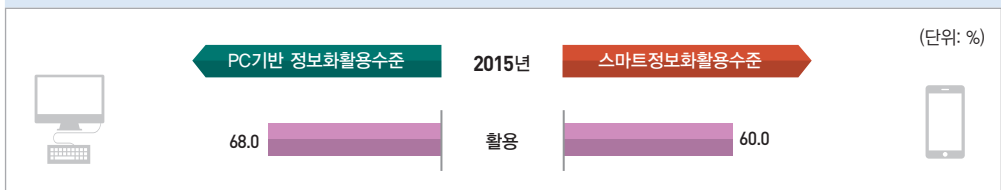
- **(역량 부문)** 'PC 기본 용도별 이용기술(skill) 보유정도' 중심의 유선 PC 기반 정보역량 수준(70.8%)에 비해,
 - PC와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기본 및 심화 용도별 이용능력 보유여부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스마트정보화역량 수준(44.0%)은 크게 취약

그림 69 • 역량 부문



- **(활용 부문)**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 및 기본 용도별 이용정도' 중심의 유선 PC 기반 정보활용 수준(68.0%)에 비해,
 - 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통합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정보생산 및 공유 정도', 인적 관계의 유지 및 확장을 의미하는 '네트워킹 정도', '사회·경제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스마트정보화활용 수준(60.0%)은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70 • 활용 부문



제4편 계층별 분석

.....



PART 1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제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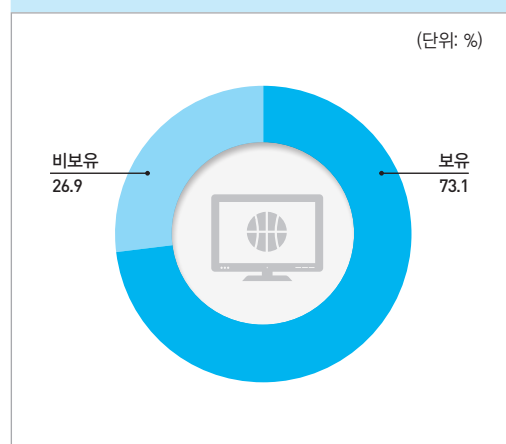
계층별 분석

1. 장애인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 2015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3.1%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¹ 보다 4.0%p 낮게 나타남
 - 2014년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74.0%) 대비 0.9%p 감소
- 컴퓨터 보유율은 일반인과 공동거주 집단(76.8%)에서 높고, 고소득일수록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군지역 거주층(59.6%), 장애인 단독거주 집단(59.2%)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71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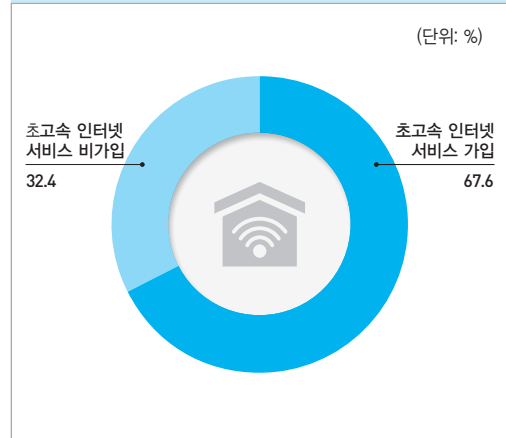


1 자료출처 :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 2015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67.6%로, 2014년(67.0%)보다 0.6%p 높은 수준임
- 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일반인 공동 거주 집단(72.8%),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남
 - 반면, 군지역 거주층(54.0%), 장애인 단독 거주 집단(47.7%)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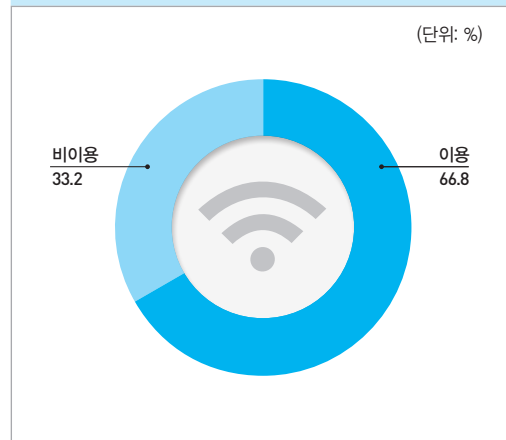
그림 72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3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8%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² 보다 18.3%p 낮은 수준임
 - 2014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59.1%) 대비 7.7%p 증가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71.1%), 30대(90.7%), 전문관리/사무직(94.6%)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73 • 인터넷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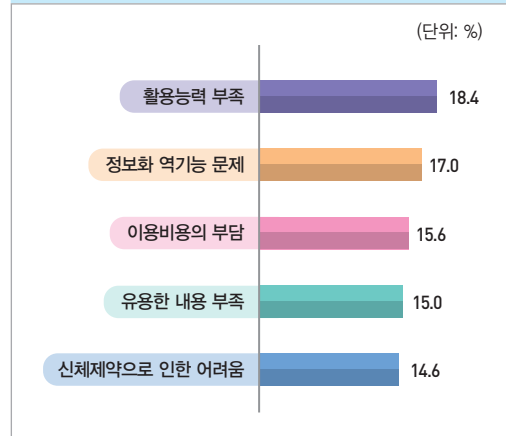


2 자료출처 :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4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18.4%)을 꼽음
 - 그 다음으로 '정보화 역기능 문제'(17.0%), '이용비용의 부담'(15.6%), '유용한 내용 부족'(15.0%), '신체제약으로 인한 어려움'(14.6%) 등의 순임
- '활용능력 부족'은 50대 이상(20.5%),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2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은 시각장애(18.4%), 대졸 이상(2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74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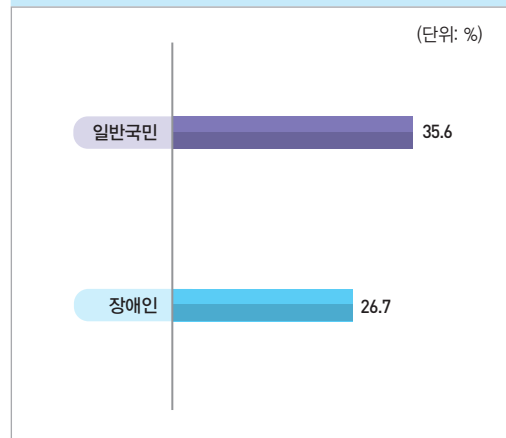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5 정보생산 활동률

* 정보생산 활동률은 본인이 직접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26.7%로 일반국민(35.6%)보다 8.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생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5.0% 수준
- 장애인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46.7%), 직업별로는 학생(54.3%)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75 • 정보생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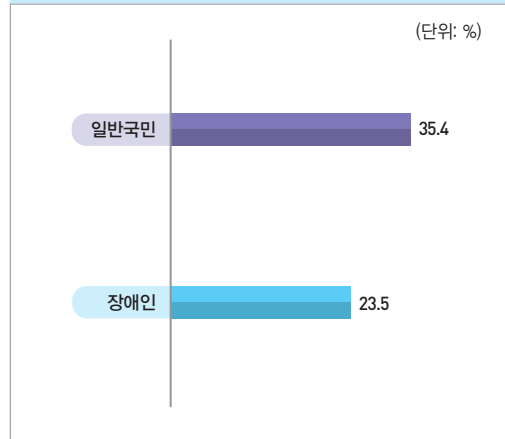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6 정보공유 활동률

* 정보공유 활동률은 타인이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공유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23.5%로 일반국민(35.4%)보다 11.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공유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6.4% 수준
- 장애인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43.3%), 직업별로는 학생(45.7%)에서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76 • 정보공유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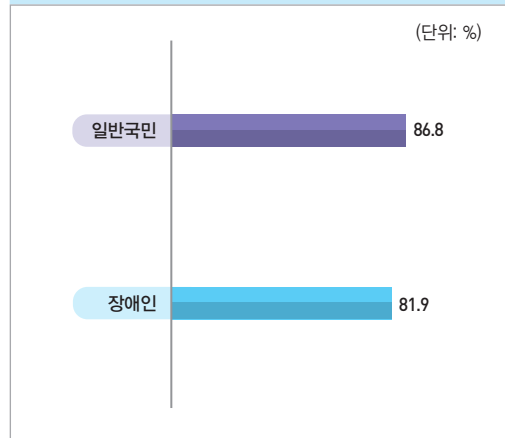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 일반 블로그 서비스(다음 블로그·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싸이월드 등)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트위터·미투데이·요즘·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디지털 참여 및 관계형성의 핵심 용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81.9%로, 일반국민(86.8%)에 비해 4.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94.4% 수준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94.4%),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94.3%), 학생(94.3%)에서 높고, 고학력 및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77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8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터넷 카페·동호회·모임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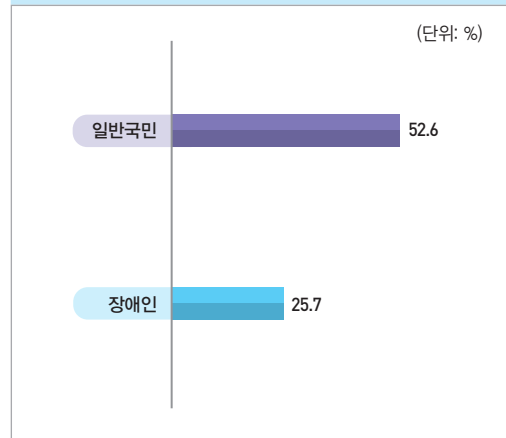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25.7%로 일반국민(52.6%)보다 26.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48.9% 수준

- 장애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고학력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 이하(52.2%)에서 높고, 전문관리/사무직(62.4%), 대졸이상(47.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78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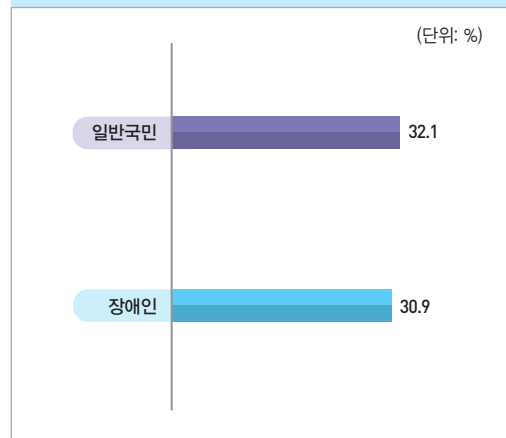
- 표현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 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30.9%로 일반국민(32.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96.3% 수준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연령별로 30대(44.8%)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53.9%), 학생(51.4%)에서,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79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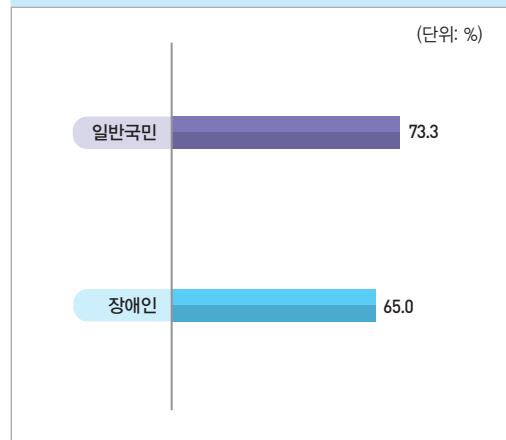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0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은 65.0%로 일반국민(73.3%)에 비해 8.3%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네트워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네트워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8.7% 수준
- 장애인의 네트워크 형성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81.1%),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81.6%)과 학생(8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그림 80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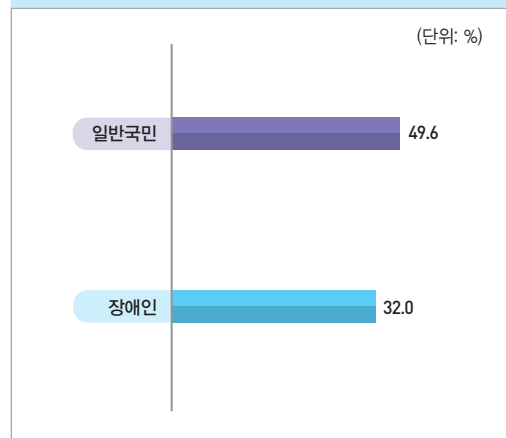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1 온라인 경제활동률

* 온라인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예) '취업(부업)/이직(승진)/창업', '소득창출(소득유지/증대)'을 위한 정보검색/습득,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32.0%로 일반국민(49.6%)에 비해 17.6%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4.5% 수준
- 장애인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연령별로 30대(48.0%),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59.6%)에서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81 • 온라인 경제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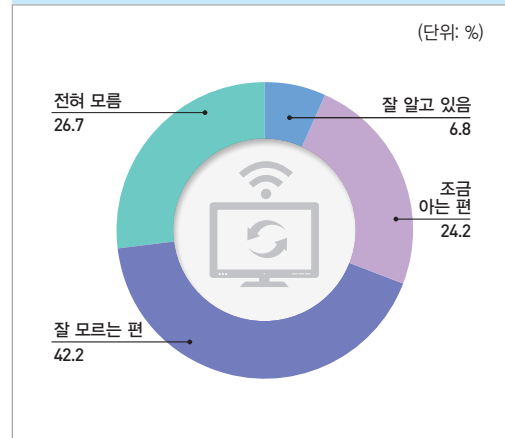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2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1.4%(잘 알고 있음 : 2.2% + 조금 아는 편 : 29.2%)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30대(47.8%), 농어민(42.4%)에서,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82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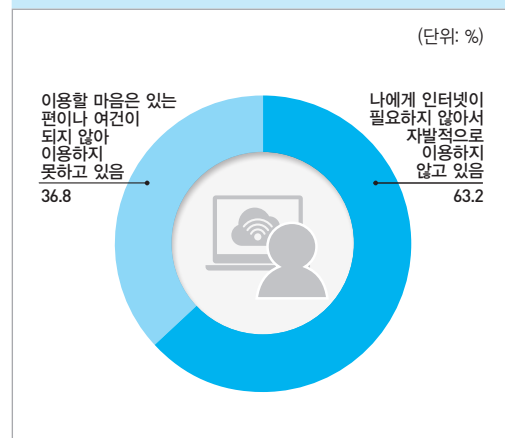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3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63.2%,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36.8%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연령별로 40대(65.3%), 50대 이상(64.1%)에서, 도시지역(64.1%),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7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일수록 낮았음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연령별로 20대 이하(61.5%), 30대(60.9%),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44.9%),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75.0%)에서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83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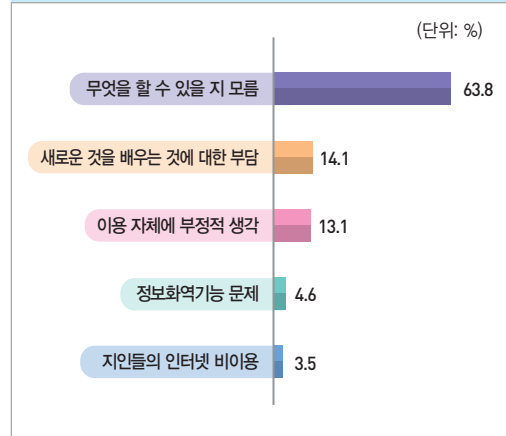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4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63.8%)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14.1%),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13.1%), '정보화 역기능 문제'(4.6%),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3.5%)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여성(68.4%), 월소득 100만원 미만(6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84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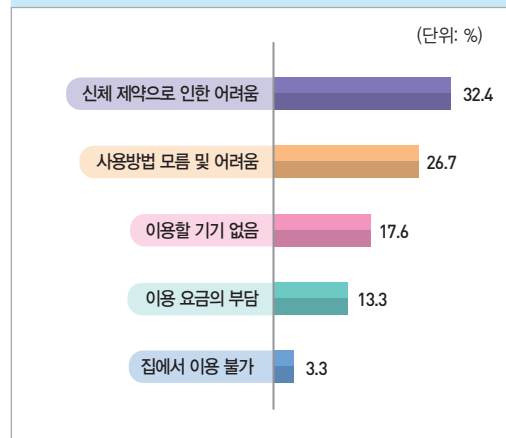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5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26.7%), '이용할 기기 없음'(17.6%) 등의 순임
-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성(35.0%), 시각장애(5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일수록 높았음

그림 85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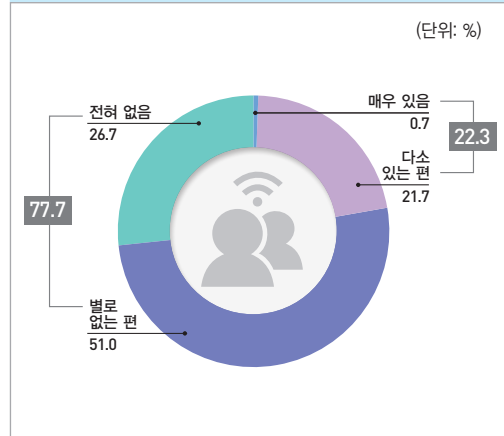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6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77.7%로 '있다'(2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30대(47.8%), 고졸(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86 • 인터넷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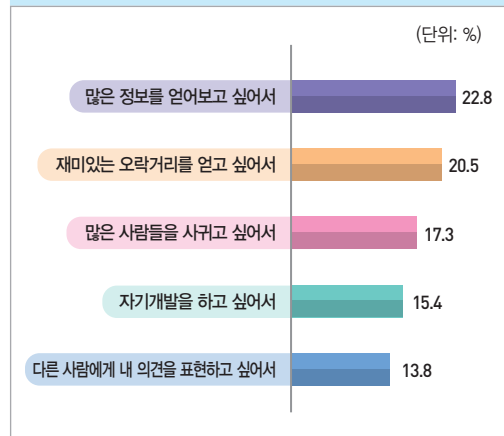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7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어보고 싶어서'(22.8%),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20.5%),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17.3%),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15.4%),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13.8%) 순임

그림 87 • 인터넷 이용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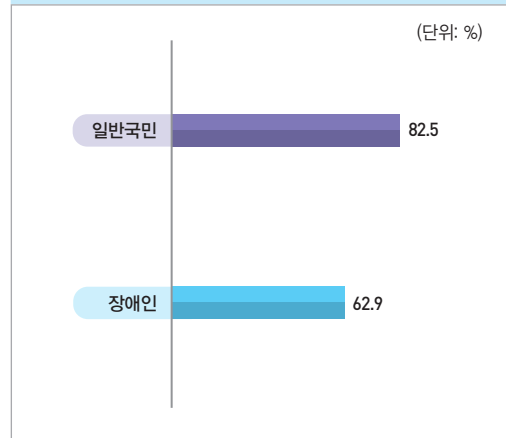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8 스마트폰 보유 현황

-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2.9%로 일반국민 (82.5%)에 비해 19.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6.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여성보다 남성 (66.7%)에서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87.4%), 30대(86.6%),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94.0%)에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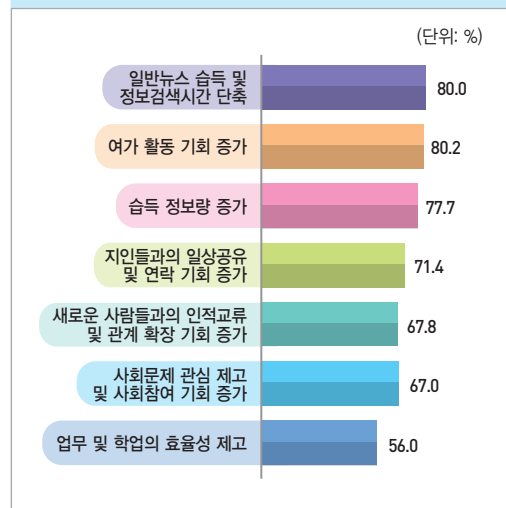
그림 88 • 스마트폰 보유율



19 스마트폰 이용 효과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여가활동 기회 증가', '습득 정보량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 참여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장애인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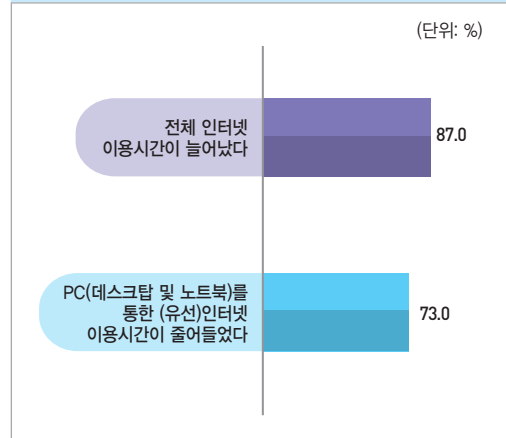
그림 89 • 스마트폰 이용 효과



20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87.0%,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73.0%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대졸 이상(92.2%), 전문관리/사무직(92.1%), 생산관련직(91.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 농어민(83.7%), 군지역(81.7%)에서 높았음

그림 90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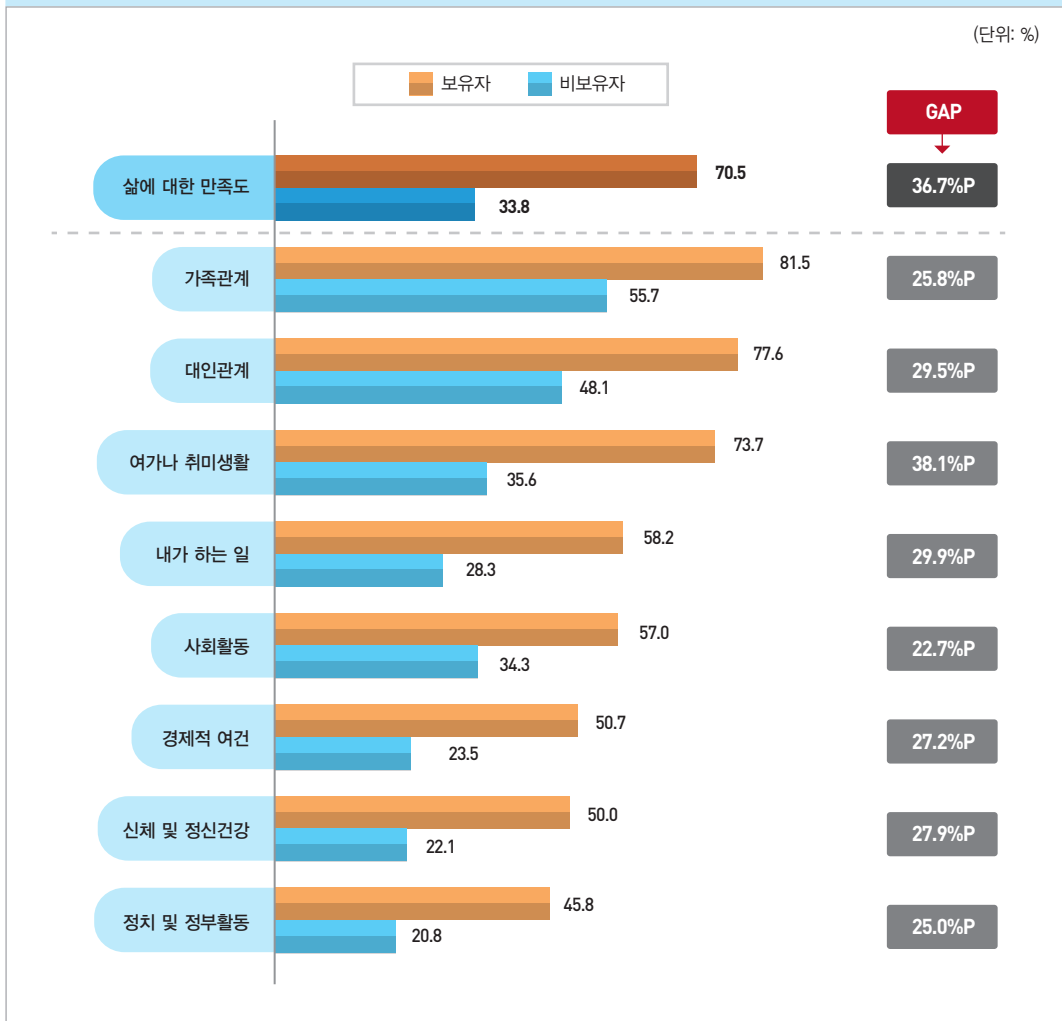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21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0.5%로 비보유자(33.8%)에 비해 36.7%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여가나 취미생활’(38.1%p)과 ‘내가 하는 일’(29.9%p), ‘신체 및 정신건강’(27.9%p)에 있어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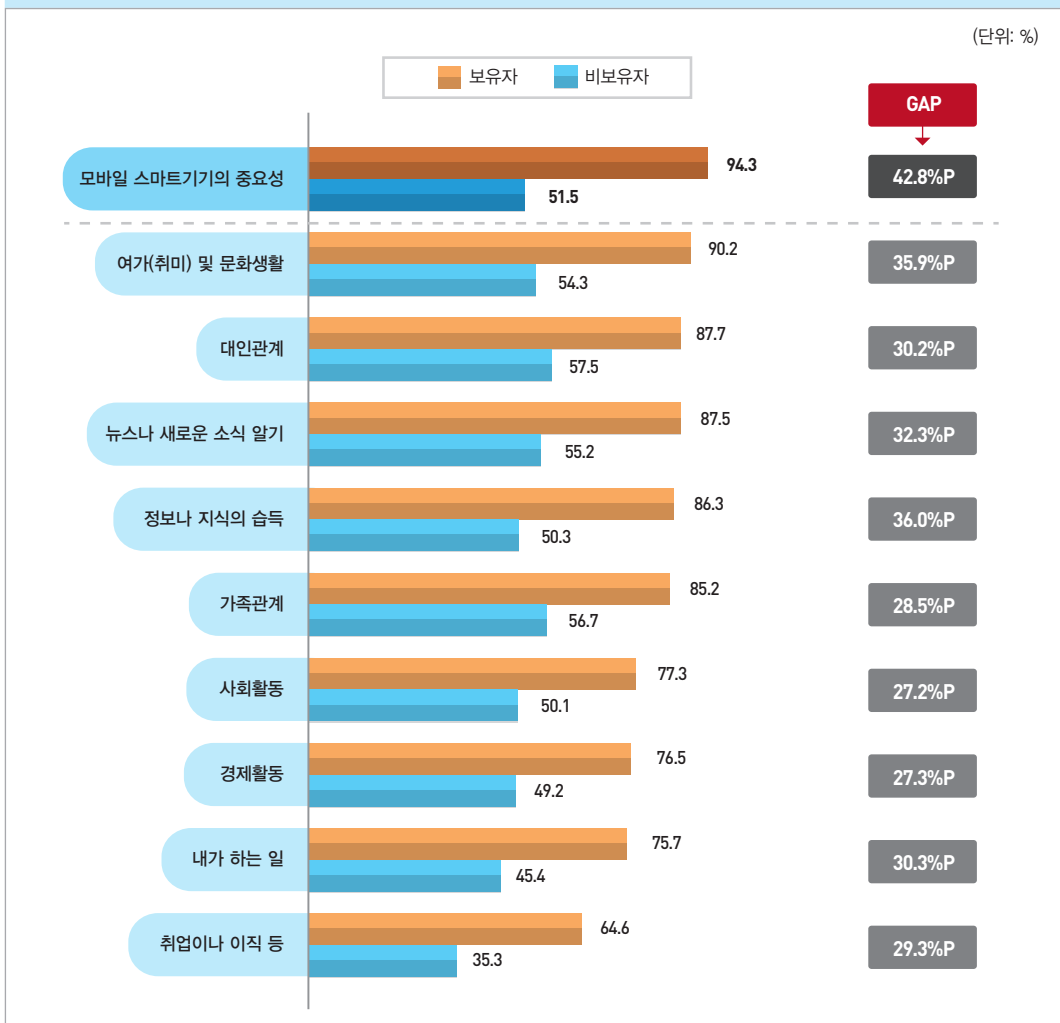
그림 91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2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나 지식의 습득’(36.0%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35.9%p),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32.3%p), ‘내가 하는 일’(30.3%p), ‘대인관계’(30.2%p), ‘취업이나 이직 등’(29.3%p), ‘가족관계’(28.5%p), ‘경제활동’(27.3%p)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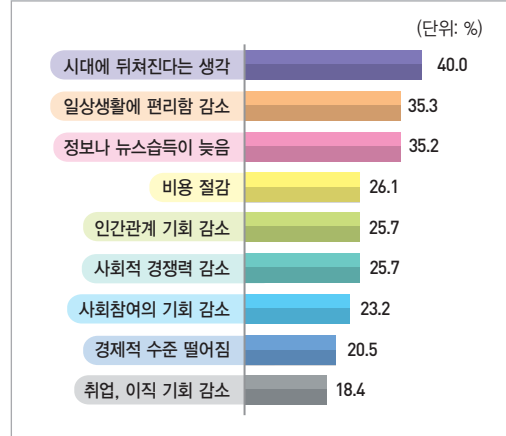
그림 92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23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장애인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40.0%),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35.3%),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35.2%), '비용 절감'(26.1%), '인간관계 기회 감소'(25.7%), '사회적 경쟁력 감소'(25.7%),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23.2%), '경제적 수준 떨어짐'(20.5%), '취업, 이직 기회 감소'(18.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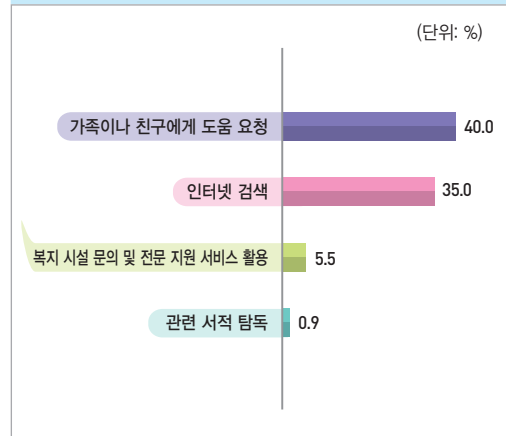
그림 93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24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40.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35.0%),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5.5%), '관련 서적 탐독'(0.9%)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여성(42.5%), 50대 이상(42.9%), 주부(46.1%),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은 20대 이하(52.4%), 30대(24.5%), 전문관리/사무직(57.7%), 고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94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장애인



장노년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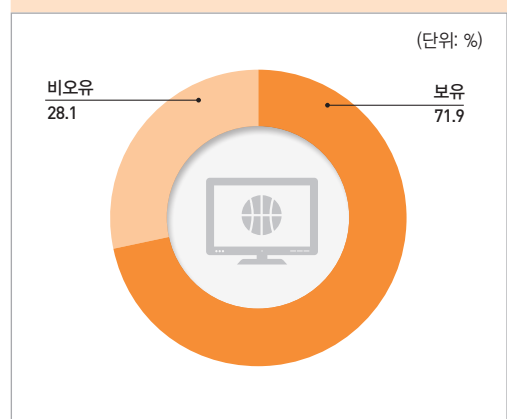
저소득

2. 저소득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 2015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1.9%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¹ 보다 5.2%p 낮게 나타남
 - 2014년 저소득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72.3%) 대비 0.4%p 감소
- 컴퓨터 보유율은 군지역 거주층(65.5%)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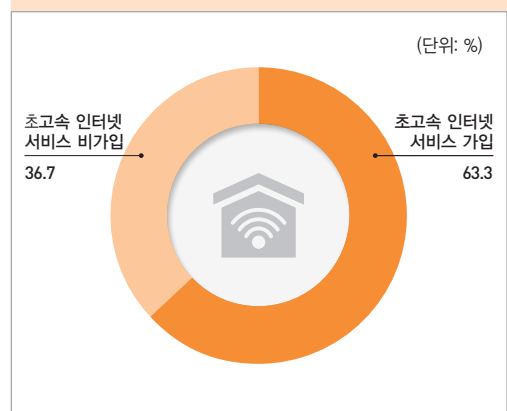
그림 95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 2015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63.3%로, 2014년(60.0%)보다 3.3%p 높은 수준임
-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군지역 거주층(56.9%)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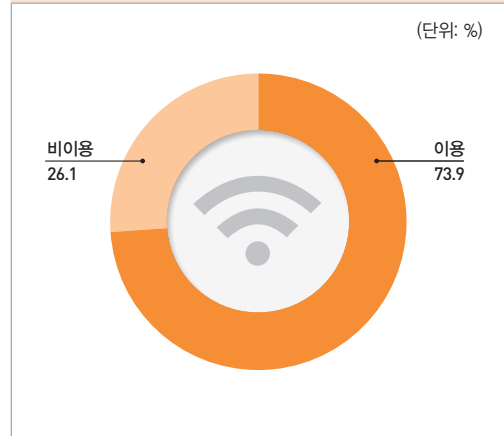
그림 96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3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3.9%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² 보다 11.2%p 낮은 수준임
 - 2014년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64.2%) 대비 9.7%p 증가
-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76.1%), 학생(100%), 전문관리/사무직(96.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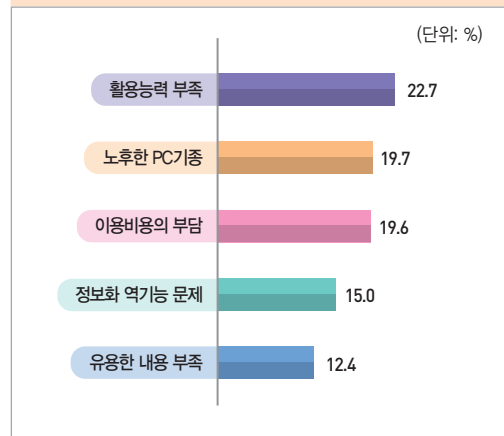
그림 97 • 인터넷 이용 현황



4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저소득층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22.7%)을 꼽음
 - 그 다음으로 '노후한 PC 기종'(19.7%), '이용비용의 부담'(19.6%), '정보화 역기능 문제'(15.0%), '유용한 내용 부족'(12.4%) 등의 순임
- '활용능력 부족'은 50대 이상(30.9%), 농어민(40.9%)에서, '노후한 PC 기종'은 19세 이하(24.8%), 학생(2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98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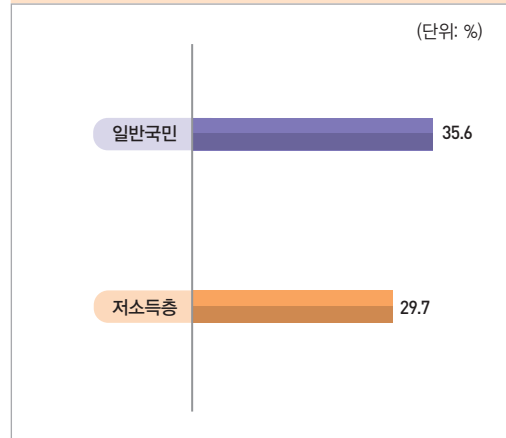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5 정보생산 활동률

* 정보생산 활동률은 본인이 직접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저소득층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29.7%로 일반국민(35.6%)보다 5.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생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3.4% 수준
- 저소득층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55.1%),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60.0%)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99 • 정보생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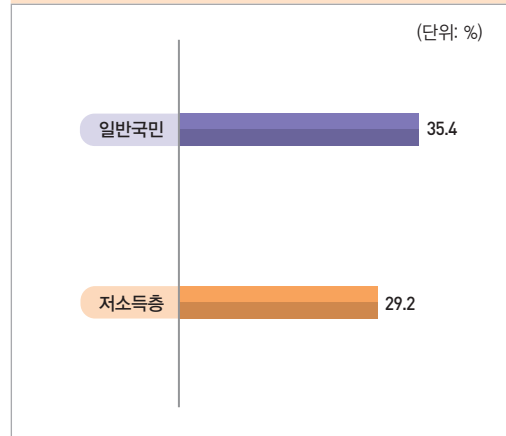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6 정보공유 활동률

* 정보공유 활동률은 타인이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공유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저소득층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29.2%로 일반국민(35.4%)보다 6.2%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공유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2.5% 수준
- 저소득층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56.5%), 직업별로는 학생(43.3%), 전문관리/사무직(40.0%)에서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00 • 정보공유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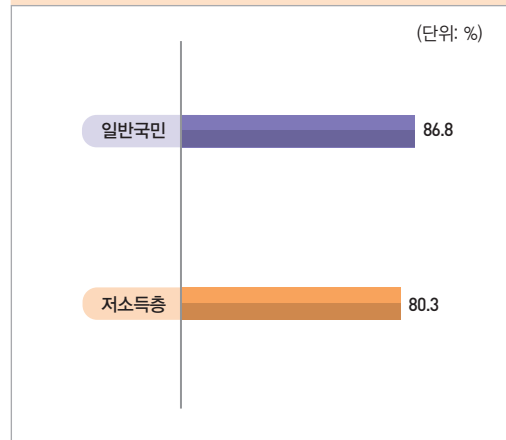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 일반 블로그 서비스(다음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티스토리 · 싸이월드 등)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트위터 · 미투데이 · 요즘 · 페이스북 · 카카오톡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디지털 참여 및 관계형성의 핵심 용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80.3%로, 일반국민(86.8%)에 비해 6.5%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92.5% 수준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20대(92.1%), 30대(91.7%),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92.0%)에서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9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01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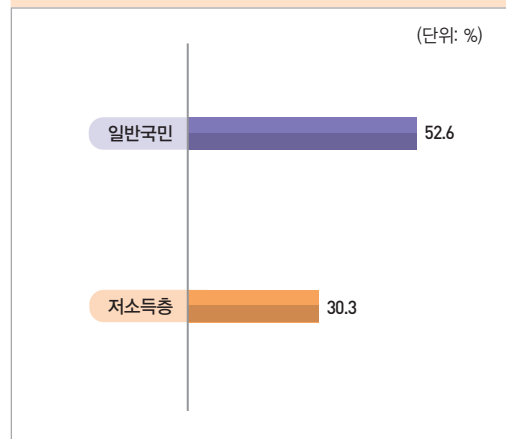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8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터넷 카페 · 동호회 · 모임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저소득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30.3%로 일반국민(52.6%)보다 22.3%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57.6% 수준임
- 저소득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고학력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45.8%), 19세 이하(44.6%)에서 높고, 학생(45.2%), 대졸이상(4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02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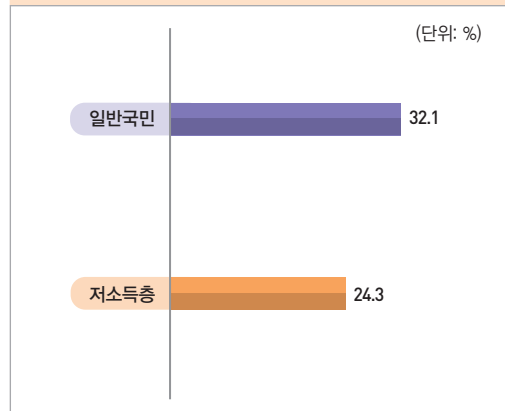
-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 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저소득층의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률'은 24.3%로 일반국민(32.1%)보다 7.8%p 낮게 나타나, 저소득층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지라도 일반국민에 비해 사회적 이슈나 정부정책 관련 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 활동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5.7% 수준

- 저소득층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41.2%)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56.0%)에서,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03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0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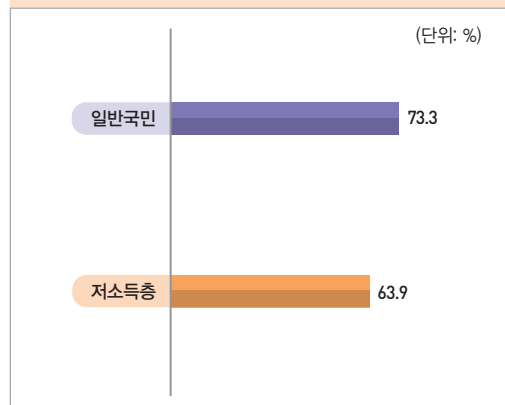
-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은 63.9%로 일반국민(73.3%)에 비해 9.4%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네트워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네트워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7.2% 수준

- 저소득층의 네트워크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76.9%), 30대(73.6%), 19세 이하(73.2%)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84.0%)과 학생(7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04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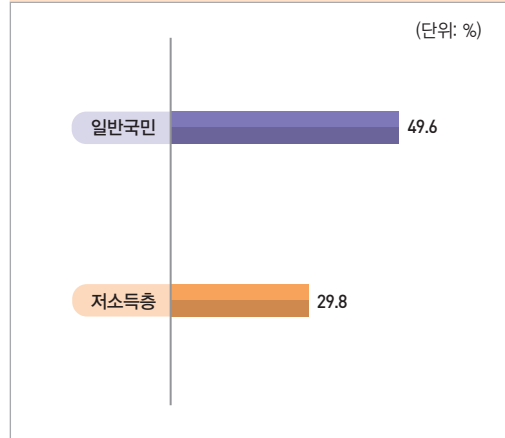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1 온라인 경제활동률

* 온라인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예) '취업(부업)/이직(승진)/창업', '소득창출(소득유지/증대)을 위한 정보검색/습득,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저소득층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29.8%로 일반국민(49.6%)에 비해 19.8%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경제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0.1% 수준
- 저소득층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55.6%), 30대(52.1%)에서,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68.0%)에서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5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05 ● 온라인 경제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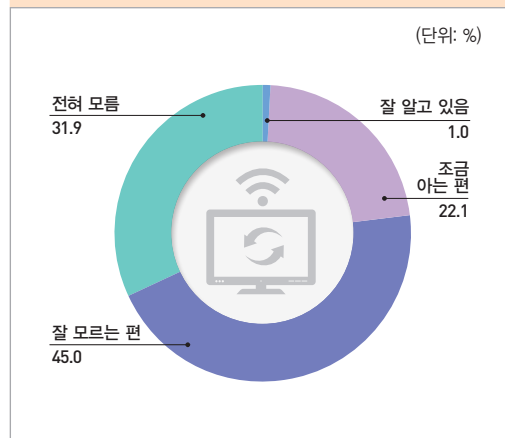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2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저소득층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3.1%(잘 알고 있음 : 1.0% + 조금 아는 편 : 22.1%)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군지역(38.1%)에서,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06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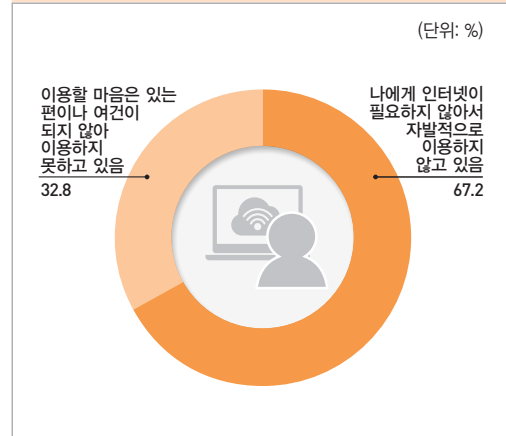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3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저소득층 집단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67.2%,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32.8%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도시지역(6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07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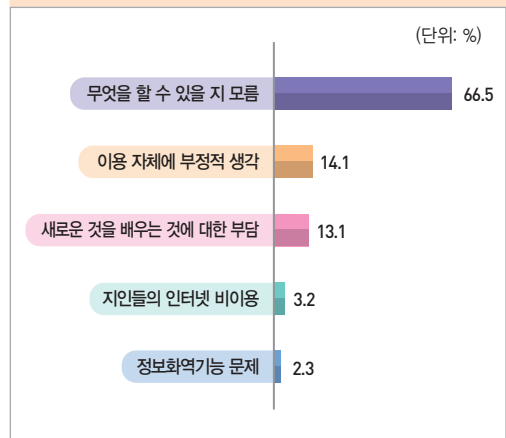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4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저소득층 집단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66.5%)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14.1%),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13.1%),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3.2%), '정보화역기능 문제'(2.3%)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여성(69.4%), 도시지역(6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8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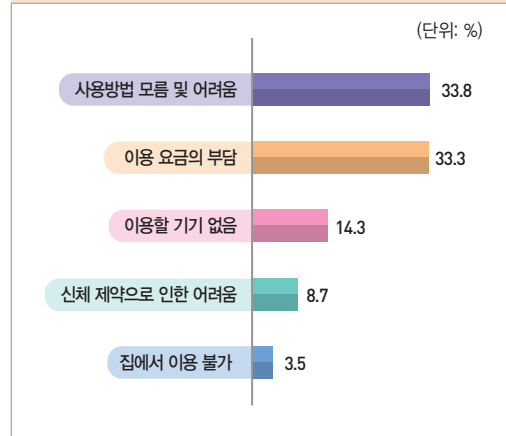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5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저소득층 집단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33.8%)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부담'(33.3%), '이용할 기기 없음'(14.3%) 등의 순임
-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은 여성(35.1%), 도시지역(3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9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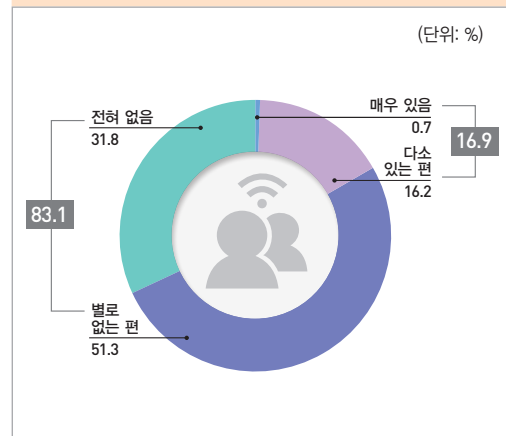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6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 저소득층 집단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83.1%로 '있다' (16.9%)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군지역(2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10 ● 인터넷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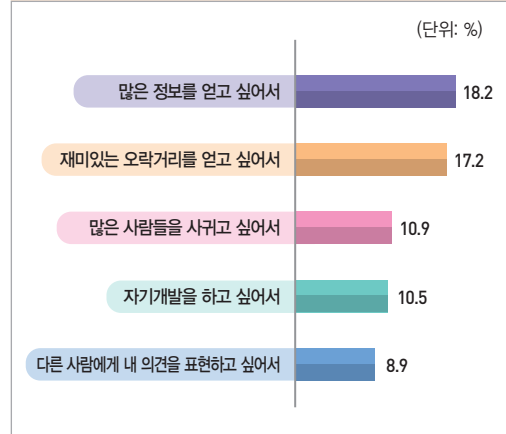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7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18.2%),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17.2%),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10.9%),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10.5%),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8.9%) 순임

그림 111 • 인터넷 이용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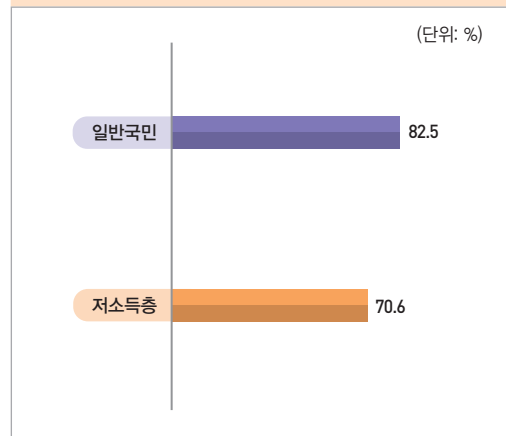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8 스마트폰 보유 현황

-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0.6%로 일반국민(82.5%)에 비해 11.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5.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여성보다 남성(72.4%)에서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98.1%),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96.2%)에서 높은 편임

그림 112 • 스마트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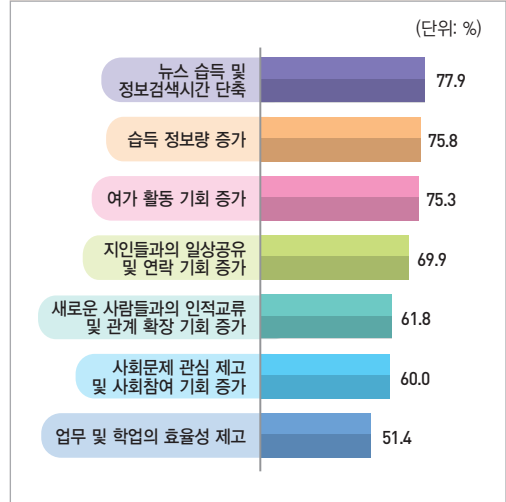


19 스마트폰 이용 효과

●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여가활동 기회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저소득층 실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3 ● 스마트폰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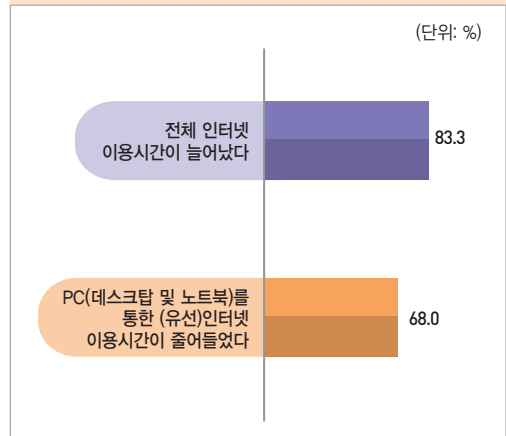


20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83.3%,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68.0%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와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 모두 20대, 학생, 농어민, 고학력일수록 높았음

그림 114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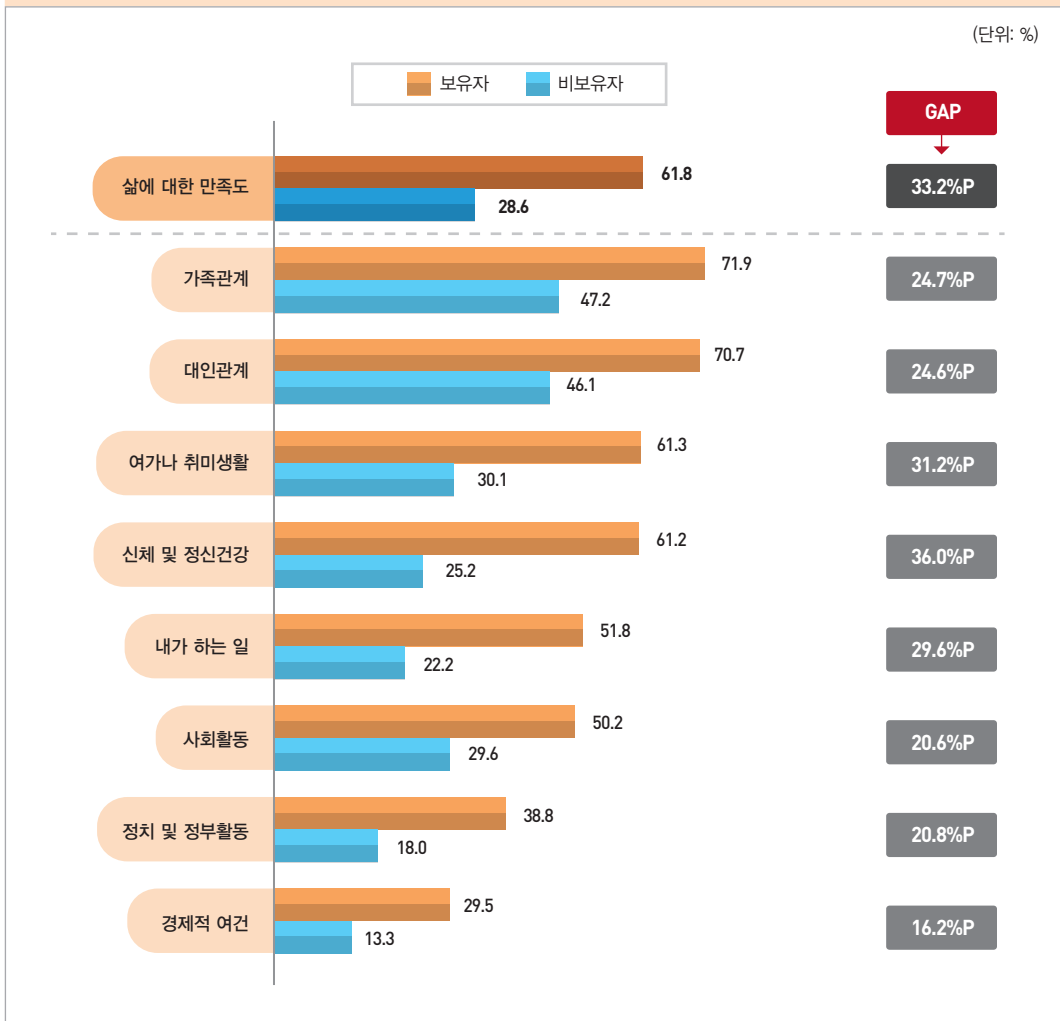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21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61.8%로 비보유자(28.6%)에 비해 33.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신체 및 정신건강’(36.0%p)과 ‘여가나 취미생활’(31.2%p), ‘내가 하는 일’(29.6%p)에 대한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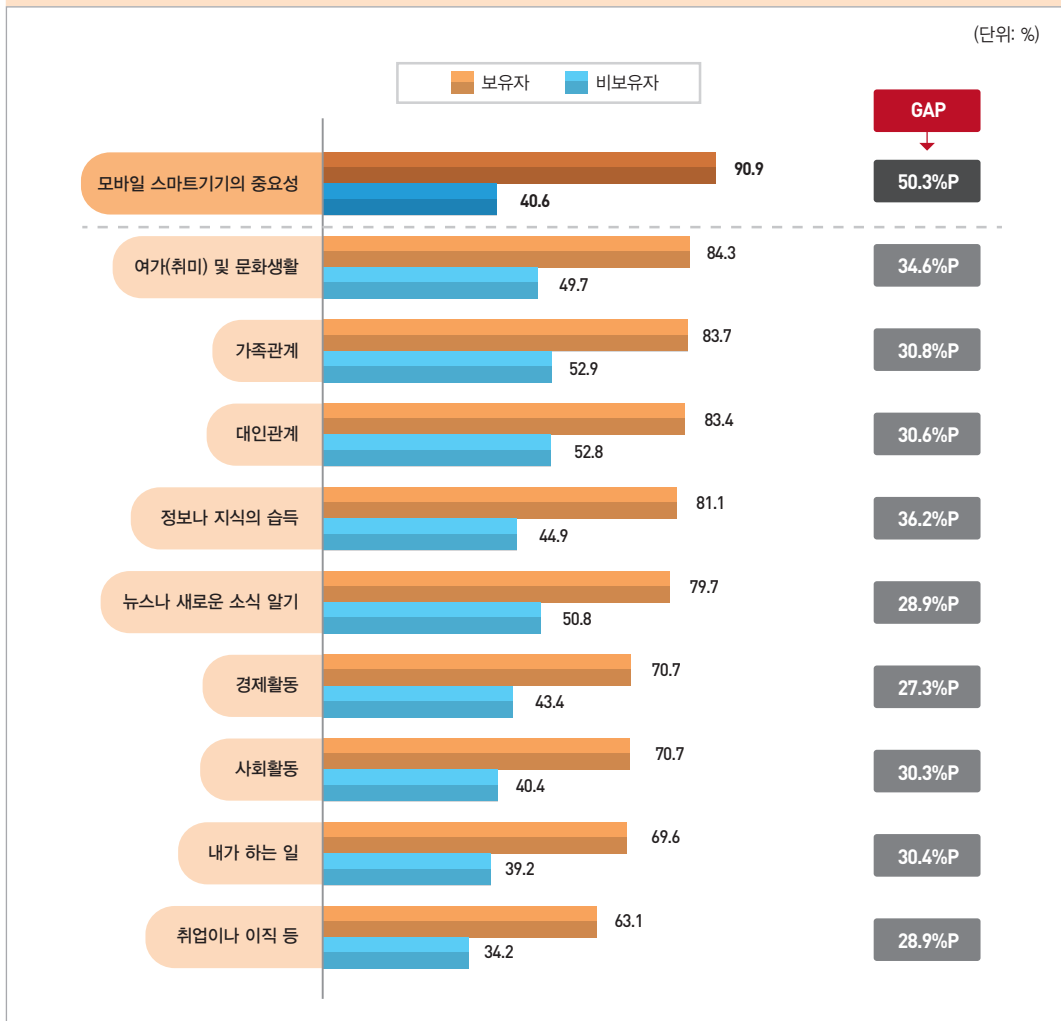
그림 115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2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나 지식의 습득'(36.2%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34.6%p), '가족관계'(30.8%p), '대인관계'(30.6%p), '내가 하는 일'(30.4%p), '사회활동'(30.3%p),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28.9%p), '취업이나 이직 등'(28.9%p)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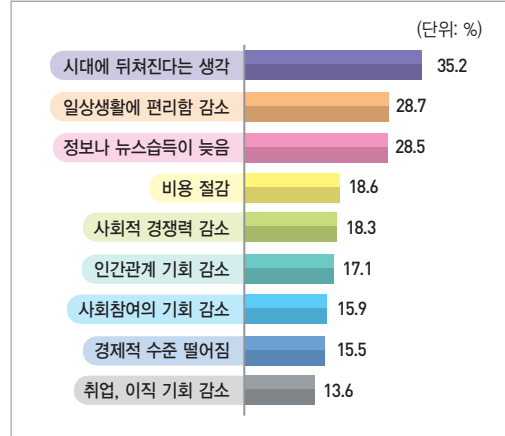
그림 116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23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저소득층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35.2%),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28.7%),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28.5%), '비용 절감'(18.6%), '사회적 경쟁력 감소'(18.3%), '인간관계 기회 감소'(17.1%),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15.9%), '경제적 수준 떨어짐'(15.5%), '취업, 이직 기회 감소'(13.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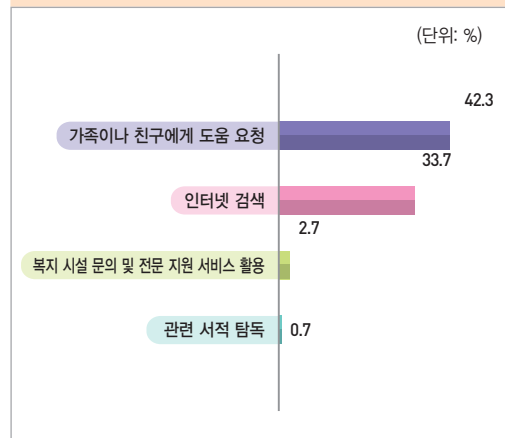
그림 117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24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42.3%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33.7%),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2.7%), '관련 서적 탐독'(0.7%)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여성(45.8%), 40대(54.3%), 주부(49.4%),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은 20대(68.1%), 전문관리/사무직(61.5%), 고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18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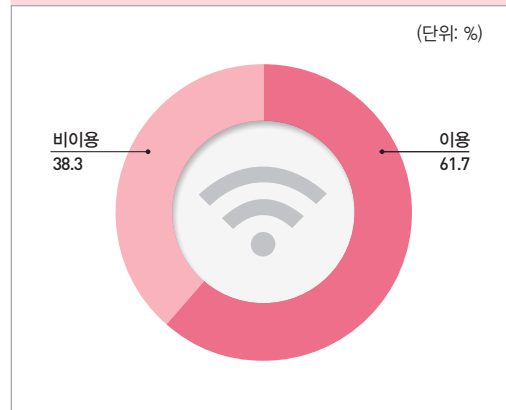
장노년

3. 장노년

1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장노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61.7%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¹ 보다 23.4%p 낮은 수준임
 - 2014년 장노년의 인터넷 이용률(54.1%) 대비 7.6%p 증가
- 장노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71.9%), 50대(90.8%), 전문관리/사무직(99.1%), 도시지역(6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19 • 인터넷 이용 현황



2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장노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30.9%)을 꼽음
 - 그 다음으로 '유용한 내용 부족'(20.2%), '정보화 역기능 문제'(19.2%), '노후한 PC 기종'(11.8%), '이용비용의 부담'(9.1%) 등의 순임
- '활용능력 부족'은 50대 이상(3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노후한 PC 기종'이라는 응답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2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20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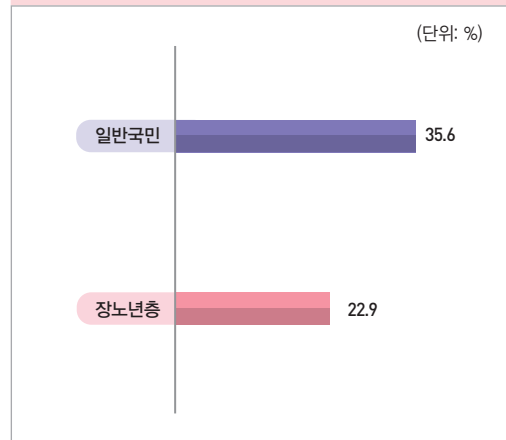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3 정보생산 활동률

* 정보생산 활동률은 본인이 직접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노년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22.9%로 일반국민(35.6%)보다 12.7%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생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4.3% 수준
- 장노년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직업별로 전문관리/사무직(39.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21 • 정보생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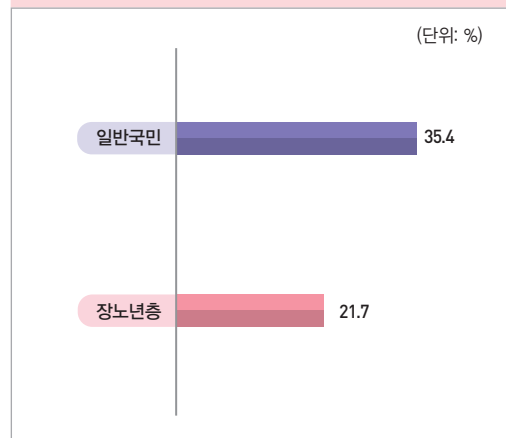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4 정보공유 활동률

* 정보공유 활동률은 타인이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공유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노년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21.7%로 일반국민(35.4%)보다 13.7%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공유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1.3% 수준
- 장노년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전문관리/사무직(4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 및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수준임

그림 122 • 정보공유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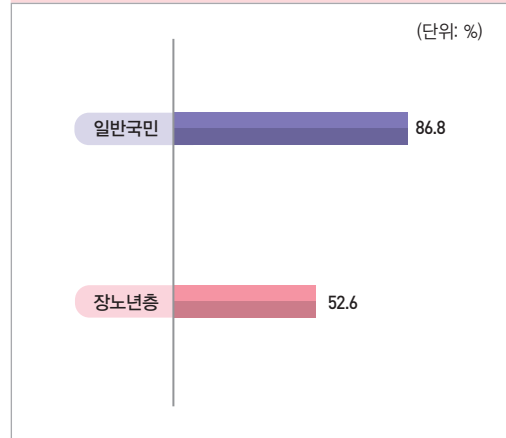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 일반 블로그 서비스(다음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티스토리 · 싸이월드 등)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트위터 · 미투데이 · 요즘 · 페이스북 · 카카오토리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디지털 참여 및 관계형성의 핵심 용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52.6%로, 일반국민(86.8%)에 비해 34.2%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0.6% 수준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50대(56.0%)에서, 직업별로 전문관리/사무직(66.5%), 도시지역(5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23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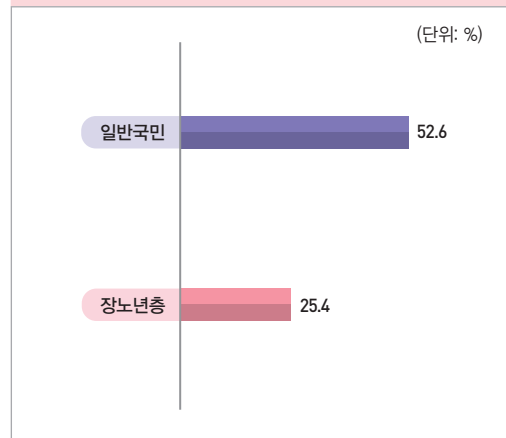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6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터넷 카페 · 동호회 · 모임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노년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25.4%로 일반국민(52.6%)보다 27.2%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48.3% 수준임
- 장노년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43.9%),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24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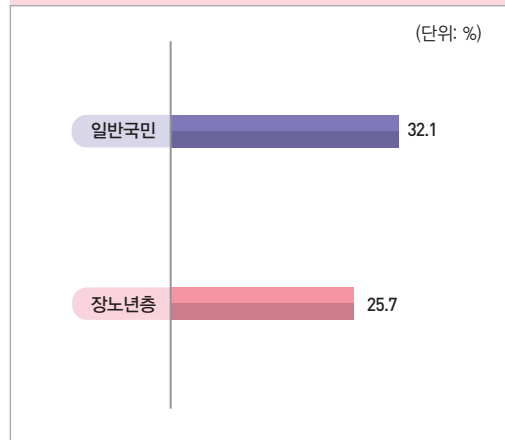
-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 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노년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25.7%로 일반국민(32.1%)보다 6.4%p 낮게 나타나, 장노년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지라도 일반국민에 비해 사회적 이슈나 정부정책 관련 의견 개진을 위한 온라인 활동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0.1% 수준

- 장노년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전문관리/사무직(41.2%), 대졸 이상(36.9%), 도시 지역(26.5%),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3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25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8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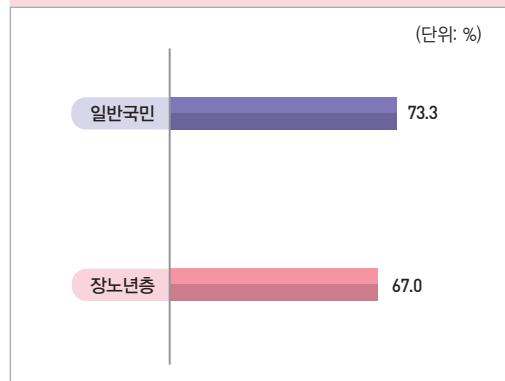
-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은 67.0%로 일반국민(73.3%)에 비해 6.3%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네트워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네트워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91.4% 수준

- 장노년의 네트워크 활동률은 50대(70.0%), 전문관리/사무직(7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26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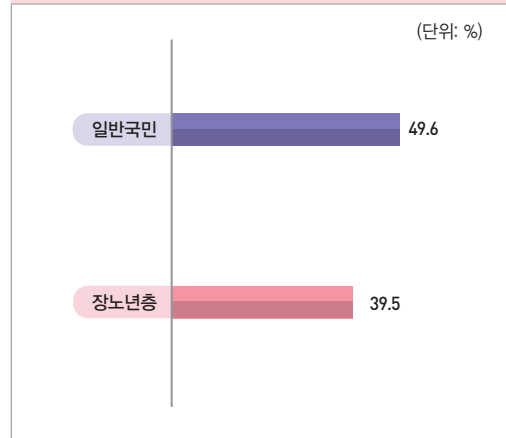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9 온라인 경제활동률

* 온라인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예) '취업(부업)/이직(승진)/창업', '소득창출(소득유지/증대)'을 위한 정보검색/습득,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노년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39.5%로 일반국민(49.6%)에 비해 10.1%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경제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9.6% 수준
- 장노년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남성(43.1%), 50대(42.2%), 전문관리/사무직(5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학력 및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27 • 온라인 경제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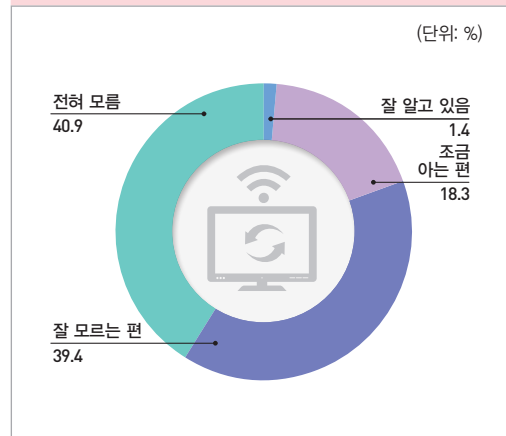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0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장노년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9.7%(잘 알고 있음 : 1.4% + 조금 아는 편 : 18.3%)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성별로는 남성(23.9%), 연령별로는 50대(3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8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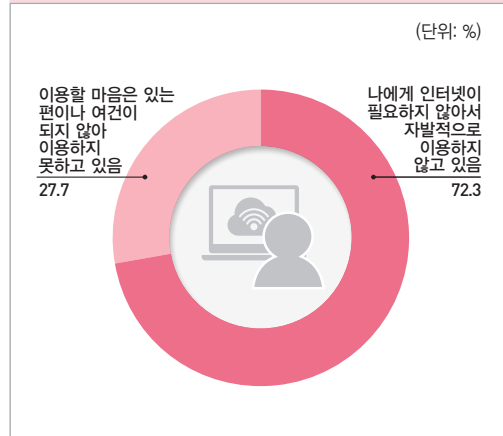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1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장노년 집단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72.3%,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27.7%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60대 이상(73.2%), 전문관리/사무직(100%), 대졸 이상(87.5%), 월소득 300만원 이상(8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29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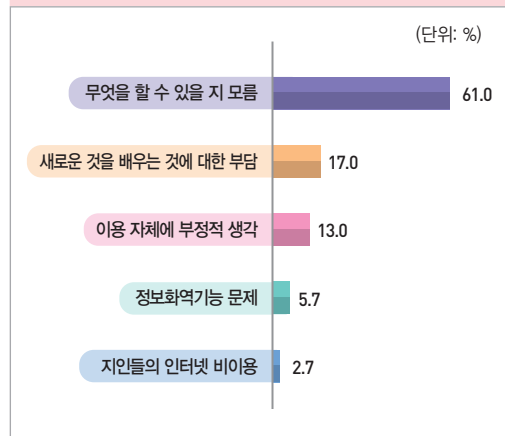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2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장노년 집단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61.0%)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17.0%),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13.0%), '정보화역기능 문제'(5.7%),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2.7%)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6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30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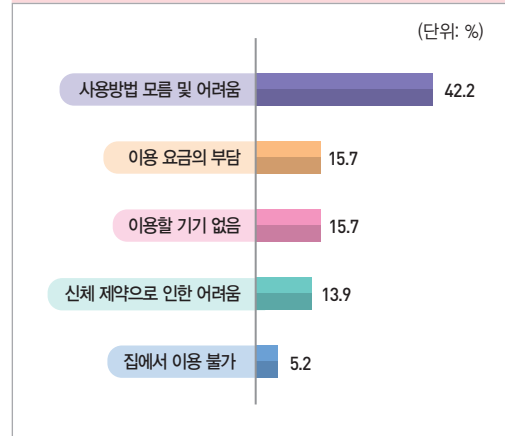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3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장노년 집단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4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부담'(15.7%), '이용할 기기 없음'(15.7%),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13.9%) 등의 순임
-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은 월소득 200만원~299만원(5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은 군지역(2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31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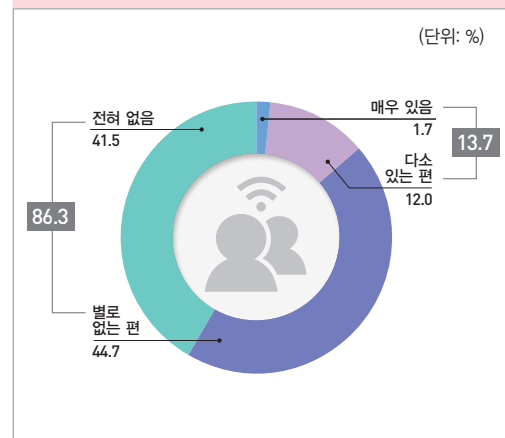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4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 장노년 집단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86.3%로 '있다' (13.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연령별로 50대(26.5%), 대졸 이상(3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2 • 인터넷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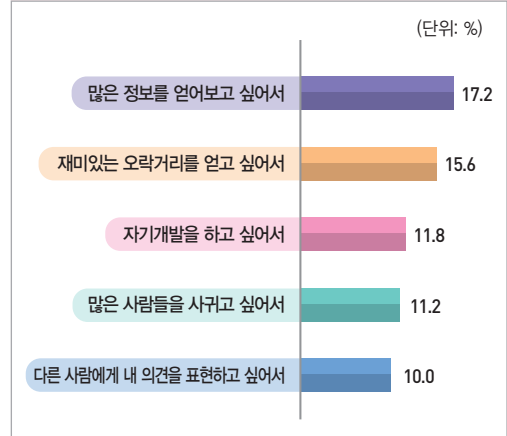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5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17.2%),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15.6%),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11.8%),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11.2%),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10.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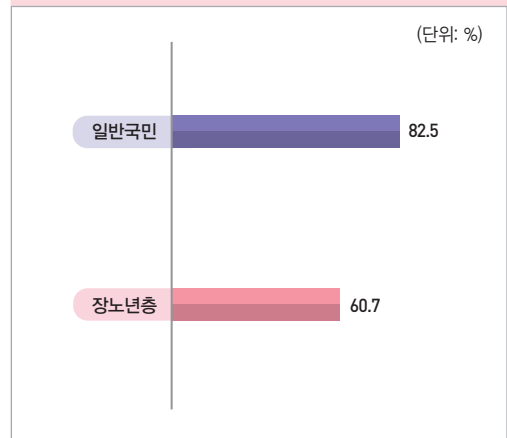
그림 133 • 인터넷 이용 동기



16 스마트폰 보유 현황

- 장노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0.7%로 일반 국민(82.5%)에 비해 21.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장노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여성보다 남성(69.4%)에서 높고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88.5%),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사무직(97.3%)에서 높은 편임

그림 134 • 스마트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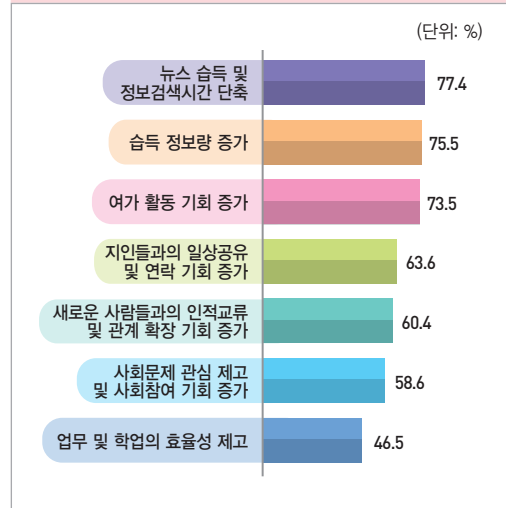


17 스마트폰 이용 효과

● 장노년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여가활동 기회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 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장노년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5 ● 스마트폰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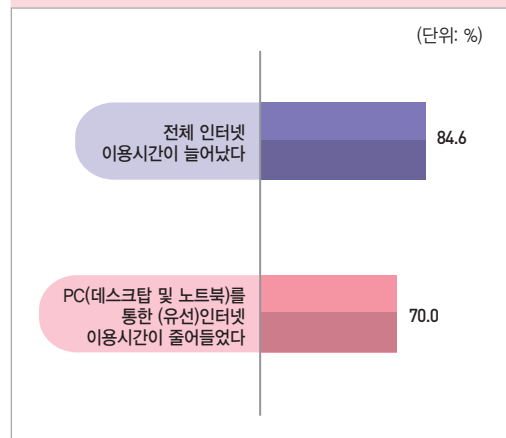
18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장노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84.6%,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70.0%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80% 내외로 나타났으며,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8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36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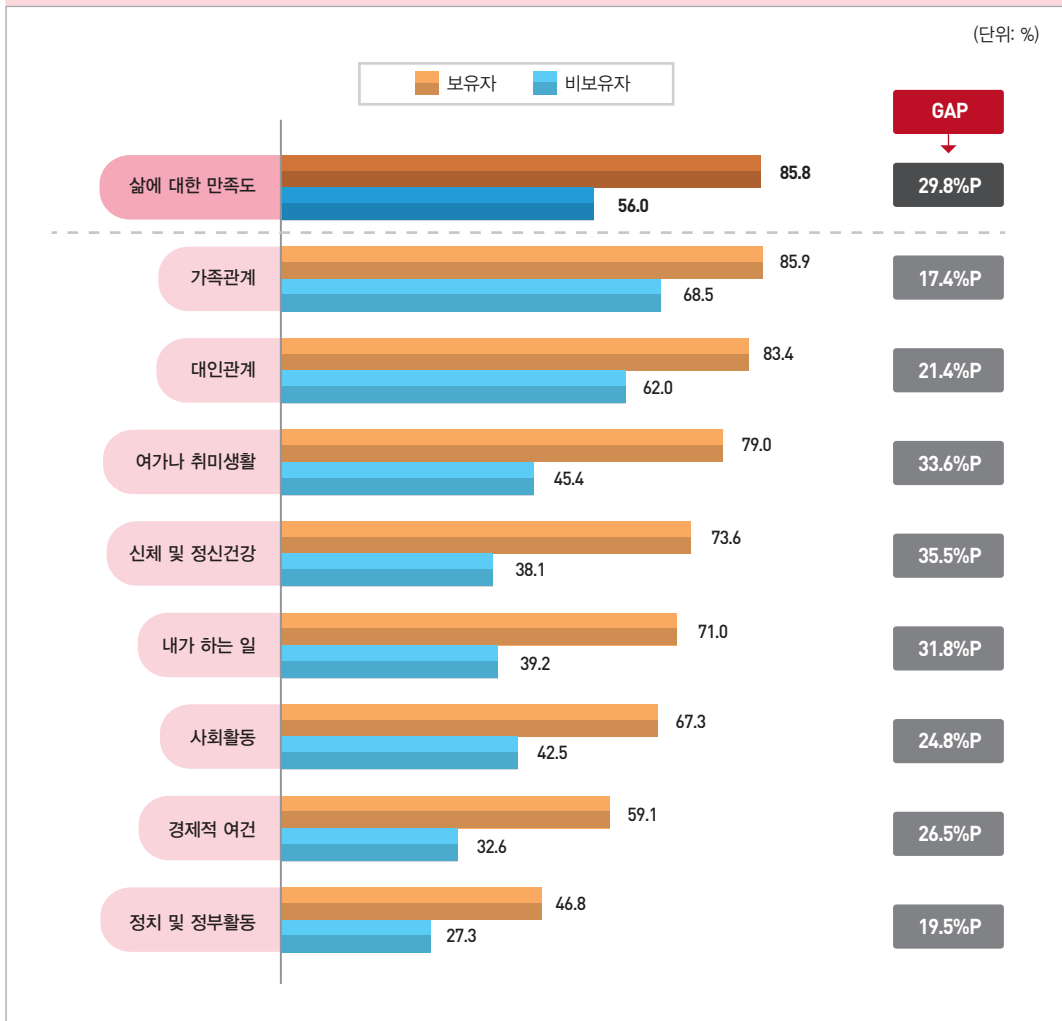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19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85.8%로 비보유자(56.0%)에 비해 29.8%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여가나 취미생활’(33.6%p)과 ‘신체 및 정신건강’(35.5%p), ‘내가 하는 일’(31.8%)에 대한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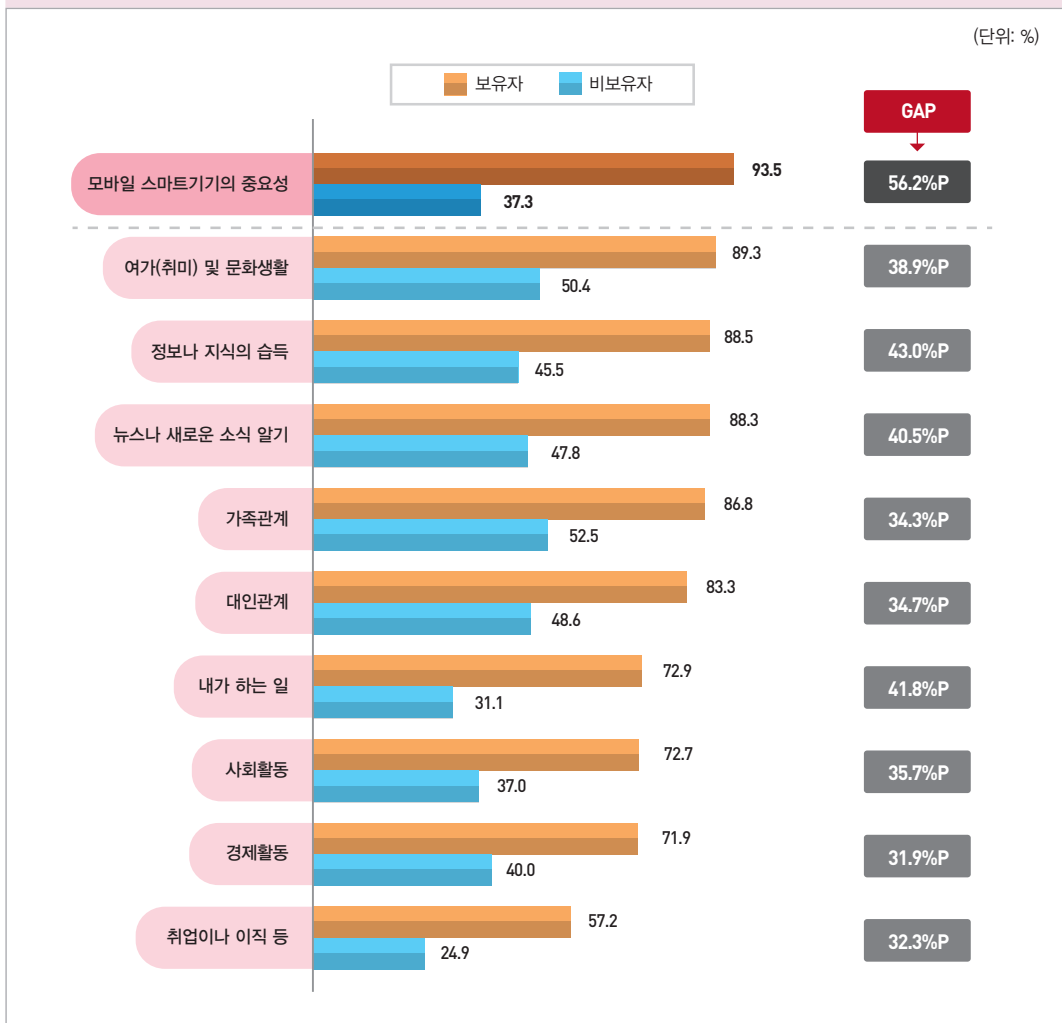
그림 137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0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나 지식의 습득’(43.0%p), ‘내가 하는 일’(41.8%p),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40.5%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38.9%p), ‘사회활동’(35.7%p), ‘대인관계’(34.7%p), ‘가족관계’(34.3%p), ‘취업이나 이직 등’(32.3%p)의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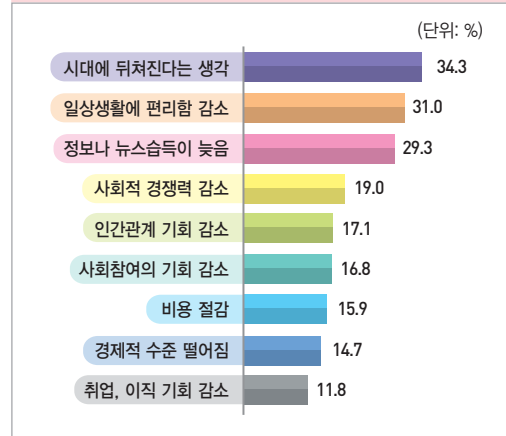
그림 138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21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장노년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34.3%),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31.0%),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29.3%), '사회적 경쟁력 감소'(19.0%), '인간관계 기회 감소'(17.1%),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16.8%), '비용 절감'(15.9%), '경제적 수준 떨어짐'(14.7%), '취업, 이직 기회 감소'(11.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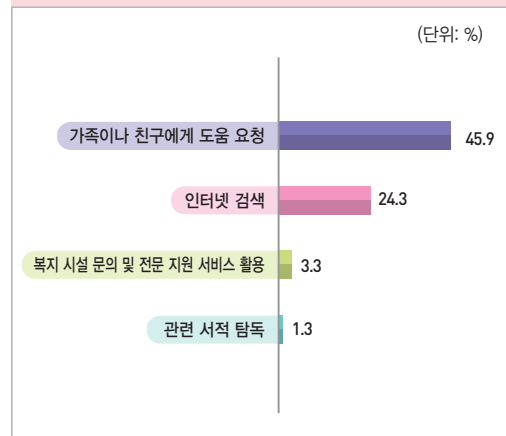
그림 139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22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45.9%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24.3%),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3.3%), '관련 서적 탐독'(1.3%)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50대(55.5%), 서비스/판매직(53.0%), 생산 관련 직(55.5%), 고졸(56.2%), 월소득 300만원 이상(53.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은 전문관리/사무직(56.5%), 고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40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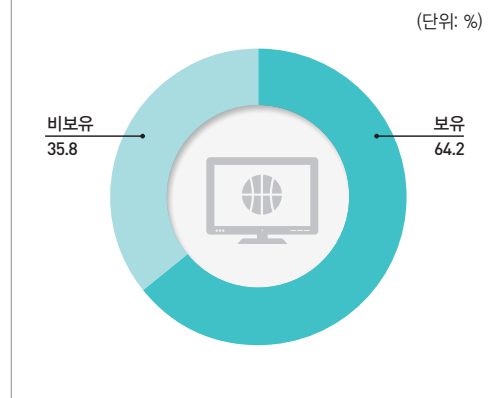
농어민

4. 농어민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 2015년 기준, 농어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4.2%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¹ 보다 12.9%p 낮게 나타남
- 2014년 농어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65.1%) 대비 0.9%p 감소
- 농어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월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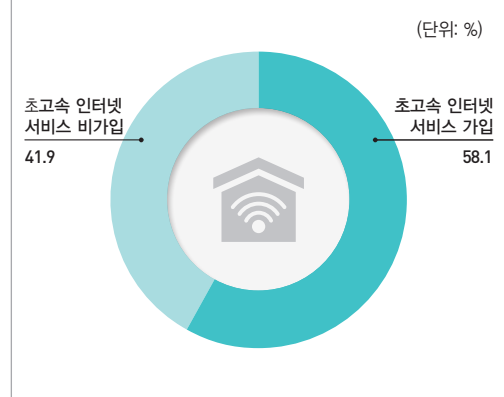
그림 141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 2015년 기준, 농어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58.1%로, 2014년(55.0%)보다 3.1%p 높은 수준임
- 농어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고소득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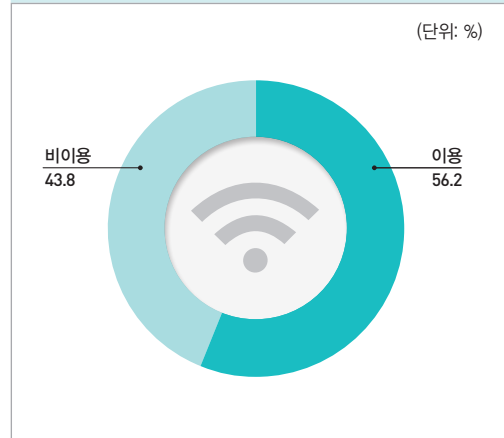
그림 142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3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56.2%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² 보다 28.9%p 낮은 수준임
 - 2014년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47.1%) 대비 9.1%p 증가
-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자(62.2%)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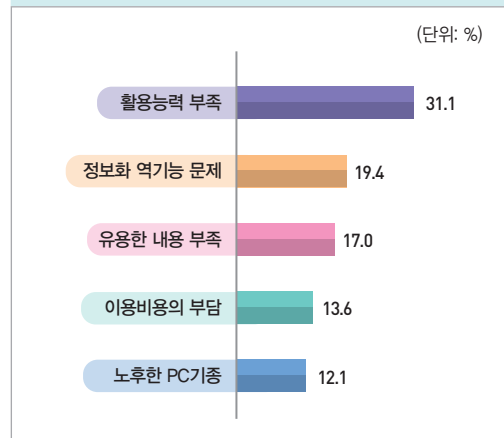
그림 143 • 인터넷 이용 현황



4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농어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31.1%)을 꼽음
 - 그 다음으로 '정보화 역기능 문제'(19.4%), '유용한 내용 부족'(17.0%), '이용비용의 부담'(13.6%), '노후한 PC 기종'(12.1%) 등의 순임
- '활용능력 부족'은 50대 이상(41.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20대 이하(31.9%), 30대(3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44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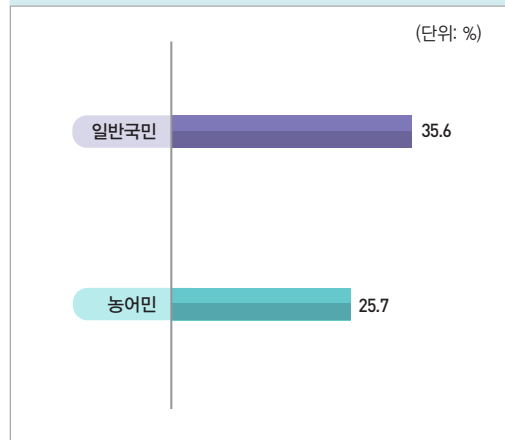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5 정보생산 활동률

* 정보생산 활동률은 본인이 직접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농어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25.7%로 일반국민(35.6%)보다 9.9%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생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2.2% 수준
- 농어민의 정보생산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52.4%)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 및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45 • 정보생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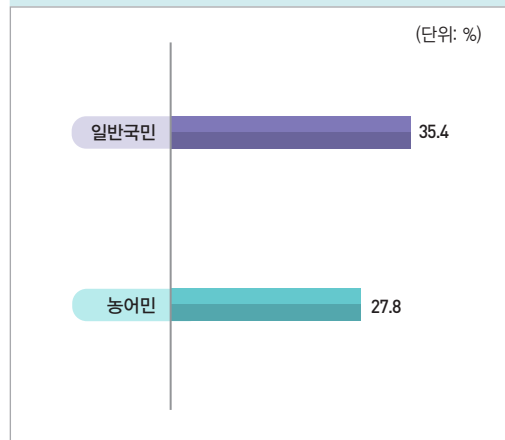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6 정보공유 활동률

* 정보공유 활동률은 타인이 만든 정보(지식·동영상·사진 등)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공유하는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농어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27.8%로 일반국민(35.4%)보다 7.6%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공유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8.5% 수준
- 농어민의 정보공유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55.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임

그림 146 • 정보공유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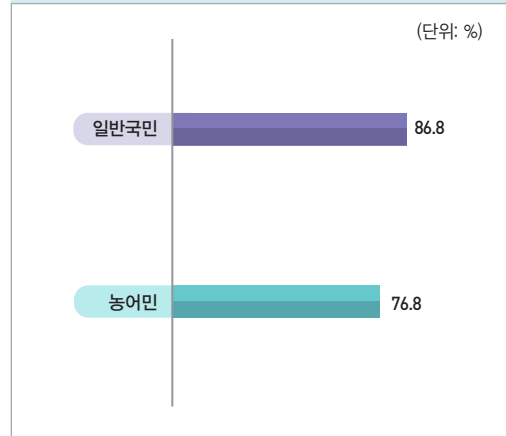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 일반 블로그 서비스(다음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티스토리 · 싸이월드 등)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트위터 · 미투데이 · 요즘 · 페이스북 · 카카오토리 등) 이용 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디지털 참여 및 관계형성의 핵심 용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76.8%로, 일반국민(86.8%)에 비해 10.0%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8.5% 수준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은 20대 이하(93.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7 •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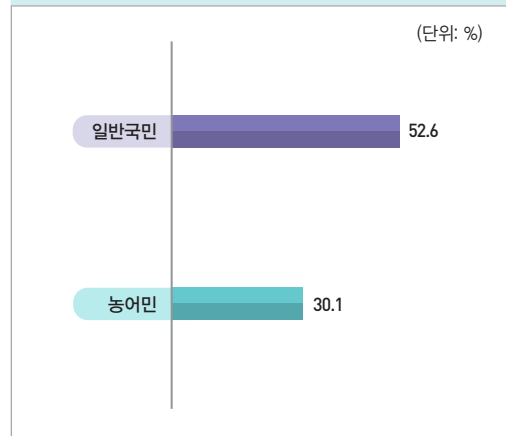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8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터넷 카페 · 동호회 · 모임 등) 이용여부(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농어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30.1%로 일반국민(52.6%)보다 22.5%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57.2% 수준임
- 농어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은 고소득일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65.2%)에서 높고, 대졸이상(5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48 •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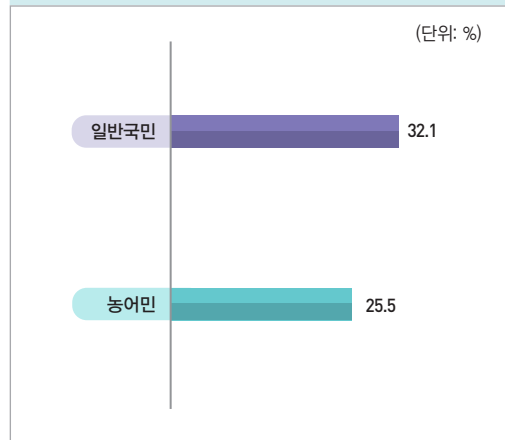
-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 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 농어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25.5%로 일반국민(32.1%)보다 6.6%p 낮게 나타나, 농어민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지라도 일반국민에 비해 사회적 이슈나 정부정책 관련 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 활동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9.4% 수준

- 농어민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연령별로 20대 이하(49.8%),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3.7%), 소득별로는 월 300만원 이상(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49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0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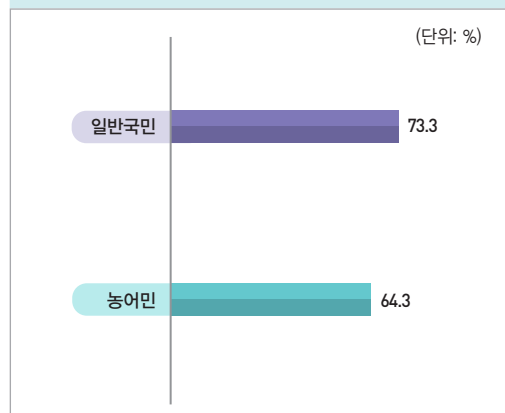
-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 + 자주함)로 측정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은 64.3%로 일반국민(73.3%)에 비해 9.0%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네트워크 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네트워크 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7.7% 수준

- 농어민의 네트워크 활동률은 연령별로 30대(83.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50 •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1 온라인 경제활동률

* 온라인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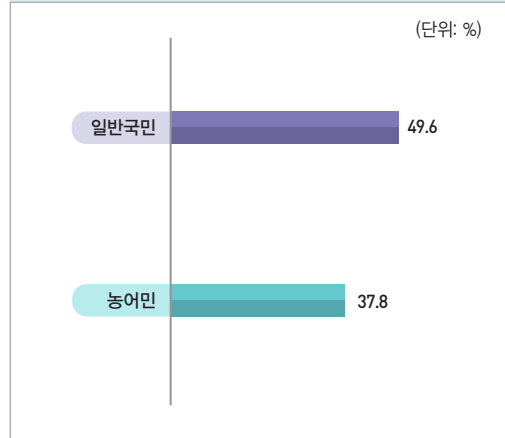
(예) '취업(부업)/이직(승진)/창업', '소득창출(소득유지/증대)'을 위한 정보검색/습득, 교육/학습, 커뮤니티(모임) 참여, 인맥형성/관리, 다양한 재테크 활동 등

- 인터넷 이용자 기준, 농어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37.8%로 일반국민(49.6%)에 비해 11.8%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온라인 경제활동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76.2% 수준

- 농어민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20대 이하(60.8%), 30대(59.1%), 대졸 이상(63.1%), 월소득 300만원 이상(51.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51 • 온라인 경제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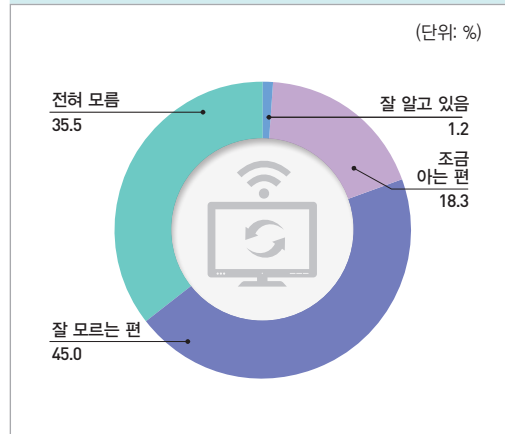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12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9.5%(잘 알고 있음 : 1.2% + 조금 아는 편 : 18.3%)로 나타남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50대 이상(81.0%), 초등학교 이하(84.8%), 월소득 100만원 미만(8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52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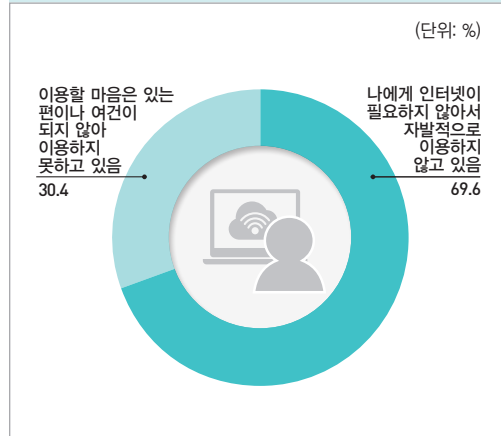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3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집단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69.6%,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30.4%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20대 이하(8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대졸 이상(5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53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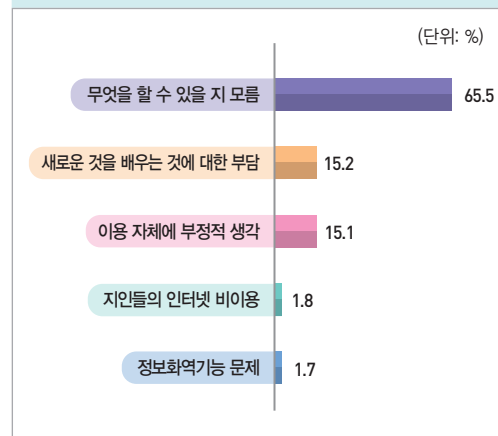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4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집단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65.5%)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15.2%),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15.1%),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1.8%), ‘정보화역기능 문제’(1.7%)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월소득 100만 원 미만(7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54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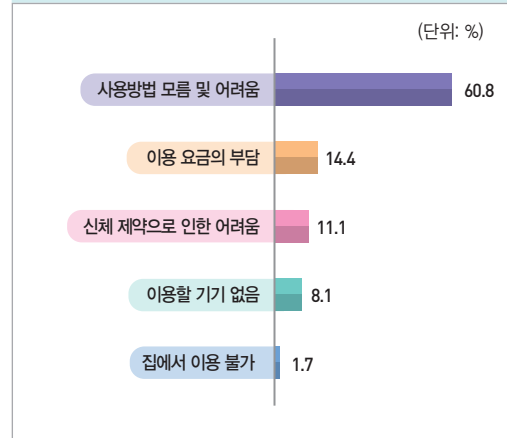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5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집단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6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부담'(14.4%),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11.1%) 등의 순임
-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은 여성(62.5%), 월소득 300만원 이상(74.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55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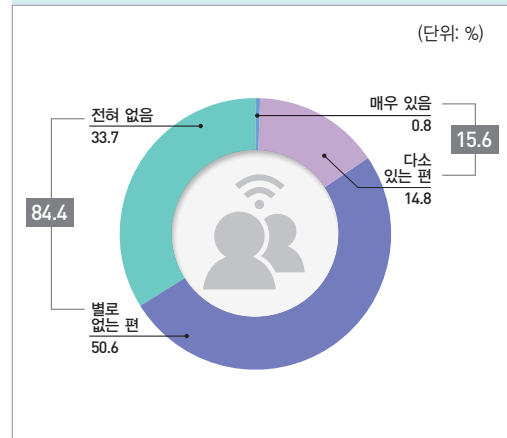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16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집단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84.4%로 '있다' (15.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20대 이하(40.0%), 40대(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56 ● 인터넷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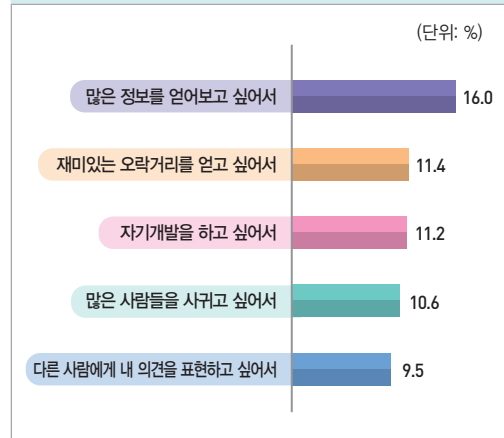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7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16.0%),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11.4%),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11.2%),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10.6%),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9.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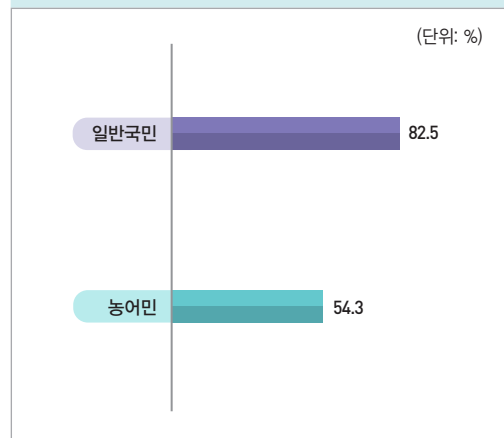
그림 157 • 인터넷 이용 동기



18 스마트폰 보유 현황

- 농어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4.3%로 일반 국민(82.5%)에 비해 28.2%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65.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농어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여성보다 남성(58.8%)에서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높았으며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58 • 스마트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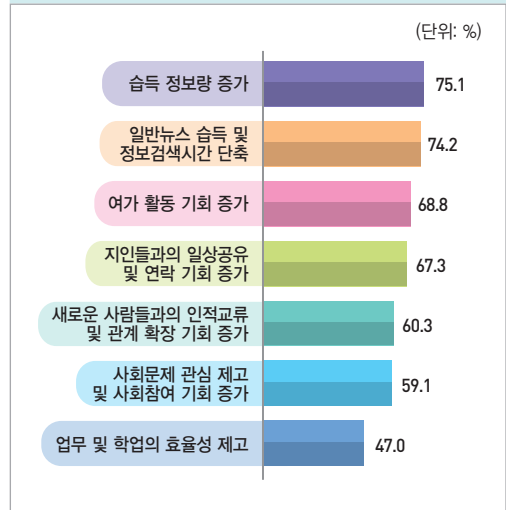


19 스마트폰 이용 효과

● 농어민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습득 정보량 증가', '뉴스 습득 및 정보검색시간 단축', '여가활동 기회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 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농어민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9 ● 스마트폰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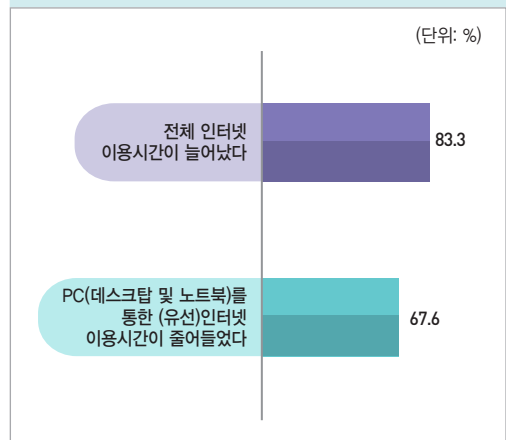
20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83.3%,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67.6%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와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 모두 40대 이하,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높았음

그림 160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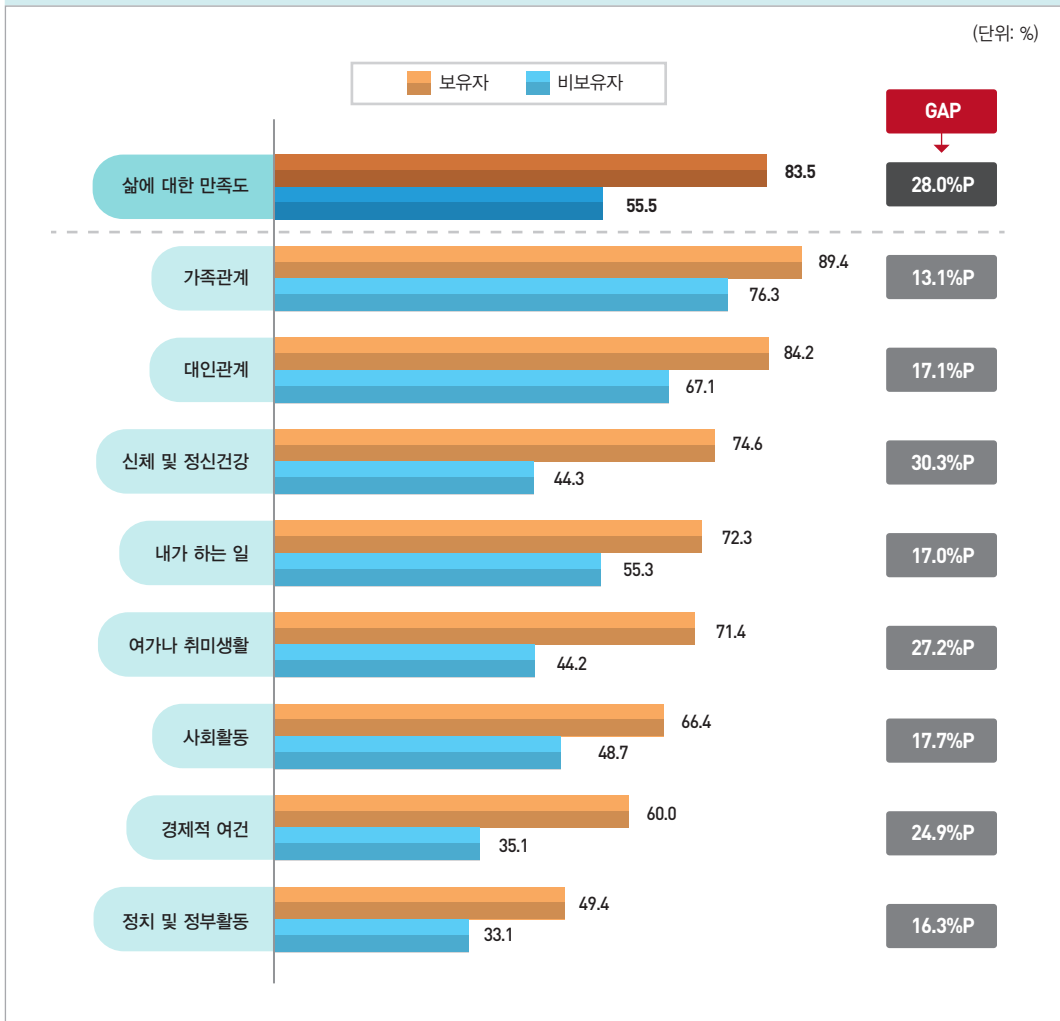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21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83.5%로 비보유자(55.5%)에 비해 28.0%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신체 및 정신건강'(30.3%p)과 '여가나 취미생활'(27.2%p), '경제적 여건'(24.9%)에 대한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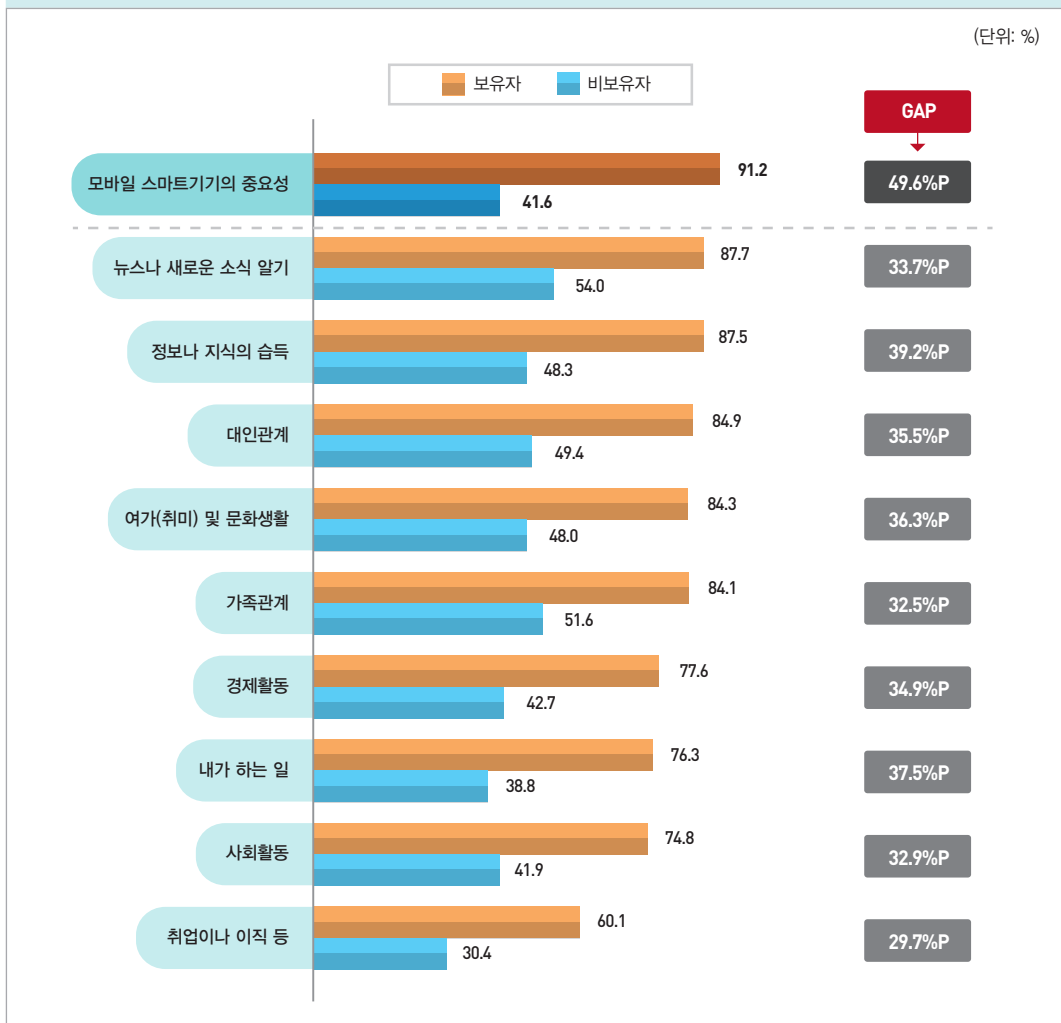
그림 161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2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나 지식의 습득’(39.2%p), ‘내가 하는 일’(37.5%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36.3%p), ‘대인관계’(35.5%p), ‘경제활동’(34.9%),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33.7%p), ‘사회활동’(32.9%p), ‘가족관계’(32.5%p), ‘취업이나 이직 등’(29.7%)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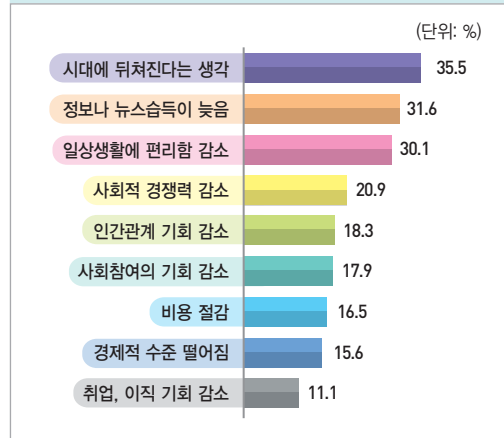
그림 162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23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 (35.5%),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 (31.6%),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 (30.1%), '사회적 경쟁력 감소' (20.9%), '인간관계 기회 감소' (18.3%),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17.9%), '비용 절감' (16.5%), '경제적 수준 떨어짐' (15.6%), '취업, 이직 기회 감소' (11.1%) 순임

그림 163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24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41.5%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 (24.2%),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 (1.1%), '관련 서적 탐독' (0.2%)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40대 (47.4%), 50대 이상(44.8%), 중졸(53.6%), 고졸(52.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은 20대 이하(75.5%), 30대(73.2%)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64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결혼이민자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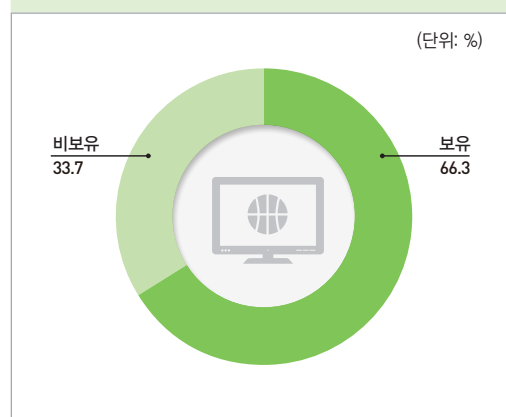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6.3%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¹ 보다 10.8%p 낮게 나타남
 - 2014년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68.3%) 대비 2.0%p 감소
- 컴퓨터 보유율은 20대 이하(70.4%)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남
 - 반면, 50대 이상(44.8%),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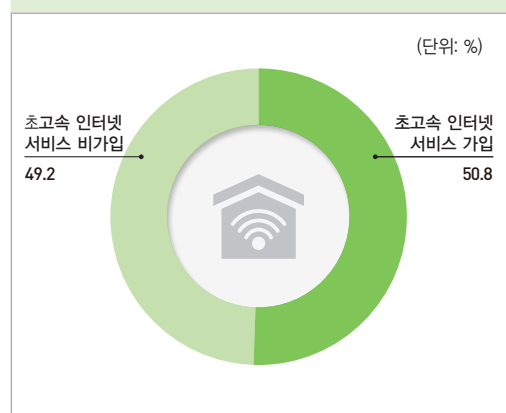
그림 165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50.8%로, 2014년(50.3%)보다 0.5%p 높은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남성(57.1%), 20대 이하(5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일수록 높았음

그림 166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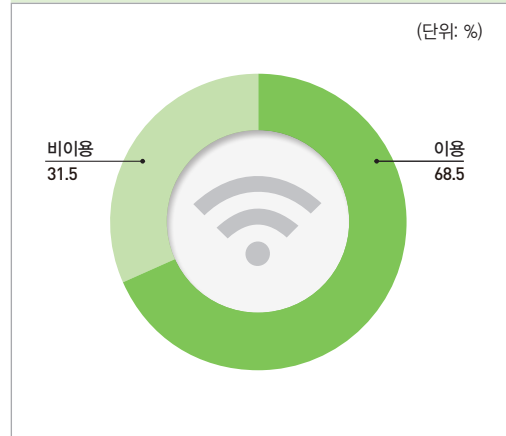


1 자료출처 :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3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68.5%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² 보다 16.6%p 낮은 수준임
 -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이용률(65.5%) 대비 3.0%p 증가
-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72.3%), 30대(78.7%)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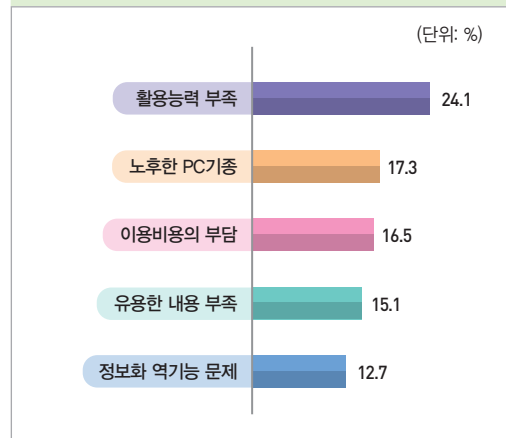
그림 167 • 인터넷 이용 현황



4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북한이탈주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24.1%)을 꼽음
 - 그 다음으로 '노후한 PC기종'(17.3%), '이용비용의 부담'(16.5%), '유용한 내용 부족'(15.1%), '정보화 역기능 문제'(12.7%) 등의 순임
- '활용능력 부족'은 50대 이상(38.5%),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한 PC기종'은 50대 이상(3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68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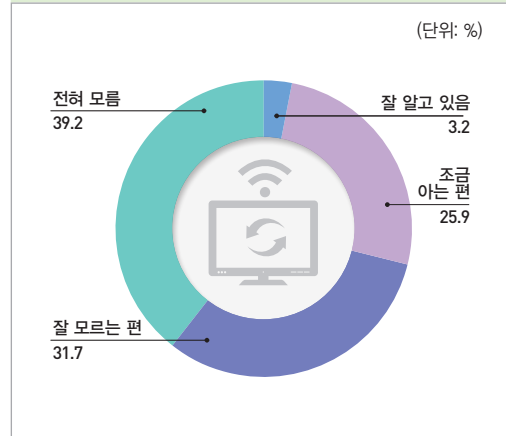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5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북한이탈주민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9.1% (잘 알고 있음 : 3.2% + 조금 아는 편 : 25.9%)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30대(43.6%), 월소득 100~199만원(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69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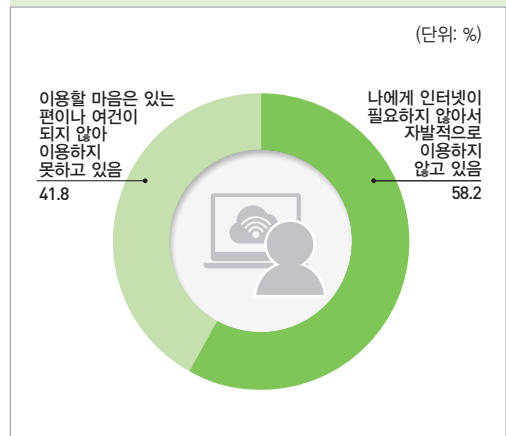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6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58.2%,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41.8%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남성(69.4%), 20대 이하(6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여성(45.7%), 30대(51.3%), 월소득 100~199만원(5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70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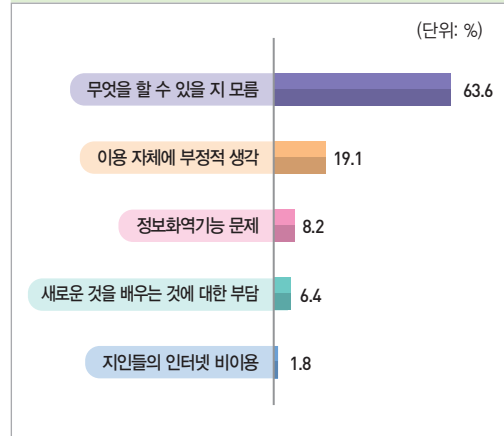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7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63.6%)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19.1%), '정보화 역기능 문제'(8.2%),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6.4%),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1.8%)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20대 이하(77.8%), 월소득 100~199만원(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71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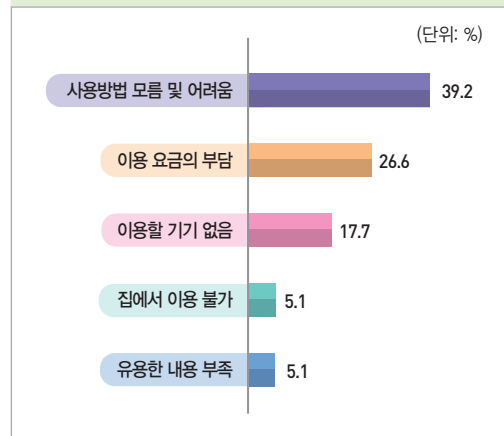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8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3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부담'(26.6%), '이용할 기기 없음'(17.7%) 등의 순임
-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은 남성(53.3%), 월소득 100~199만원(4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용요금의 부담'은 여성(31.3%), 50대 이상(35.0%), 월소득 100만원 미만(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72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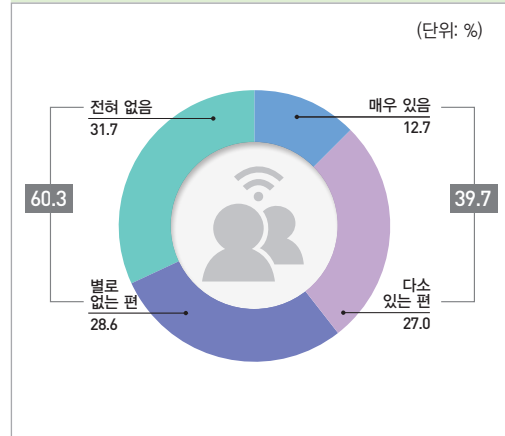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9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용 부담이탈주민 집단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60.3%로 '있다'(39.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여성(45.7%), 40대(51.3%), 월소득 100~199만원(47.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73 •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0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37.0%),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28.0%),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28.0%),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23.8%),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23.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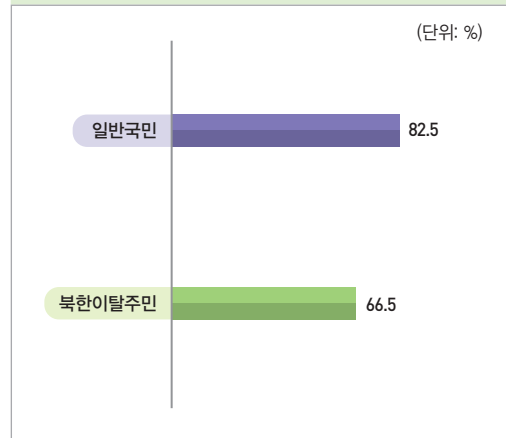
그림 174 • 인터넷 이용 동기



11 스마트폰 보유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6.5%로 일반국민(82.5%)에 비해 16.0%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0대(77.0%), 20대 이하(72.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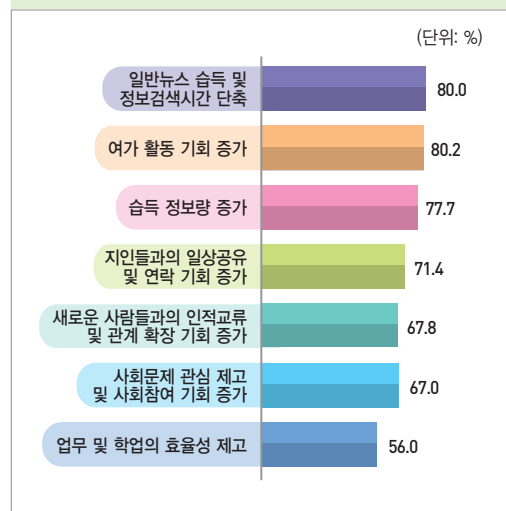
그림 175 ● 스마트폰 보유율



12 스마트폰 이용 효과

-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기회 증가', '여가활동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북한이탈주민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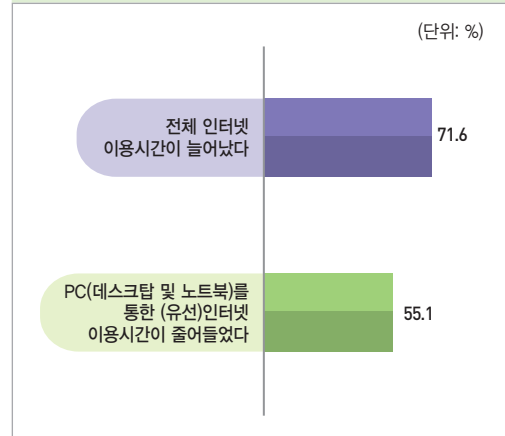
그림 176 ● 스마트폰 이용 효과



13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71.6%,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55.1%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연령 별로 20대(77.2%), 50대 이상(76.9%)에서, 월소득 200만원 이상(90.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대체로 50% 내외로 나타났음

그림 177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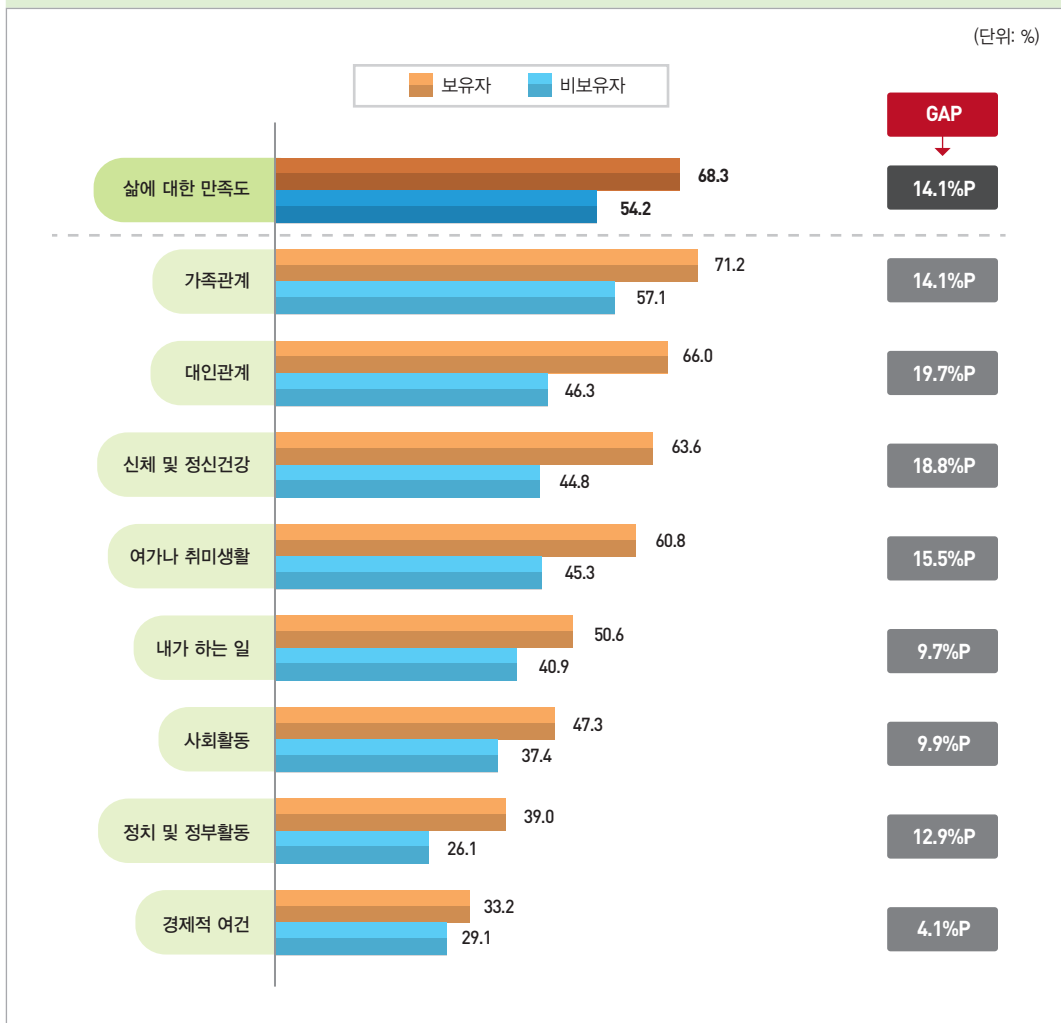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14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68.3%로 비보유자(54.2%)에 비해 14.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대인관계’(19.7%p)과 ‘신체 및 정신건강’(18.8%p), ‘여가나 취미생활’(15.5%p)에 있어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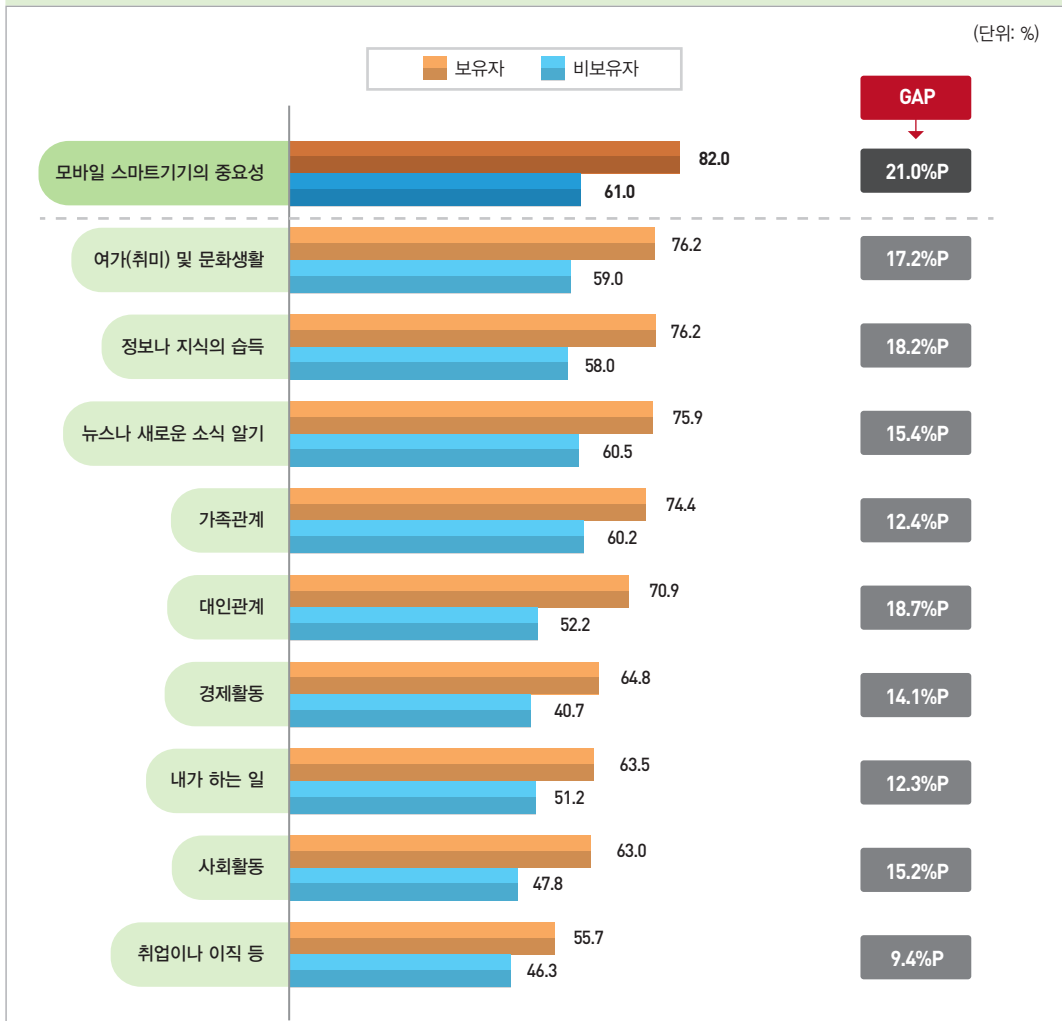
그림 178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5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인관계’(18.7%p), ‘정보나 지식의 습득’(18.2%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17.2%p),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15.4%p), ‘사회활동’(15.2%p), ‘경제활동’(14.1%p), ‘가족관계’(12.4%p), ‘내가 하는 일’(12.3%p), ‘취업이나 이직 등’(9.4%p)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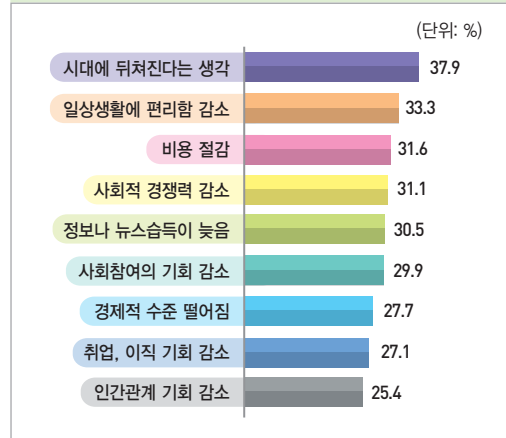
그림 179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6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37.9%),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33.3%), '비용 절감'(31.6%), '사회적 경쟁력 감소'(31.1%),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30.5%),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29.9%), '경제적 수준 떨어짐'(27.7%), '취업, 이직 기회 감소'(27.1%), '인간관계 기회 감소'(25.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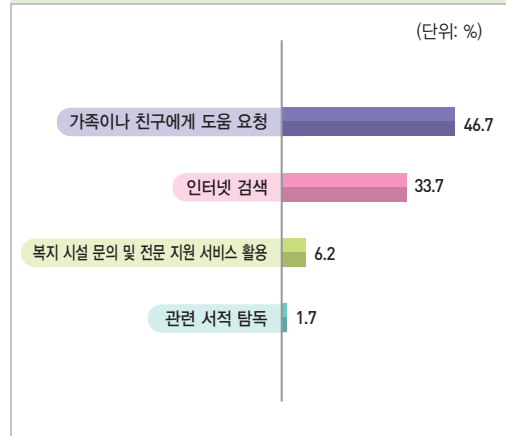
그림 180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7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46.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33.7%),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6.2%), '관련 서적 탐독'(1.7%)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50대 이상(5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일수록 높았고, '인터넷 검색'은 30대(37.7%), 20대 이하(3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음

그림 181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PART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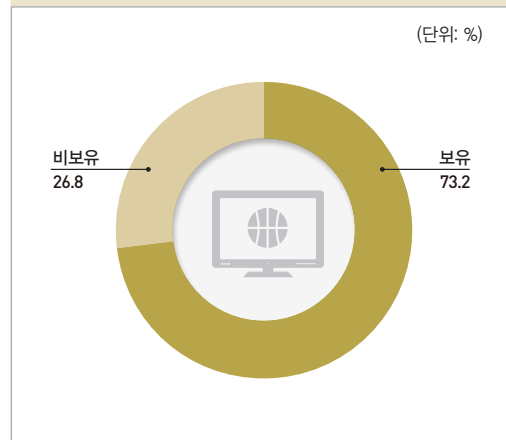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6. 결혼이민자

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 2015년 기준, 결혼이민자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3.2%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7.1%¹ 보다 3.9%p 낮게 나타남
 - 2014년 결혼이민자층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74.8%) 대비 1.6%p 감소
- 컴퓨터 보유율은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월 가구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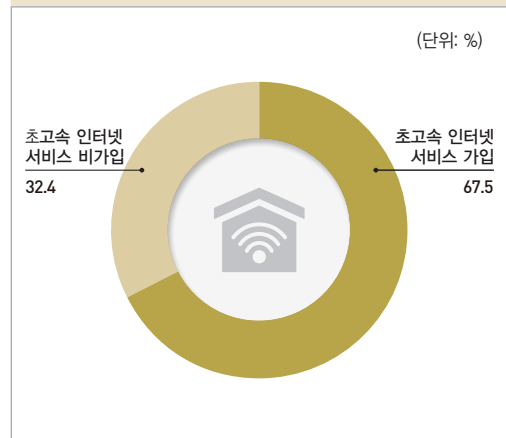
그림 182 •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2 가구 인터넷 접속 현황

- 2015년 기준, 결혼이민자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67.5%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졸 이하(70.3%), 월소득 200만원 이상(71.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83 •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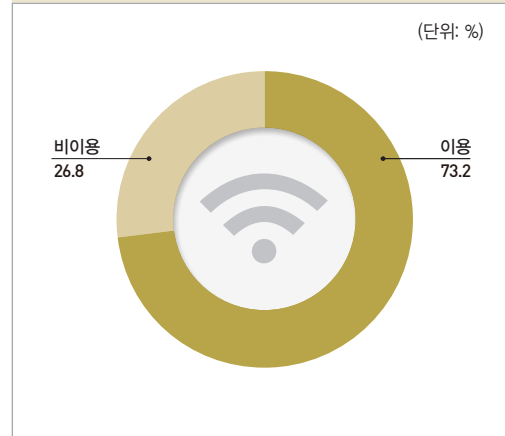


1 자료출처 :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3 인터넷 이용 현황

-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73.2%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85.1%² 보다 11.9%p 낮은 수준임
 - 2014년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률(71.8%) 대비 1.4%p 증가
-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30대(76.5%), 고졸(75.1%), 대졸 이상(75.0%), 월소득 200만원 이상(7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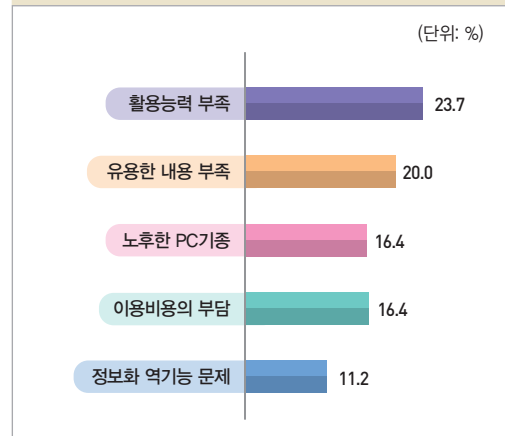
그림 184 • 인터넷 이용 현황



4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결혼이민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활용능력 부족' (23.7%)을 꼽음
 - 그 다음으로 '유용한 내용 부족'(20.0%), '노후한 PC기종'(16.4%), '이용 비용의 부담'(16.4%), '정보화 역기능 문제'(11.2%) 등의 순임
- '유용한 내용 부족'은 중졸이하(3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비용의 부담'은 20대 이하(21.4%), 월소득 100만원 미만(28.6%), 고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85 •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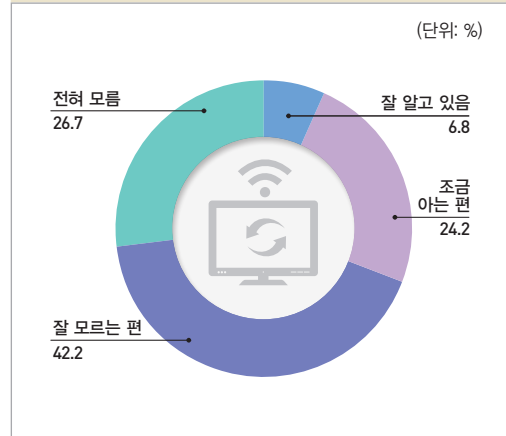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5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기준, 인터넷 이용용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1.0%(잘 알고 있음 : 6.8% + 조금 아는 편 : 24.2%)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율은 40대 이상(37.9%), 중졸 이하(39.1%), 월소득 100~199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86 •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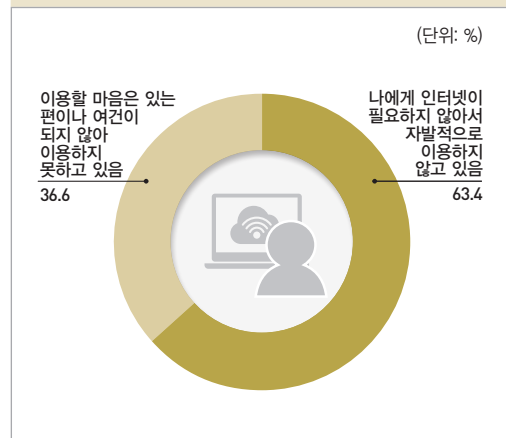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6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집단의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63.4%,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36.6%로 나타남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30대(73.9%), 대졸 이상(81.1%), 월소득 200만원 이상(7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은 40대 이상(41.4%), 20대 이하(40.4%), 중졸 이하(50.0%), 월소득 100만원 미만(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87 • 자발적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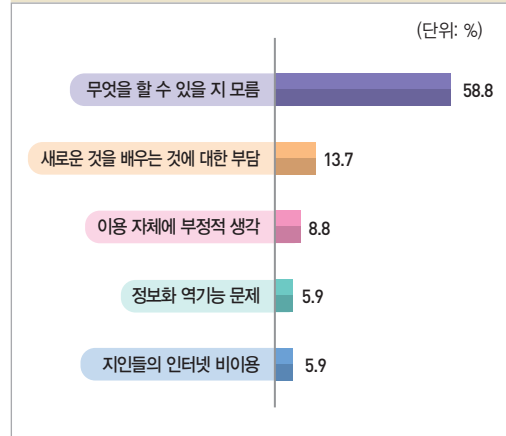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7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집단의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58.8%)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13.7%), '이용 자체에 부정적 생각'(8.8%), '정보화 역기능 문제'(5.9%),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5.9%) 순임
-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름'은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88 ●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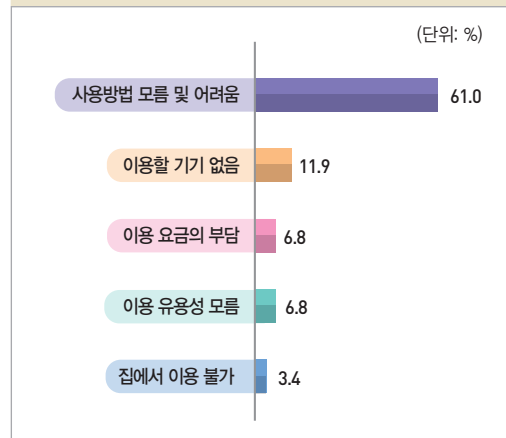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8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

-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집단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6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이용할 기기 없음'(11.9%), '이용 요금의 부담'(6.8%), '이용 유용성 모름'(6.8%) 등의 순임
-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은 20대 이하(69.6%), 대졸 이상(71.4%), 월소득 100만원 미만(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89 ●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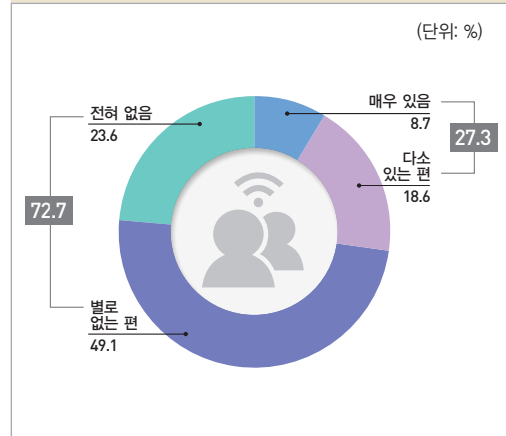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이며, 응답률 상위 5순위까지 항목만 제시

9 인터넷 이용 의향

- 인터넷 비이용 결혼이민자 집단 중 인터넷 이용 의향이 '없다'는 72.7%로 '있다'(27.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의향률은 40대 이상(32.8%), 중졸 이하(34.8%), 월소득 100~199만원(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0 • 인터넷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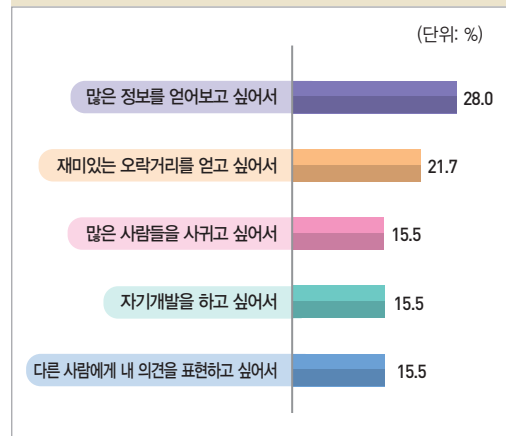


※ 인터넷 비이용자 기준

10 인터넷 이용 동기

- 인터넷 이용 동기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28.0%),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고 싶어서'(21.7%),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15.5%),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15.5%),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서'(15.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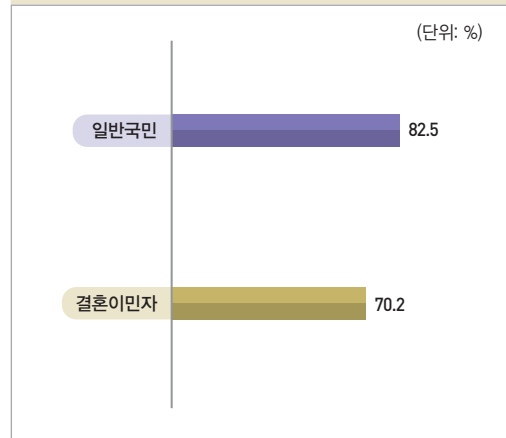
그림 191 • 인터넷 이용 동기



11 스마트폰 보유 현황

- 2015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0.2%로 일반국민(82.5%)에 비해 12.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일반국민의 85.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0대(73.5%), 고졸(72.4%), 대졸 이상(70.3%), 월소득 200만원 이상(7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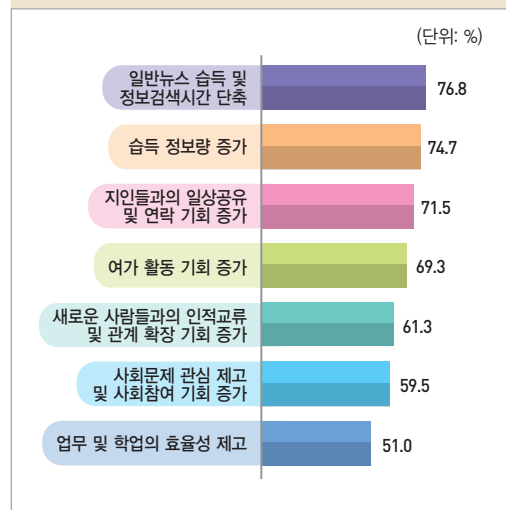
그림 192 • 스마트폰 보유율



12 스마트폰 이용 효과

- 결혼이민자의 스마트폰 이용 이후 변화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결과
 - 스마트폰 이용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지인들과의 일상공유 및 연락기회 증가', '여가활동 기회 증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적교류 및 관계 확장 기회 증가', '사회문제 관심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증가', '업무 및 학업의 효율성 제고' 등 결혼이민자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3 • 스마트폰 이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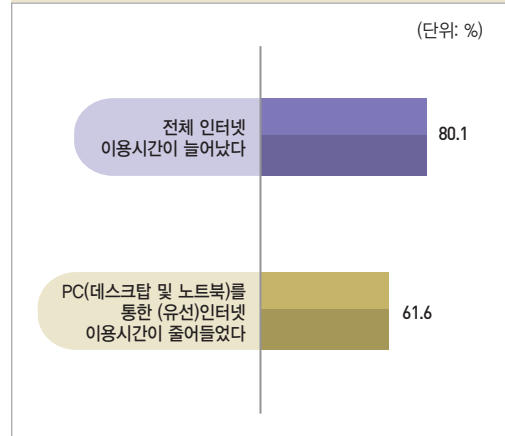
13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이용이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80.1%,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 감소’가 61.6%였음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PC가 아닌 무선을 통한 증가임을 시사

-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30대(84.1%), 고졸(84.2%), 대졸이상(82.7%), 저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7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94 ● 스마트폰이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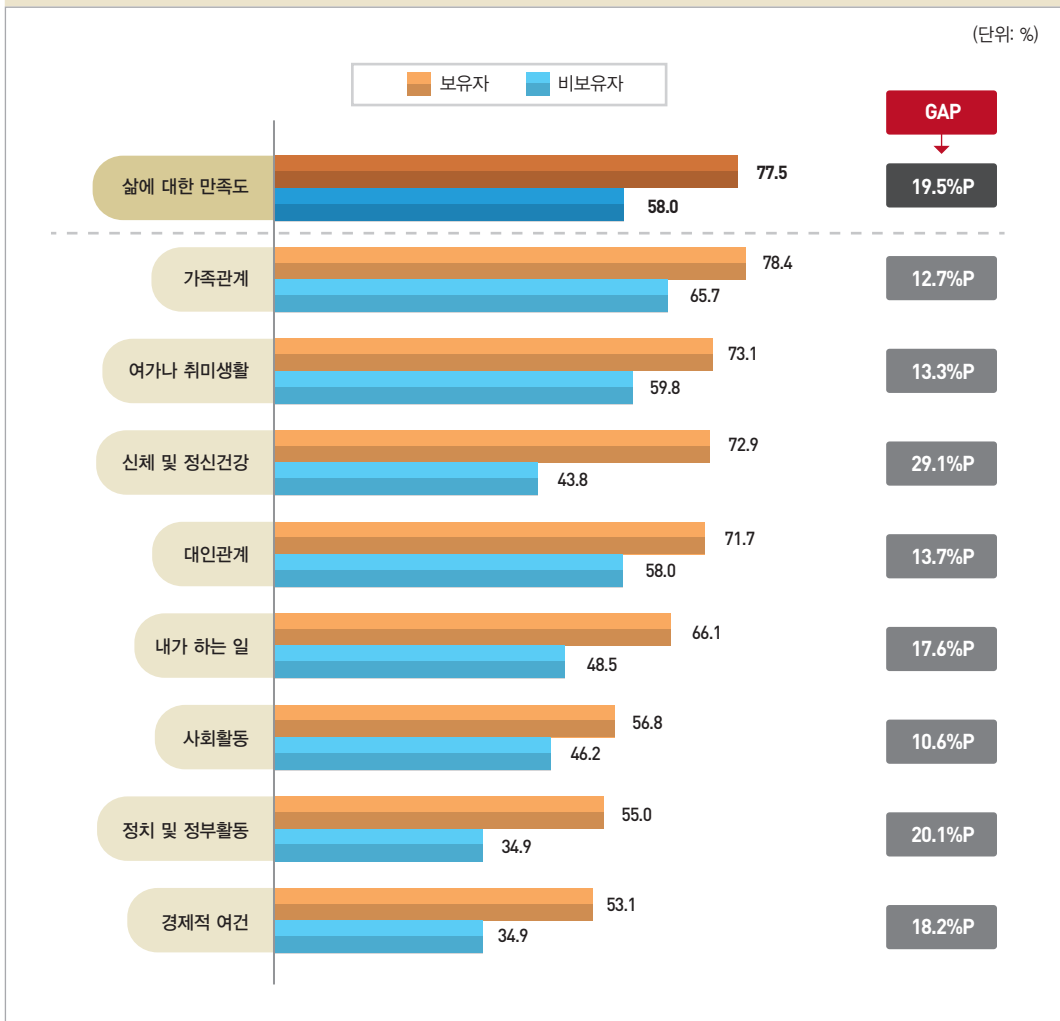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자 기준

14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7.5%로 비보유자(58.0%)에 비해 19.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비보유자가 보유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신체 및 정신건강'(29.1%p)과 '정치 및 정부활동'(20.1%p), '경제적 여건'(18.2%p)에 있어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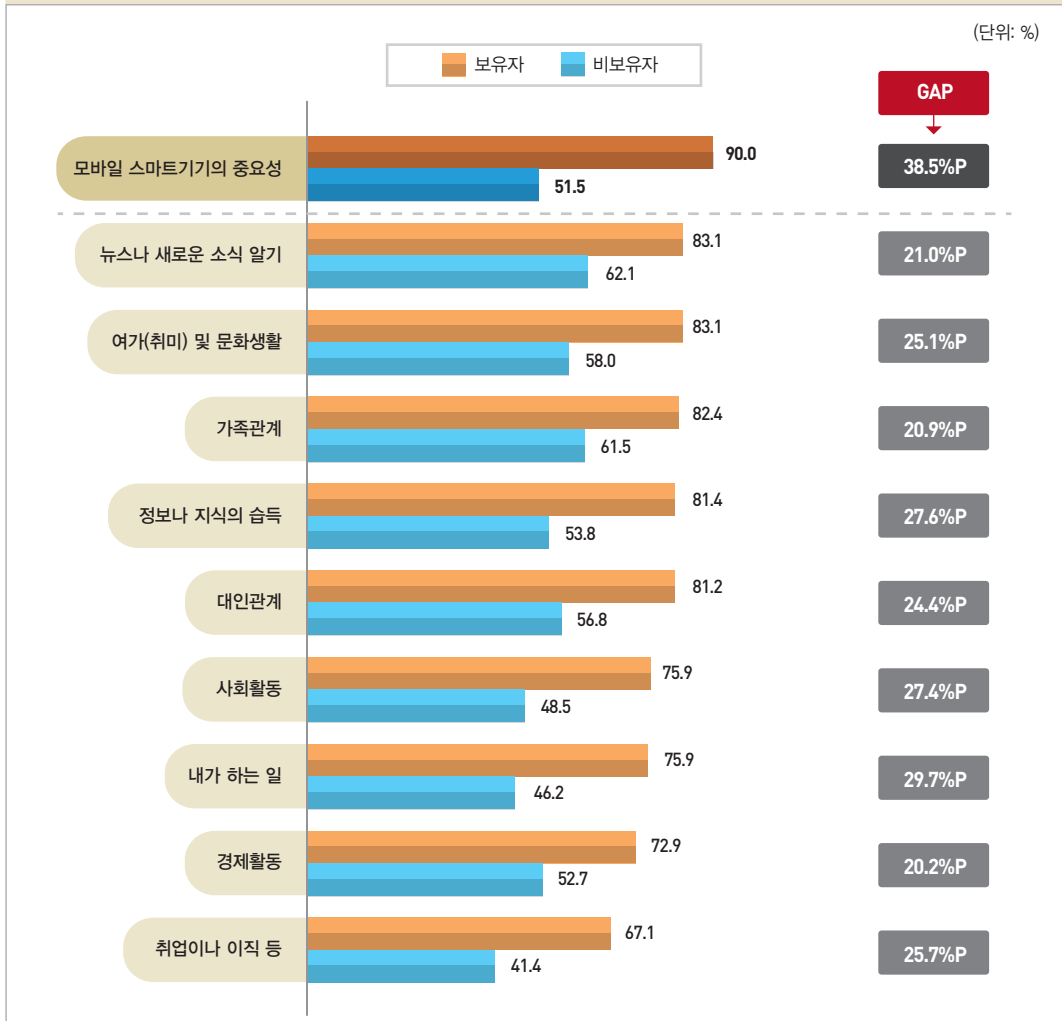
그림 195 ● 모바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15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스마트폰 보유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비보유자 에 비해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내가 하는 일’(29.7%p), ‘정보나 지식의 습득’(27.6%p), ‘사회활동’(27.4%), ‘취업이나 이직 등’(25.7%p),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25.1%p), ‘대인관계’(24.4%p), ‘뉴스나 새로운 소식 알기’(21.0%p), ‘가족관계’(20.9%p), ‘경제활동’(20.2%p) 순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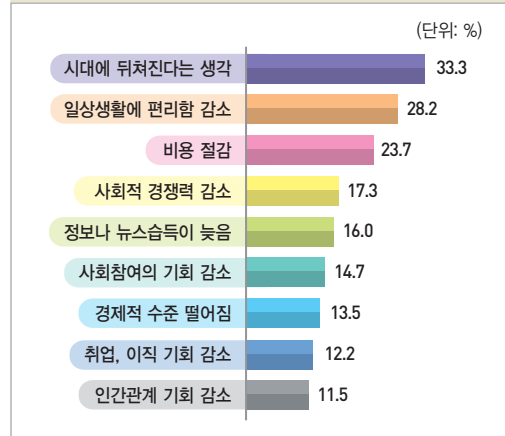
그림 196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성에 대한 인식



16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생각'(33.3%), '일상생활에 편리함 감소'(28.2%), '비용 절감'(23.7%), '사회적 경쟁력 감소'(17.3%), '정보나 뉴스습득이 늦음'(16.0%),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14.7%), '경제적 수준 떨어짐'(13.5%), '취업, 이직 기회 감소'(12.2%), '인간관계 기회 감소'(11.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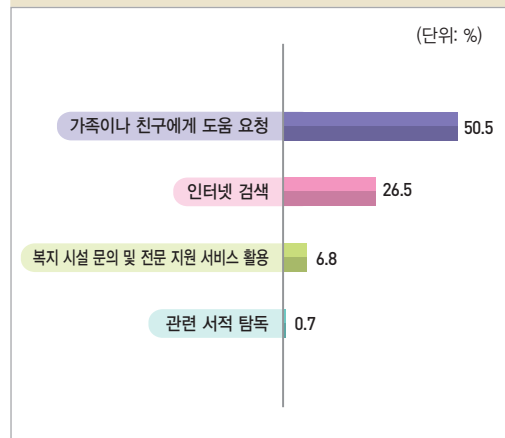
그림 197 • 모바일 인터넷 비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17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50.5%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26.5%), '복지 시설 문의 및 전문 지원 서비스 활용'(6.8%), '관련 서적 탐독'(0.7%)의 순임
-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은 40대 이상(53.7%), 중졸 이하(56.6%), 월소득 200만원 이상(5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은 30대(34.2%), 월소득 100만원 미만(42.3%), 고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98 •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시 궁금한 사항 해결 방안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국가승인통계번호 : 제12017호
승인통계명 :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발행일 2015. 12(비매품)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대표전화 : 02-2110-2152-3 / www.msip.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53
대표전화 : 053-230-1114 / www.nia.or.kr

인쇄처 호정씨앤피 (전화 : 02-2277-4718)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15 정보격차실태조사 보고서」 O O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02-6191-2024, cja@nia.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과 장 신승한
 사무관 손창용
 주무관 고은희

수행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권미수
 팀 장 이영선
 책 임 최정아

조사시행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